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9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9호 (330)

차 례

수령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오는 9월 9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어머니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스물한돐이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있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의 스무해를 총화하시고 혁명승리의 새로운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지난 한해동안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한 새로운 눈부신 성과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전민족적경사의 날인 공화국창건 스물한돐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밝히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과학적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가지는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 혁명의 거세찬 파도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현시대가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는 제반 원칙적문제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를 더욱 깊이있게 학습하여 거기에 담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우리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를 밝히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찬란한 승리적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화국의 20년은 영광의 20년이며 투쟁과 승리의 20년이며 창조와 전진의 20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7페지)

공화국기치아래 우리 인민이 지난 20여년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세기적변혁을 이룩하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은것은 오직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정권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항상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독창적이고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수행에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조직동원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들을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가장 철저하게 수행할수 있게 한 독창적인 민주개혁방침들과 사회주의개조방침,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처음으로 밝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당 및 국가적 지도와 경제관리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를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인민경제계획화에서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 등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가장 올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고 우리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지반을 반석같이 공고히 할수 있게 한 지침이였으며 믿음직한 담보였다. 실로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모든 승리적로정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이 땅우에 구현되고 활짝 꽃펴온 영광의 력사이며 창조와 전진의 력사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이 이룩한 모든 성과와 빛나는 업적을 전적으로 김일성동지의 이름과 결부시키고있으며 모든것을 그이께 의탁하고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공화국을 4천만 조선인민의 참다운 어머니조국으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로 우러러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총화하신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로정과 빛나는 업적은 커다란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공화국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와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은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거쳐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혁명의 전력사적 단계를 포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난 20여년간에 걸치는 풍부한 경험은 바로 우리 혁명의 이 모든 력사적단계들에서 그 정당성이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였으며 시련을 뚫고 승리하여온,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산 맑스-레닌주의의 집대성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직진함으로써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자기의 산 경험과 모범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주권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 서광을 비쳐주고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그 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륭성과 번영의 길—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 새 조국 건설에 용감하게 떨쳐나선 인민들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보장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있어서의 혁명과 건설의 장력적과업에 대

한 문제이며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운동이 제기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리론 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착취계급과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혁명을 계속할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의 사회는 아직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하여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물들을 없애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끝까지 견지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와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결코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그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진압을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자기 나라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이외의 다른 무기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쟁취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과업을 두 요새—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이라는 독창적인 명제로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달성을 위한 두 분야의 과업을 끝까지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점령할수 있는 요새로 간주하시며 물질적요새하나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하신 그 사상의 기저에는 철저한 계급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이 놓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밝히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사회의 두 단계와 계속혁명 그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위대한 창조적발전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

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무겁고도 긴장된 임무가 나서있다.

우리는 멸망의 운명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철천지 원쑤 미제의 조종하에 날로 격화되고있는 박정희역적도당과 적대계급잔여분자들의 발악적인 준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그것을 걸음마다 분쇄하여야 하며 임의의 시각에 있을수 있는 적들의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이를 단매에 처물리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장하는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야 한다.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거듭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계속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보다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두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여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고 국가재산을 적극 애호절약할데 대한 당의 긴절한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함께 종국적승리에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이 가지는 의의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와 같은 책, 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적극적지원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

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여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이룩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 당들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의 공고화를 위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독창적리론이 가지는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 다그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7개년계획의 수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는 그만큼 더 촉진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국제적련대성은 강화되고 세계혁명은 더한층 전진하게 될것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인 날강도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고 미제와 그 동맹자들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보고에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독창적인 투쟁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놈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1페지)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이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반제반미투쟁에 구현된것으로서 현시기 반제투쟁에 떨쳐나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진실로 혁명적이고 명확한 투쟁전략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한 천재적인 투쟁전략이다. 이 전략은 주되는 적인 미제에게 창끝을 집중하고 사면으로부터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 미제를 완전히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는 진공적인 전략이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때려부심으로써 미제의 세계전략전반을 제압하며 좌절파탄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며, 련속적인 타격으로 미제의 힘을 최대한 분산약화시키고 그 자체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는 혁명적인 전략이다.

김일성동지의 세계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구현하고있는 이 투쟁전략은 그이께서 현시기 국제정세발전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의 반제반미투쟁의 력사적경험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취약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작성하신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투쟁전략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미투쟁전략 특히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은 오늘 세계혁명가들과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자기들의 사활적인 투쟁전략으로 접수하였으며 조선인민이 미제의 첫번째다리를 뜯어내면 미제의 다른 다리를 뜯어낼 임무는 자기들이 맡겠다는것을 결의하면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각을 뜯어내고 목을 잘라버리기 위한 세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시기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전선에서 계속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 식민지통치제도를 끝장내며 미제의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는것을 밝히시면서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에서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과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그리고 미제가 부식한 남조선반동통치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을 남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킨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투쟁방침이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전략전술적방침을 심장으로 아로새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등 여러 혁명조직을 뭇고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교수대에서 원쑤들과 굴함없이 싸우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또다시 청년, 학생들이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미제와 그 앞잡이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이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며 얼마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를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타오르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을 꺼보려고 갖은 야수적폭압책동과 간교한 기만술책을 다하고있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투쟁에서 각성되며 단련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을 억제할수 없으며 그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심과 함께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과 그 실현방도를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와 같은 책, 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시종일관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가장 공명정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은 이미 온 세계가 알고있으며 세계수억만평화애호인민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있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립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장은 미제와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민족의 원쑤들과의 어떠한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내쫓고 남조선괴뢰도당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이며 성새이다. 조선인민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철저하게 애국적이며 반제적인 정권이다. 우리 공화국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의 대내외정책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고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괴뢰정권은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대표할수 없는 철두철미 매국적이며 예속적이며 반동적, 반인민적인 허수아비 《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된 조선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조선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구현하고있다.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공화국기치하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더욱 완강히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혁명력량을 더 빨리 준비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며 북반부인민들은 조선혁명의 불패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조성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

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이며 3천리강토우에 살기좋고 부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 더욱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하고야 말것이다.

* *

김일성동지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는 우리 혁명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인민들을 위대한 투쟁과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기치, 혁명적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거기에 담겨져있는 헤아릴수 없이 심오하며 생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들로 하여 세계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계속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외국의 벗들은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리론적로작》, 《20세기중엽의 공산당선언》,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경험을 집대성한 맑스-레닌주의문헌》, 《세계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는 문헌》이라고 말하고있다.

보고는 《사회주의의 례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령이다. 보고는 또한 좌우경기회주의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탁월한 고전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의 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김 진 용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관한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리론을 새롭게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실적요구와 먼 앞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그것을 점령하는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정연하게 해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로정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로동계급의 혁명실천에 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리론과 사상은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44페지)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한 천재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할 필요성과 두 요새 점령을 위한 원칙적방도를 명확히 밝혀준 고전적정식화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무엇보다도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두 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천명되여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는 착취사회의 유물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적대적요소의 반항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생산력의 락후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낡은 사회의 잔재와 관련되여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
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있기때문이다.
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착취사회의
를 청산하는 과정은 동시에 새 사회,
주의사회에 상응하게 사회생활의
면모를 완전히 개조하는 과정이다.
요새 점령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은 무엇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의 면모를 완전히 개조하는 투쟁을
사 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데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사회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그에 상응한것으로 철저히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과정은 그와 배치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투쟁과정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은 사회의 사상정신생활분야와 물질생활분야에서 두개의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의 먼 앞날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6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두 요새의 높이를 밝혀주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점령해야 할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의 내용을 명시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은 결국 소유관계와 생산력,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은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이러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전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이며 전인민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

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사회이다.

나라의 공업화를 완전히 실현하여 사회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야만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생산력의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공업과 농업간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로동조건의 차이를 없앨수 있다.

사회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의 생활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지지를 확고부동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사회주의에 상응한것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려야만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전제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는 사상적전제도 마련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서 사상적전제를 마련하는것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페지)

사상정신생활은 물질생활과 함께 사회의 2대생활령역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물질생활분야가 그에 상응하게 완전히 개조될뿐아니라 사상정신생활도 완전히 사회주의적인것으로 개조되여야 한다. 아무리 물질생활이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개조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그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은 물질적요새의 점령만으로 해결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소유형태의 차이와 함께 사상, 도덕,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속되는 낡은 사상의 부식적작용을 근절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식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개조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과 전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야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무계급사회는 오직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면모를 사회주의에 완전히 상응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또한 이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과정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성과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적,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투쟁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사상적,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투쟁은 하나의 통일된 련속적과정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의 공산주의적사회경제구성태에 속하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서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들로 서로 구별되는 동시에 그 사이에는 절대적인 계선이 있을수 없다. 그것들은 다만 성숙정도에서만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지 않을수 없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는 사회주의의 건설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조성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승리로 되며 결정적전진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분야에서와 경제생활분야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후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가기전까지는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없으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도 남아있으며 로동은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지 못한다.

이것들은 이미 확립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부단히 완성하면서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즉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경제적관계와 물질적관계, 사상정신적관계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그리하여 사회에 공산주의적소유가 튼튼히 확립되고 수요에 의한 분배가 실현될수 있을만큼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철저히 개조되였을 때 공산주의사회는 완전히 실현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리론과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과업들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체계화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하나의 련속적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을 과학적으로 밝힌 탁월한 혁명사상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이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가기 위한 원칙적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경제건설도 잘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람들의 사상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쌓아올려 사

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6페지)

이것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고 이 두 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가르쳐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잘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일관되여있으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 통일적과정으로 힘있게 밀고나간데 대한 혁명적립장이 반영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이것은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는 객관적환경과 이 투쟁의 계급적본질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은 치렬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진행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지 않고서는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또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착취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며 로동계급의 리념과 계급적본성에 맞게 사회를 철저히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및 물질적 진제를 마련하는 투쟁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모호하게 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킨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까지 수포로 돌아가게 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는 물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만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혁명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의식적이고도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야만 그들의 사상의식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철저히 개조할수 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

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인민대중을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온갖 낡은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심각한 사상혁명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사상을 뿌리빼고 사회의 사상정신생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것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의식분야에서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할수 없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그들이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는데 있는것이다.

사상혁명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사회의 사상정신생활을 개조하는 결정적방도인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며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도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본질과 그 구체적수행방도까지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부르조아사상을 극복청산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착취계급을 청산할 때의 계급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사상혁명을 홀시하는 우경적편향과 함께 그것을 적대분자들과의 투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는 좌경적편향도 다같이 반대하면서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잘할뿐아니라 경제건설도 잘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5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만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해야만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차이는 사상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끌어올림으로써만 없앨수 있는것이다.

경제건설은 또한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위한 물질적조건을 확고히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도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반드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천재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한 위대한 혁명적사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민족국가단위로 축성되지 않을수 없다.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부원과 원료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이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두 요새를 점령하는 원칙적방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과 정신적조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당하고 혁명적인 결론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주의하에서도 그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조되는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물질적조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온갖 계급적대립이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긴밀히 단합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이러한 능동적작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강화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3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이 앞세워져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앙양되면 될수록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은 더 빨리 촉진될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이 사회의 물질생활을 개조하여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하는것은 또한 이 사업이 공산주의의 물질적전제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복잡한 사업이며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라는것과도 관련된다.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면서 오랜 시일에 걸쳐 참을성있게 정력적으로 밀고나갈 때만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병행하여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

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또한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을 높은 기술문화수준의 소유자로 전변시키고 그들을 문명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건설자로 육성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상혁명과 기술문화혁명은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상혁명과 기술문화혁명 어느 한쪽만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거나 그것들을 호상분리시켜서는 안된다.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경제사업과 기술문화혁명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려도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에 큰 해독을 주게 된다.

사상혁명을 홀시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 일면적으로 치중한다면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을 안일과 해이에 사로잡히게 하고 기술혁명과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이것은 결국 물질적요새자체도 점령할수 없게 한다.

이와 반대로 사상혁명과 계급투쟁만을 절대화하면서 경제건설과 기술문화혁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궁극적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며 사상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이것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없게 하는것은 물론 사상적요새자체도 점령할수 없게 한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길만이 두 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다그치는 가장 옳은 맑스-레닌주의적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리론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실천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이전까지에는 실천적과업으로 나서지 않았고 따라서 선행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도 제기할수 없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혁명적방도를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밝힌 완전히 새로운 리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이 탁월한 리론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는 비로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학적로정을 밝힐수 있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선행고전가들이 그 륜곽만을 제시하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구체적방도가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해명되였다. 이것은 현시대의 요구, 많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오늘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과 방침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탁월한 리론과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과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전망을 명확히 내다보면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자기의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적극적으로 전개할수 있게 되였으며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없애고 유일하게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두 요새 점령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강령적지침

으로 된다.

3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리론과 방침은 이미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그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강화하면서 사상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언제나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갔다.

특히 당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의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강화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림으로써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음모를 걸음마다 분쇄하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인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을 받들고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에 항상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당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면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고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려는 드높은 열의로 가득차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이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의 전반적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정확히 결합시켜왔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등 독창적인 혁명적로선들을 받들고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전면적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생산력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쌓아올렸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여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끌어올리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훌륭히 확증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민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업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인민적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근로자들자신의 대중적투쟁으로 다같이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급속히 교양개조되여나가고있으며 경제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되여가고있다.

생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으며 오직 그이께서 가르치신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계급투쟁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병행해나갈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더 빨리 마련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확고히 증시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로를 따라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여야 할 무겁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4페지)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와 직접 맞서있고 적대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지지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의 붉은 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확고한 혁명적 세계관으로 꾸준히 개조해나가야 한다.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병행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고 기계화를 계속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기술혁명을 강력히 벌려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앨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오늘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혁명적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어김없이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의 앞길은 휘황하며 우리에게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투쟁방도들이 제시되여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차게 앞당겨 나아갈것이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국제주의적련대성

고 춘 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현시기 국제무대에 조성된 력량관계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담보로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내용과 그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국제적협조를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5~6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현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특히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완전승리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근본적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한 나라안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가 완전히 보장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사회주의나라내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이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촉진되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더욱 앞당겨지며 또한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더욱 유리한 정세하에서 이루어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여주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력사적사명을 실현해나가는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우선 중요한 것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에 대처하여 자기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체의 정치경제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 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매개 나라들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내부에서의 적대계급의 반항과 외부로부터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다. 또한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 때에라야만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훌륭히 지원할수 있으며 국제적인 원조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해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체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호상관계 그리고 현시기 국제무대에 조성된 력량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굳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지원을 받으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

혁명운동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혁명의 전반적흐름속에서 진행되고있는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이 반드시 세계혁명의 다른 부대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은 한 나라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여도 상당한 고통스러운 진통의 시기를 겪게 된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따라서 개별적나라들 내부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였어도 외부로부터의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하기 위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 강력한 유대를 이루어놓을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혁명의 승리를 굳게 보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는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의 다른 부대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력사적과정에서 이룩된 국제로동계급의 훌륭한 전통인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욱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게 되며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지원을 받으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해야 하는것은 또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렬히 벌어지고있는 현시대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를 특징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온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시대의 본질적특징을 가장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혁명의 시대이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가 망하여가는 시대이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은 계속 장성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세력들은 날로 쇠퇴되고 멸망의 내리막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실로 오늘 세계혁명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고있으며 세계혁명력량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력량이 장성하고 확대되는것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력량의 장성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력량을 파괴하기 위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을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혁명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며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만 주장하면서 혁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9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책동으로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며 하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꾀하고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투쟁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으며 세계혁명력량의 전진운동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 인하여 국제무대에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로동계급 및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혁명력량이 굳게 단결되여있을 때 사회주의나라들을 질식시키며 국제혁명력량을 분렬하여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악랄한 음모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세계혁명운동은 계속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현시대의 세계혁명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며 그것은 국제혁명운동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는 세계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교시는 현시기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사회주의진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진영은 인류력사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진영이 확대발전강화되는 과정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는 과정으로 되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이 승리하여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여 굳게 단결되면 될수록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위력은 더욱 강화되며 제국주의에 비한 사회주의력량의 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은 세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들이 사회주의진영의 존재자체를 무엇보다 무서워하면서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과 그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여 굳게 단합됨으로써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을 튼튼히 보위하며 혁명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의 강화는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진영은 현시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직 사회주의진영의 확고부동한 통일과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 고무할수 있다.

세계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에 고무되여 식민지 및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가일층 촉진되면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유리한 정세하에서 진행되게 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담보는 더 빨리 마련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진영내부에 조성된 구체적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을 명백하게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매개 나라들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과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현시기 사회주의진영내부에 조성된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다

운 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듦으로써 세계혁명의 기지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도 앞당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그 위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반제민족해방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이다.

오늘 세계혁명의 2대력량의 하나로 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위대한 력사적기여를 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면 제국주의의 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더욱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세력범위는 현저히 축소되게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민족해방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인민들의 해방투쟁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을 일반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나라들이 혁명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교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혁명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명으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 그 경험과 성과를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달성하고있는 성과와 경험들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으며 신심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국제로동계급이 쟁취한 전취물인 사회주의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그들의 혁명적인 미래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와 모범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과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경제군사적지원은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해주며 그들을 반제민족해방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킨다.

특히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철저한 반제적립장과 혁명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번영을 도모할수 있도록 그들의 혁명투쟁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될것이며 세계혁명력량은 더욱 강화되게 될것이다.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지원은 결코 일방적인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들의 지원을 받고있는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운동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지원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세계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진영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거할때 혁명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민족해방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이다.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부로부터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진지를 더욱 약화시킨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제국주의의 쇠퇴와 멸망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방도들은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국제주의적련대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세계혁명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현력사적조건에서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국제주의적련대성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담보를 마련하며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방도들은 국제혁명력량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고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계속 커다란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것이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환경속에서 얼마전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국가재산을 애호하며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물질적기초인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귀중한 전취물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국가적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 한편, 사회주의제도의 물질적기초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국가의 귀중한 재부인 설비와 자재,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엄격한 절약제도,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결정적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하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재산을 애호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매단계, 매시기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간곡히 교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방침과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위대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공산주의적원칙에 부합되게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재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리용할수 있는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하여주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내놓으심으로써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했던 사회주의경제리론의 근본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사회주의경제와 국가재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명확한

리론실천적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산관리리용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것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통제를 옳게 배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금번 전원회의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독창적이고도 현명한 방침들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정확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국가재산관리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원회의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에서 더욱 큰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전후 10여년동안 방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9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선진적사회주의농업을 가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이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보장하는 물질적기초로 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미 창설하여놓은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고 잘 애호관리하며 그것을 극력 절약하여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위력한 경제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선결문제로 된다.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오늘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원쑤들이 언제 덤벼들어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며 다른편으로는 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국가재산관리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그것을 튼튼히 보위하며 사소한 랑비현상도 철저히 없애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극력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에서 국가재산애호절약투쟁을 강화하는 문제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금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기간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들과 함께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이미 마련된 나라의 경제적밑천을 더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전원회의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며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모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경제절약을 더 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공산주의적관리체계이다. 경험은 이 사업체계가 도입된 모든곳에서는 례외없이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이 높아지고 막대한 예비와 가능성이 동원되며 규률과 질서가 째이고 랑비현상이 근절되며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실천에 의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의 모든 요구들을 관철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국가의 귀중한 재부를 가장 잘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해나갈수 있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 제시된 모든 과업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와 특히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와 재산 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실현하고 특히 원에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계획규률과 재정규률을 확립하며 물자재정랑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더 잘 진행할수 있게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독창적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사상혁명과 통제를 강화하는 두전선에서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무엇보다 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은 국가재산관리와 그 리용을 개선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것은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에서는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옳고 그른것을 갈라내며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등 온갖 비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침해랑비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과 국가와 인민으로부터 귀중한 국가사회재산의 관리를 위임받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실지 투쟁에서, 인민을 위한 실지 사업에서 나타나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옳게 자각하고 당정책학습을 잘하면서 경영학학습을 더욱 강화하며 철저한 당적립장, 국가적립장에서 경제관리와 재산관리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 모든 사람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중히 다루도록 교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대로 자기가 해놓은 일이 전체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다 자기에게 한몫 차례진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공동로동과 국가사회재산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자각성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물질적부가 증대된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배양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도 오래동안 낡은 사상잔재 특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틈만 있으면 되살아나서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인 국가사회재산을 침해하는 해독적작용을 논다. 따라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것은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모든 부문에서는 강연, 학습, 독보, 토론, 개별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며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회의, 비판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학습과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고는 낡은 사상잔재를 깨끗이 청산해버릴수 없다. 누구든지 낡은 사상잔재를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한 투쟁전선에서 면제되면 결국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 국가와 사회에 해독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과 혁명적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의식적으로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가 자각적으로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껴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통제를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사업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개인주의사상요소들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으며 계급사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래동안 계승되여 내려온것으로서 하루이틀사이에 그리고 몇번의 교양사업으로 쉽게 뿌리뽑을수는 없는것입니다.

꾸준한 교양사업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강한 규률과 엄격한 질서를 세워 조그마한 자본주의요소, 수정주의요소가 머리를 쳐들수 있는 틈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제를 옳게 배합

하는것은 파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것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낡은 사상잔재가 사회주의건설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계산통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낡은 사상잔재가 발로될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원래 온 사회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회인것만큼 여기에는 매개 사회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동행동준칙이 모든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정되여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는 전사회적으로 유일적인 계산과 통계가 면밀히 조직되고 진행되여야 한다. 이러한것들이 없이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여나갈수 없으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해나갈수 없다. 모든 부문에서 제도와 질서, 계산과 통계를 강화하여야만 낡은 사상잔재가 발로되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하고 제한할수 있으며 또한 국가적, 법적 통제를 더 잘할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부문에서는 물자의 취급규정과 등록실사규정 등을 비롯한 국가재산관리리용의 제반 규정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대중속에 그것을 잘 해석침투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그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량계측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 잘 갖추고 생산과 분배, 소비의 전 행정에 대한 계산과 통계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계획규률과 재정규률을 튼튼히 확립하고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 및 법적 통제기관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계급적날을 더욱 예리하게 세워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의 침해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정형과 국가의 법질서의 준수정형을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높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 모든 물자와 자원이 계획적으로 리용되고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모든 사람들이 계획에 의하여 일한다. 그러므로 계획화사업을 떠나서는 경제관리와 국가재산관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는 전진하면 할수록 부문간, 기업소들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하여지며 전문화와 협동화가 더욱더 발전한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협동생산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계획화사업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문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중앙집권화된 통일적인 계획경제이다. 여기에서는 전체 인민경제적으로 모든 부문, 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공장, 기업소들은 마치 인체의 구성부분과 같이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은 전인민경제의 부문별 직장과 같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화사업이 철저히 일원화, 세부화되여야 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협동생산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그 어

떤 사소한 문제도 계획화사업에서 빠뜨러서는 안되며 또한 국가의 법으로 결정된 계획지표를 그 누구도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만일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계획에 예견하지 않거나 또한 협동생산품을 비롯한 모든 지표들은 계획에 예견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련관된 다른 고리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경제발전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릴것을 요구하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실현하여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나라의 모든 재부와 생산적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의 주관주의를 극복할뿐아니라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잘 배합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다.

계획화사업에서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의 주관주의를 없애야만 계획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것으로 세울수 있으며 또한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야만 계획을 동원적인것으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계획화사업에서 낡은 틀을 대담하게 미스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계획화방법론을 더욱 완성하며 계획을 더욱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것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대책을 옳게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국가에서 하달한 통제수자와 국가계획의 법적성격을 똑똑히 인식하고 계획을 일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먼저 생산보장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움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의 정상화와 전반적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량적지표와 함께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의 리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늘이고 세분하며 모든 질적지표들을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정하는것과 함께 당의 방침대로 가격제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계산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 및 재산 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고 자재를 자재공급기관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은 원료, 자재의 리용에서 온갖 무규률성과 랑비현상을 근절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덮어놓고 자재를 많이 요구하려는 그릇된 사상관점을 없애며 자재공급기관들에서는 자재를 세부적으로 맞물리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용도별로 어김없이 내려다주는 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물자소비기준을 똑똑히 제정하는것이다.

물자소비기준은 자재공급계획의 기초이며 물자소비의 척도이다. 물자소비기준이 옳게 되여야 물자를 정확하게 보장할수 있으며 물자를 랑비하거나 사장시키는 현상을 없앨수 있다. 실로 물자소비기준은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기본통제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과 함께 기술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선진적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

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자재상사들은 자기 부문내 기업소들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해당 부문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자재를 받아 아래에, 생산현장에까지 날라다주며 생산수단의 류통분야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자재상사들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힘을 넣을수 있는 온갖 조건을 지어주며 공급된 자재의 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재의 가장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사업은 오직 각급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이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분야에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당의 유일한 령도밑에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2페지)

경제 및 재산 관리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모두가 다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일하게 하는것이다.

각급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모든 일군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엄격히 서서 경제관리와 재산관리를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며 그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작풍을 근절하고 자기 사업에서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당조직들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면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산을 자기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옹호하며 국가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국가재산을 침해하거나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겨나갈것이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애호와 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함께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미제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수산업을 보다 높은 물질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전원회의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957년 4월전원회의와 1959년 6월 강원도수산부문 당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비롯하여 수산부문앞에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첫날부터 수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마다 수산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동서해의 수많은 수산기지들과 포구들을 찾으시여 이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어로공들의 로동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수산업은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밑에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기술개건이 이루어지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배려밑에 우리는 현대적가공모선들을 가진 강력한 원해어선대를 꾸려놓음으로써 세계어장에 당당히 진출할수 있게 되였으며 동서해의 많은 곳에 최신가공설비를 갖춘 수산기지들이 꾸려지고 조선공업의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또한 우리의 어로일군대렬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진취성이 강하고 혈기왕성한 청장년들과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로 더욱 믿음직하게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수산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나라 수산업은 짧은 기간에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성을 가시고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금번 전원회의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물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바다속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생활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3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산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의식주문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물질문화생활은 부단히 향상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수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민경제의 부문구조는 더욱 완비되고 수산부문과 다른 부문들간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인민생활이 향상되고 나라의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풍부한 수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함으로써만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특히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필요한 단백질문제를 푸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수산업은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욱 유족하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특히 가금업의 발전은 수산업발전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우리 나라 곳곳에는 닭알목장과 닭고기공장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단백질먹이와 광물질먹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업을 옳게 병행시켜나가야만 많은 물고기가루를 생산하여 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수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것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전원회의에서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수산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현대화하며 물고기생산으로부터 운반,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공업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현대화,공업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장래전망,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우리는 수산업을 현대화, 공업화함으로써만 사나운 자연을 정복하고 수산업의 전반적공정을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어로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해양조건의 제약성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릴수 있다. 또한 수산업을 현대화, 공업화하여야만 우리 나라 수산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수산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킬수 있으며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여 그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수산업을 현대화, 공업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들여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원해어업과 근해및 연해 어업을 옳게 배합하여 힘있게 벌리며 가공사업에 선진방법을 받아들여 그를 물고기생산에 확고히 따라세우며 수산과학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을 현대화, 공업화할데 대한 방침은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있는 배들을 완전히 기계화하고 새로 많은 큰 고기배들을 만들어 근해어업은 물론, 원해어업도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것입니다. 고기배들에 통신기자재와 어군탐지기, 현대적어구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과학적기초우에서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18페지)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수산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만 해양조건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고기잡이를 현대화하여 그 생산을 높일수 있으며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연안세소어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배를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어로공들이 륙지에서와 꼭같이 안전하게 일하며 해양상태에 따라 어떤 어족이든지 잡을수 있게 함으로써 물고기잡이에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배를 크게 하고 만능선으로 만들어야 어떤 풍파속에서도 어로공들이 마음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수 있으며 그들의 로동안전과 생활 및 휴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업을 사회주의의 토대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놓을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배를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배건조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우리 나라 바다와 린접해역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배를 크고 안전하게 할뿐만아니라 다양한 선진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가공할수 있도록 가공설비와 어로설비 등 현대적기술장비들과 생활시설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원해어업과 근해어업에 필요한 큰 고기잡이배들과 가공모선, 세소어업에 쓸 기관선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예망선, 건착선, 안강망선들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범선을 동력화하는 사업을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선박건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조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배의 기관과 의장품 등 필요한 설비의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빠른 기간에 많은 배를 질적으로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배를 많이 만드는것과 함께 있는 배들을 잘 관리하며 제때에 수리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예비기관과 예비부속품 생산을 확고히 앞세워 배수리를 제정된 기일안에 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어항건설을 배건조에 따라세우며 특히 물고기를 부리는 설비와 운반설비를 강화하여 배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이는것이 중요하다.

어구를 현대화하며 그를 넉넉히 생산공급하는것은 어업건당 생산을 높이며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요고리로 된다. 어구를 다양하게 만들며 화학화, 경량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생산성과 경제적효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원해와 근해, 연해에서 사철 다양한 방법으로 쉴새없이 물고기를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계련식으로 가공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세소어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우선 원해어업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원해어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가까운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면서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이다. 우리는 먼바다에 나가야만 새로운 어장을 적극 개발할수 있으며 알쭌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수 있다.

먼바다의 수산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원해어업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원해어선대의 규모를 늘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어장조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고 새 어장을 부단히 개척하여 어로활동구역을 넓히며 먼바다에서 물고기잡이를 년중 계속하여야 한다. 탐색선들을 늘여 원해어장에 대한 자원탐색사업을 앞세우고 가공모선, 작업선, 운반선들의 리용률을 높여 먼바다의 회유성물고기와 깊은 바다의 정착성물고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할것이다.

원해어업과 함께 근해어업과 연안세소어업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해어업과 함께 세소어업을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원해어업만 해가지고는 안되며 가까운 바다에서 호망도 하고 낚시질도 하며 이밖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한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1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해와 연해를 비워놓고 원해어업만 해가지고는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일수 없다. 우리는 근해어업과 세소어업을 널리 조직하여 철을 따라 밀려드는 물고기들과 정착성어족들을 잡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근해어업부문에 가공모선들을 만들어주어 그를 중심으로 선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추어전을 벌리며 고기잡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심어장에 생산성이 높은 어구를 집중시키면서 분산회유하는 물고기들도 다 잡을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근해어업과 함께 연안세소어업발전에 더욱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세소어업을 널리 발전시켜야만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있는 설비와 자재, 있는 로력으로 지대적특성에 맞게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물고기에 대한 장성하는 다양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세소어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선 일군들속에서 세소어업을 홀시하고 대형어업과 계절적어로대상에만 기대를 거는 낡은 관점과 투기성을 없애고 수산협동조합들을 더 널리 조직함으로써 이 부문 대렬을 빨리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능한 로력원천을 탐구동원하여 수산협동조합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들의 수산작업반, 수산부업반을 광범히 조직하며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주어야 한다.

해양어업과 함께 양식양어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천해양식과 담수양어는 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다양한 수산물의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예비이다.

천해양식부문에서는 전문양식사업소뿐만아니라 수산협동조합과 바다를 낀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에서 양식적지와 양식대상을 옳게 선정하고 양식방법을 완성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등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양어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도처에는 민물고기를 기를수 있는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들이 많으며 자연개조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그것들은 여러곳에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이런 자연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모든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들에서 민물고기를 대대적으로 기른다면 이 부문에서만도 수많은 물고기를 더 잡을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마다 새끼고기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물있는 모든곳에서 민물

고기를 기르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이 부문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선진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수산부문에서 자원보호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연어정착성어족들과 민물고기 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수산물생산을 파동성없이 부단히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자원보호사업에 대한 옳은 인식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도록 사회적인 대중교양사업과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두다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끼고기와 조개를 마구 잡거나 바다풀을 뜯어내며 강하천과 바다에 유독성물질을 되는대로 흘려보내여 수산자원을 말리는 등의 현상이 없도록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들에 풍만한 수산자원이 끊임없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또한 우리 수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산사업소도 많고 수산협동조합도 많은 조건에서 물고기가공대책을 바로세우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물고기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힘들여 잡은 물고기를 허실없이 인민들에게 공급하며 그들의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물고기가공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물고기가공에서 뒤떨어진 방법을 버리고 랭동, 통졸임 등 현대적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조리 가공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9～560페지)

물고기가공에서 기본은 랭동을 많이 하면서 이에 절임품과 통졸임 생산을 적극 배합하며 물고기가루와 영양제 생산을 늘이고 가공작업을 기계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며 원료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얼군 물고기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 배마다 랭동기를 설치하여 해상랭동을 강화하고 랭동차들도 더 많이 만들어 어장으로부터 운반 및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랭동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랭동공장을 차려놓고 랭동저장설비를 현대화하여 얼군 물고기를 넉넉히 확보해두고 년중 정상적으로 가공작업을 할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랭동품과 통졸임 생산을 늘이며 특히 우리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새우젓, 조개젓, 명란젓 등 젓갈품도 더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물고기가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가공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위생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고기생산에서 완전히 가공된것만을 생산물로 계산하는 원칙과 제도를 세우고 생산계획부터 가공품을 기준하여 세우게 함으로써 가공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요한것은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의 기술적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업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술일군들을 많이 길러내며 수산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35～436페지)

수산과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수산업을 현대화, 공업화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넓은 바다를 회유변동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수산업은 현대과학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고기배들이 과학적인 지휘밑에 현대적 기술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야만 높고 안전한 어획고를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현대수산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기본을 두면서 여기에 좋은 경험을 배합해나가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보수주의, 소극성, 경험주의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면서 우리 나라 수산업의 어획리론을 확고히 세우고 물고기잡이를 공업적방법으로 하도록 하는것이다.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해양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리론적기초를 튼튼히 쌓음으로써 우리 나라 바다와 린접해역의 어장조건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공학, 무선공학 등 최신과학의 성과를 배와 어구의 운영공정에 적극 받아들이며 물고기가공과 양식양어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수산과학을 발전시키며 이 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수산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의 기술인재양성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수산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대형선박과 현대적기술기재를 능숙히 다룰수 있는 기술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그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무엇보다 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수산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들을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두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어떤 시련속에서도 계급적원칙과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

수산부문 당사상교양사업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어로공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어로공들이 방송도 듣고 신문, 잡지들도 제때에 볼수 있도록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당의 정책적요구와 나라의 정치정세를 정확히 알고 물고기잡이에서 더욱 높은 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또한 어로공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체계를 똑바로 세우며 모든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과 어로공들의 생산활동이 바다에서 선박단위로 진행되는 실정에서 당사업, 정치사업을 바다에서 진행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지도일군들은 바다에 나가 어로공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직접 도와주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로공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과 함께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누구나 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정복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과 교육문화기관들이 근로자들속에서 바다에 대한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사랑하고 동경하도록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어로공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은 어로공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그들의 창조

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으로서 그를 개선강화하는것은 이 부문 지도일군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먼바다에 나가 몇달씩 일하다 돌아온 어로공들이 충분히 쉬고나갈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택도 좋은것으로 보장해주고 식량과 과실, 남새, 육류, 로동보호물자 등을 잘 공급하도록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가 어로공들에게 지체없이 가닿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붉은 어로전사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배들이 기동성있게 어로전을 벌리며 가동률을 높여 300일출어를 보장할수 있도록 자재를 직접 기업소와 직장, 선박에까지 현물로 날라다주는 체계를 확립하며 2~3중의 어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어구를 앞당겨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경제기관들은 수산부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도와주며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상로력을 높이고 1인당물고기생산을 높이며 배와 어구를 기술갱신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도,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문제도 결국은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이 부문 지도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그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로력관리질서를 세우고 로력조직을 잘하여 해상로력의 비중을 높이며 어로공들의 자각적열의와 지혜를 물고기잡이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동시에 선대지휘로부터 어로공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워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어로공들이 원쑤들의 준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그들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역할을 높이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시켜 천리마작업반, 2중천리마작업반, 천리마 선박과 선단, 공장들의 대렬을 더욱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어로공들 속에서 낡은 생활양식과 관습을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며 물고기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수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육친적인 배려와 사랑 속에서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당의 붉은 어로전사들이며 영예로운 바다의 정복자들이다.

모두다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인민교육의 빛나는 전통

리 복 권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혁명활동의 전과정에서 항상 후대교육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에 깊은 관심과 육친적인 배려를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37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후대교육문제를 언제나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의 장래문제와 밀접히 결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착취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훌륭한 혁명투사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인민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이 빛나는 교육전통을 더욱 철저히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의 참된 전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그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장기성을 띤 간고한 투쟁이다.

때문에 우리가 다하지 못한 혁명을 저 아이들이 하고 또 저 아이들 대에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 대에까지라도 대대로 이어가며 기어이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오늘 우리자신이 혁명을 위하여 잘 싸울뿐만아니라 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여야 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혁명은 장기성을 띤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위대하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자신이 혁명에 충실할뿐만아니라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유격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15성상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후대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이다. 당시 편협한 민족

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후대교육사업을 하나의 부담으로 여기면서 외면하였으며 지어는 방해해나서기까지 하였다.

이 어려운 문제는 오직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였고 특히 부친 김형직선생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이어받으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먼장래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대육성사업에 대하여 심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전과 무송,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조직전개하시던 당시에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새날소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각종 혁명조직들을 내오시고 그에 선진적인 청소년학생들을 망라하여 그들을 반일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후 혁명활동의 중심을 카륜과 고유수 일대에 옮기시고 학교를 세우시여 혁명투쟁의 핵심적골간들을 키우시기 위한 후대교육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진명학교와 삼광학교를 세우시고 친히 집필하신 교재를 가지고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게 무료교육을 시키시였다.

한편 근로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에 대해서는 야학을 통하여 우리 글과 력사, 산수 등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과 자본주의는 필연코 멸망하며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한 혁명적인 사상교양사업을 전개하시였다. 그후 오가자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그곳에서 첫사업으로 삼성학교를 장악하시고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시였으며 높은 학년의 학생들에게는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회진화론》, 《종교비판론》, 《공산당선언》, 《레닌주의 제문제》 등 정치과목들과 혁명활동에 필요한 군사지식들도 가르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초기지하혁명활동시기에 여러곳에 학교를 세우시는 한편 혁명조직들을 만드시여 청소년들을 혁명의 핵심적골간으로 손수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뿐만아니라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문화계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낡은 교육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새로운 인민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키우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무장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후대교육사업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에 학교들을 세우시고 온갖 낡은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누구나 다 무료로 배울수 있는 새로운 인민적교육제도를 창설하시였다.

이리하여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혁명근거지의 각 촌마다에는 학교가 생기고 혁명가들의 유자녀들과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의 청소년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시기 위하여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후대교육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완전유격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학교를 마련하여주시고 적들의 《토벌》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간고한 시기에도 몸소 후대들을 위하여 교재를 쓰시였으며 유격대와 공청조직에서 우수한 동지들을 선발하여 교원으로 파견하시고 그들에게 강습을 주시며 자

질을 높여주시는 등 후대교육교양사업에 세심한 배려를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엄동설한에도 자신은 작은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아동들에게는 밝고 제일 큰 집을 마련해주시였고 두툼한 솜옷과 이불, 털모자까지 차례지도록 하시였으며 항상 더운 방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가 탕수천자부근전투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소탕하였을 때에도 로획한 사과를 근거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시여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조선의 사과를 맛보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사과라도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조선사과와 그것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은 근거지내의 어린이들은 수령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목이 메여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호두회의이후 산과 골짜기 마다에 쌓인 깊은 눈길을 헤치시며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기 위하여 국경지대에로 나오시던 길에 마안산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먼저 그곳 아동단원들부터 찾으시였다. 당시 마안산에는 몽매하고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구박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생기를 잃은 수십명의 아동단원들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신 그이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였다. 이들의 생활을 걱정하시여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무장대오결성을 위하여 집을 떠나실 때 강반석어머님께서 혁명사업에 긴요하게 쓰시라고 주신 돈으로 그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시고 그들을 혁명의 불길속에서 참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바다보다 넓고 태산보다 높은 어버이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아동단원들은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일편단심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청춘도 다바쳐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후대교육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다.

* *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교육사상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시여 주체적인 후대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육사업에서 시종일관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교육교양사업은 응당 우리의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수행에 실제적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27페지)

후대교육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그 발전에 대하여 생각조차할수 없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교육사업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

체사상에 확고히 의거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철저히 복무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후대교육사업은 청소년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사명으로 여기였다.

이와 함께 일제와 계급적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비타협적투쟁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 등으로 청소년들을 교양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교육사업의 일관한 원칙으로 삼았다.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철저히 복무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교육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강령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강령이다.

이 강령은 일제침략자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온갖 민족적천대를 받으며 신음하여오던 우리 인민에게 배움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휘황한 홰불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인민교육문제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혁명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인민혁명정부강령에 구현하시여 일제 낡은 교육제도를 철저히 철폐한 기초우에서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배울수 있는 아동단학교와 성인학교(야학)를 세우시고 인민교육제도를 수립하시였다. 인민교육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놈들에게 부모까지 잃은 유자녀들과 근거지내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길이 열리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교육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체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교육사업은 청소년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일제와 계급적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일관되였다.

아동단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석방침을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나갔다.

혁명근거지내의 청소년들은 교수교양과 과외활동을 통하여 《김일성장군의 어린시절 이야기》, 《김일성장군의 령활한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김일성장군께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배려》 등의 내용으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혁명성, 탁월한 전략전술, 높은 덕성, 강의한 의지와 원칙성 등을 배우면서 일편단심 수령께 충실할것을 맹세다지군 하였다.

우리는 《뜨거운 어버이사랑》, 《참된 아동단원 진기옥소년》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그이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께 충성을 다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슴 뜨거이 찾아보게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 밑에서 그이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혁명근거지내의 청소년들은 오직 수령의 혁명전사로 된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언제나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게 계급교양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천진란만한 그들에게 계급적의식이 옳게 침투되면 청장년보다도 못하지 않게 곤난한 혁명적과업들을 완수할수 있다.…그들을 옳게 조직하여 혁명적교양을 정상적으로 준다면 장래 훌륭한 혁명가로 육성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혁명근거지내의 아동단학교들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제국주의는 왜 나쁜가?》,《지주와 자본가는 우리를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등 제목의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짓밟고 우리 인민에게 모든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일제와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등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그들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였으나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교육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이 살기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였다.

혁명근거지에 세워진 학교들에서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나라의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조선의 지리를 배워주어 자기 나라를 더 잘알게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교양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게 하였으며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짓밟고있는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이땅에서 몰아내고 조국강산에 인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새사회를 건설할 절절한 념원을 간직하게 되였으며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났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교육사업에서는 또한 혁명적락관주의교양과 집단주의교양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실망과 비관이 없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실망과 우울을 모르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승리의 신심드높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생활하도록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손수 혁명가요를 지으시고 각본을 만드시며 연예공연과 오락회도 친히 조직해주시였다.

아동단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어버이 사랑과 배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직생활에 충실하며 오직 혁명이 승리할 앞날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항상 씩씩하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지조를 지켜싸우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교양을 위주로 하고 일반교육을 이에 밀접히 결부시키며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독창적인 교육전통을 창조하시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은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실천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교육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아갈 자라나는 후대들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산지식과 리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배운지식을 실천활동에 구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수교양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일반지식을 넓혀주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높여주는 동시에 실천

활동을 이에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심으로써 배운지식과 리론을 더욱 공고히하게 하시였다.

혁명근거지의 아동단학교들에서는 오전에는 과정안에 따라 학습하고 오후에는 농사일손을 돕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며 병기창에 가서 무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협조하는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것은 당시 생활의 요구이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배운지식을 더욱 공고히하고 어릴적부터 로동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적품성을 배양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소유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후대교육에서 일반교육과 군사교육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조건에서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소년들을 필요한 군사지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당시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교육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의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근거지를 요새화할데 대한 군사로선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무기사용법, 보초근무, 신호련락 등 필요한 군사지식을 습득시키는 동시에 적정정찰, 통신련락, 반간첩투쟁 등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키도록 지도하시였다. 이와 같은 군사교육과 실천적인 군사적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유능한 유격대원으로, 혁명가로 빨리 자라날수 있었다.

혁명근거지내 학교들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교육리론과 방침에 따라 종래의 부르죠아 교육《리론》을 타파하고 배운지식을 곧 혁명의 실천투쟁에 옮길줄 아는 산지식으로 청소년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아갈 혁명의 후비대들을 리론과 실천이 겸비된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들로 길러낼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단계와 각이한 환경에 따라 그에 적응한 방법으로 혁명의 후비대들을 혁명가로 길러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두만강연안의 완전유격구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였다면 완전유격구를 해산하신 이후시기에는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보다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교육형태를 창조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들을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길러낼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이들은 혁명의 폭풍우속을 뚫고나가야 할 아이들이며 우리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발을 벗을새도 없이 불길속을 헤치고나가야 할 미래의 조선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혁명가의 가장 훌륭한 학교인 혁명투쟁속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길러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혁명가들을 양성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로 여기시고 친히 소년중대를 조직하시여 그들을 한품에 안아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혁명의 골간으로 키워나가시였다.

이것은 당시에 조성된 무장투쟁의 구체적환경에서 교육설비나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청소년들을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함으로써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소년들을 근거지와 적통치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반일부대에까지 들어가 사회정치활동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혁명화하며 정치활동가로 육성하는 방침도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아동단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혁명근거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강도 일제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우리 혁명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생동하게 해설선전하였으며 유희대공연, 웅변대회 등을 비롯한 각이한 방법으로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의 형식과 방법 문제도 해당 시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밑에서 운영된 아동단학교들에서는 계통적이며 체계적인 강의와 함께 학생들이 배운 문제를 원만히 리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방법, 토론과 론쟁의 방법, 문답식방법, 과외시간에 진행한 각종 형식의 군사놀이, 독서발표모임, 옛이야기모임, 체육회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년령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독창적으로 후대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후대교육사업은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그 어느 하나도 혁명위업과 동떨어진것이 없었으며 모든것이 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배움의 길에서 완전히 제외되였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재질을 꽃피워나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교양육성된 그들은 언제 어데서나 수령의 위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그이를 목숨으로 옹호하며 보위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인민교육전통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며 오늘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인민교육의 귀중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인민교육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일제식민지노예교육제도가 철저히 청산되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인민교육제도가 수립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100여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9,260여개의 각급학교들이 있으며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수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무료로 과학과 기술을 배우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가장 선진적인 인민교육제도, 찬란히 꽃피고있는 인민교육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조국의 먼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과 탁월한 교육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교육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심오히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또한 후대교육사업에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을 돌려 각종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을 원만히 해결하여주며 교육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처럼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유 관 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특히 올해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와 평안남도당대표회에서 주신 교시들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혁명적인 원칙과 구체적방도들에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체적령도기관인 군당위원회가 군사업의 참모부로서 군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은 농촌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며 지도하는 말단단위인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이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가 군내의 정치, 경제,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 등 농촌사업과 직접 관련되여 있는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촌사업과 관련되여 있는 행정경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농민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전국의 사회주의농촌들과 함께 숙천군에서도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설되였으며 군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군당위원회의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확고히 선행되고 기술, 문화 혁명이 적극 추진된 결과 군내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군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됨으로써 농민들의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자각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해나갈 친위대, 결사대로, 그이의 충직한 농업전사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시킬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기술혁명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군내 모든 협동농장들이 현대적농기계와 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 농업생산이 확고한 과

한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전국의 협동전야가 그러하듯이 숙천군도 해마다 만고대풍을 이루는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지난해에는 백년래에 처음보는 왕가물이 계속되는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1만 6천정보의 논에서 정보마다 평균 5톤 800키로그람의 소출을 내여 그 전해에 비하여 정보마다 1.5톤씩 더 내였고 군적인 알곡생산량을 11만톤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방전 1944년에 비해서는 무려 8배, 1961년에 비해서는 2배에 달하게 하였으며 고기, 과실, 남새 생산을 비롯한 이여의 농업생산도 현저히 장성시켰다. 그리하여 군적인 호당 알곡분배량은 1967년의 4.1톤으로부터 지난해에는 5톤 810키로그람으로 늘어났으며 현금수입도 매우 높아졌다.

숙천군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과 위대한 성과들은 전적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30여차례에 걸쳐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숙천땅에 오시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위대한 변혁을 가져오게 한 농업협동화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창설의 모범을 보여주시였고 열두삼천리벌한복판 창동땅에 도시부럽지 않은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전형도 창조해주시였다.

이렇듯 그이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숙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숙천군이 농촌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에서와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선구자가 되라고 교시하시였으며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숙천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와 숙천군내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는 실로 그이의 직접적지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떠나서는 있을수도, 생각할수도 없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알곡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건설, 농촌문화 사업 등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와 다른 군내 행정경제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위원회는 경제문화사업을 직접 집행하는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우와 같은 책, 68～6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당위원회들의 키잡이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촌사업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행정경제기관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농촌에서의 경제문화사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촌사업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행정경제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 기관들이 모든 사업에서 선후차를 정확히 가려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도록 방향적지도와 방법적지도를 옳게 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내 농촌사업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행정경제기관일군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그이의 모든 로작들과 교시들을 깊이있게 연구체득시키며 특히 그이의 현지교시로 철저히 무장시키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학습을 집중학습 혹은 토론의 방법으로 군내 실정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내 당

조직들은 일군들에게 개별적 혹은 집체적 분공을 줄 때에는 언제든지 학습과제를 첫자리에 놓았으며 분공실행에 대한 총화에서도 학습진행정형을 먼저 분석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서 키잡이역할을 강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농촌사업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군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전원회의와 집행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의 집행방향과 방도를 제때에 정확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데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는 그 일례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업적지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이다. 농촌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가며 생산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짐에 따라 농업생산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졌으며 공업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가 보장됨이 없이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라고 하신 현지교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농업부문 지도일군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광범한 농민들속에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참뜻을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는 한편 군내 자연경제적조건에 따르는 과학적영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광범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군당위원회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하여 우선 군내 자연경제적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을 진행할것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의 구체적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군내 수많은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민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짧은 기간내에 최근 40여년간의 기후 및 계절학적 자료 등을 조사장악하고 여섯개의 농업기후구와 71개의 농업소기후구를 구분하였으며 땅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을 심화시킨 기초우에서 6만개의 크고작은 필지를 2만 10개의 포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매 협동농장마다 각종 설비를 구비한 실험실과 농업기상관측설비들을 갖추어 여러가지 시험과 농업에 대한 기상관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숙천군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찾아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최근 7년동안에 숙천군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논벼의 새 품종을 비롯한 강냉이, 콩 등 모든 곡종의 다수확품종을 선택하고 그 전량을 자체로 확보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였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훌륭히 마련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러한 과학기술적자료와 물질적토대에 기초하여 지대별 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도록 년간사업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경영활동을 계획화, 조직화하여 농업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기업관리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 대한 군내 공업과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매 영농시기마다 중요한 전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농업생산의 전반적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사업방향을 제시함과 함께 이 기관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밑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배워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당위원회는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닭알을 비롯한 여러가지 축산물생산을 높일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을 파견하여 농민들속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많이 먹이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심려하시는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철저히 해설침투시키며 농민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도록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홍오리를 비롯하여 여러 리들에서 지도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먹이풀밭을 탐구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종자돼지를 마련하는 일, 축사를 짓는 일 등을 적극 추진시켜 작업반당 2~3톤, 특히 홍오리 천리마제4작업반에서는 공동축산에서 10톤까지 낼수 있는 튼튼한 축산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농민들속에서 과학기술수준과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농촌에서의 위생문화사업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 등 군내 농업부문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지도검열과 총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기관들의 전반적사업수준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리도록 하는데 심중한 당적주목을 돌렸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는 중요한 고리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지도수준을 제고하고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잘하자면 키를 잡는 일군들자신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당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가리켜줄수 있습니다. 경제일군들보다 방향도 더 잘 알고 방법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정책을 적극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당일군들이 그의 심오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법을 찾아낼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가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적지도가 기업적방법으로 확고히 전환된 오늘의 현실은 당일군들자신이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어렵고 복잡한 농촌일들을 당정책적견지에서 옳게 지도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당일군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이 모든 사업에서 혁명가적기풍을 확립하도록 일상적인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이에 있어서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진행한것은 경험적이였다. 실례로 기온리에 나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지도원들을 데리고나가 당정책을 깊이있게 가르쳐주면서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당회의를 지도하는 방법, 담화를

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어 그들의 지도수준을 높여주었다. 이와 함께 군내 기술자들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경제기술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실천적경험은 군당위원회가 모든 지도일군들을 수령의 교시,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현실에 부단히 침투하여 군중들의 내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며 군내 자연경제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파악한 토대우에서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할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앞에 제기되는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잘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업의 수준을 일층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둘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9페지)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당세포들과 리당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농촌초급간부대렬을 혁명가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예군인 및 로동자, 농민 등 우리 당의 기본핵심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수준을 급속히 높여주는데 위원회적인 관심을 돌림으로써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원만히 발휘하며 농촌간부들이 계급적원칙에 확고히 서서 자기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농촌의 간부대렬을 꾸림에 있어서 숙천군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의 하나는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받은 단위들에 그 교시를 직접 받은 일군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리의 과반수가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직접 받은 조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한 일군들로 하여금 더없는 영예감을 간직하고 수령께서 주신 교시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농촌의 초급간부들과 협동농민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나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여 실생활에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촌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농민군중속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한결같이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였다. 농촌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교훈적인것은 군당위원회가 농촌초급간부들과 핵심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일차적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모를 박아 지도함으로써 전반적당원들의 당생활수준을 그 높이에로 끌어올리도록 한것이였다. 이러한 조치는 농촌당원들의 전반적당생활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의 선봉적역할과 전체 협동농장원들의 정치적열의를 비상히 제고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다 움직이고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모두다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자각적으로 일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의 직접적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를 지침으로 군내 농민들의 사상생활을 전반적으로 료해분석하고 그들

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교양대책을 심중히 토의강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군내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농민들의 사상의식은 미처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생활의 이모저모에서는 의연히 낡은 사상잔재가 발로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당위원회는 변천된 사회주의 농촌의 객관적현실에 맞게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근기있게 조직지도하였다.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문제로 되며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기본고리이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전국농업일군대회들에서 하신 교시, 그리고 매시기 농촌경리부문에 주신 수령의 교시들과 그이의 현지교시들을 깊이있게 해설침투시켜 모든 사람들이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도록 사상사업을 계획적으로 인내성있게 조직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수령의 교시를 더잘 관철하기 위하여 수령의 현지교시들을 부문별로 나누어 일군들속에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과 함께 책임일군들이 군내 지구별로 내려가 강연, 강습 등을 통하여 초급일군들에게 철저히 침투시키며 초급일군들이 또한 광범한 농민군중속에 들어가 집체적 혹은 개별적으로 대상의 실정에 맞게 가르쳐주도록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군내 당조직들과 매개 단위들에서는 또한 숙천군에 주신 수령의 현지교시에 대한 집중학습과 교시실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해마다 현지교시기념일을 계기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고있다.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단위들인 검산, 운정, 룡덕, 기은, 소은, 창동 등 모든 리들에 군내 책임일군들을 파견하여 그곳 당원들과 농장원들 속에서 수령의 현지교시에 대한 집중학습을 조직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하도록 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조직지도하였다.

이에 있어서 검산리당위원회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사업은 매우 교훈적인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숙천군에 주신 현지지도와 현지교시를 체계적으로 해설침투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으로 느끼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40여년간 온갖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셨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숙천군의 한 농촌을 찾으시여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친히 료해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등 실로 친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몸소 이곳 검산마을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맞대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시였으며 전시하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심려하시여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농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전후에도 그이께서는 친히 여러차례 내려오시여 농촌사업과 농장원들의 살림살이를 일일이 료해하시고 농촌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부락은 어데다 건설하고 농사는 어떻게 잘 지으며 정치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실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구체적방도들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성원들은 지도과정을 통하여 농민들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은 오직 수령의 이러한 배려와 사랑의 결과라는것을 인식시키면서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매달 계획적으로 꼭꼭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학습하고 그 실행정형을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리적인 모임과 초급일군들의 강습 등 모든 기회를 다 리용하여 수령의 현지교시내용을 다시 해설해주고 그 실천방도를 당면한 투쟁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토론하도록 조직하였다.

오늘 검산리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수첩에 적어넣고 일상적으로 가슴에 품고다니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끝마쳤을 때에는 반드시 현지교시를 놓고 자신을 돌이켜보군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령의 교시를 기어코 관철하고야 말 일념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렇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농장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끈 결과 사람들의 사상생활과 일솜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령께 더욱 충실하려는 열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모두가 일손을 다그쳐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수령의 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검산리내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지난해에 수만립방의 흙을 파서 동뚝을 쌓아 300여정보의 명을 홍수피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호하였으며 정보마다 6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하여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선물을 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군당위원회는 검산리에 대한 지도경험을 군내 모든 단위들에 일반화하였다. 이리하여 한단위에 창조된 긍정적모범은 수많은 모범을 련이어 낳게 하였다.

백암리당위원회에서는 수령께서 유지작물을 많이 심어 농민들에게 기름을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라고 하신 현지교시를 받들고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짜고들어 전체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크고작은 야산들과 공지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 땅콩 등을 심어 매인당 기름이 하루 18그람씩 차례지게 하였다. 지금 이들은 수령의 높은 기대와 끊임없는 배려에 충실히 보답하고저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이든지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오늘 군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는 수령의 교시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제때에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가적기풍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부단히 촉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군내 당조직들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농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조직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운정리를 지도하여 한개 단위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학습에서의 전형을 창조하고 군내 김일성동지혁

명력사학습강사들과 초급정치일군들을 망라한 방식상학을 통하여 그 모범을 일반화하였다.

이와 함께 군내 당조직들은 농민들의 사상생활정형과 당면한 투쟁과업의 요구에 맞게 해당한 회상기제목들을 제시하여주어 학습하도록 하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별, 작업반 또는 분조별로 회상기독보, 회상기연구반표회, 혁명가요보급, 시랑송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조직하도록 지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숙천군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오늘 군내 농민들은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등을 모르고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게 생활하고있으며 테제의 빛발아래 해마다 만고대풍을 이루어 농민들의 분배몫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농민들의 생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일부 농민들속에서는 도달된 성과에 자만하며 식량을 랑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러한 실정을 제때에 포착하고 농민들이 과거사회에서 겪은 쓰라린 생활과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참담한 현실을 잊지만며 행복할수록 계급적립장을 더욱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농민들의 구체적 생활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양을 구두선전으로도 하고 직관선전으로도 하며 집체적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그들속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이 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증산하려는 열의가 높아지게 되였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행복을 마련하여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농근맹, 사로청, 녀맹 등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례외없이 조직생활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근로단체들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함으로써 농촌에서 천리마기수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확대되게 하였다.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농민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로 되며 농업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김일성동지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아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가일층 높이는것이 선결문제로 나선다.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동시에 농촌건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테제에서 천명된 수령의 혁명사상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빛나게 구현하고야 말것이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더큰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이다

로 재 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산물인 남조선괴뢰정권의 반동적본질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괴뢰정권의 매국적, 예속적 및 반인민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자기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듯이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속일수 없는 하나의 서뿌른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6폐지)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주신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천명하여주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그들이 오늘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일떠서게 하시였다.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매국적이며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정권》이 아니라 애국적이며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로서의 남조선괴뢰정권의 성격과 본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남조선괴뢰정권의 특징의 하나는 그 매국적성격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애국적이고 반제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정권〉은 매국적인 정권입니다.》(우와 같은 책, 76폐지)

정권이 애국적이냐, 매국적이냐 하는것은 그 정권의 성격과 본질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된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권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태도,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표현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태도와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는 서로 뗄수 없게 통일되여있다. 그것은 현시대에 있어서 민족적리익을 옹호하며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는 문제가 반제투쟁을 통해서만 담보될수 있기때문이다. 애국적인 정권만이 반제적인 정권으로 될수 있으며 또한 반제적인 정권만이 애국적인 정권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추종하는 정권은 결국 매국적인 정권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바로 여기에 그 매국적본질이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철저한 매국적《정권》으로서의 남조선괴뢰정권의

반동적본질은 그 력대통치자들이 모두 제국주의에 충실한 주구이며 극악한 매국노들이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오늘 남조선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현위정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자들도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하고있을 때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반일투쟁에 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였으며 바로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강도적인 수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우와 같은 책, 76～77폐지)

악명높은 리승만, 장면 등 력대 남조선괴뢰정권의 우두머리로 있던자들은 모두 우리 인민의 칠천지원수인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길들여진 손때묻은 주구들이였으며 제놈들의 향락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제국주의상전에게 팔아먹은 만고역적의 무리들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소위 《대통령》감투를 씌워 남조선괴뢰정권에 들여앉힌 첫 졸개 리승만이란놈이 다름아닌 흉악한 민족반역자였으며 매국노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그뒤를 이은 장면이란놈은 일제때에는 《황국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 참사》, 《대동아전쟁대책협의회 참사》, 《조선학도경성부보도련맹 지사》 등을 해먹으면서 조선인민에게 《황국신민화》와 《학도병지원》을 강요한 친일주구였으며 해방후에는 미제의 비호밑에 친미파의 두목으로서 상전에 충실히 복무한자였다.

지금 괴뢰정권에 올라앉아있는 박정희역도놈도 그의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흉악한 친일, 친미 주구이며 철저한 매국노이며 부지막지한 군사불한당놈이다. 이놈은 친일악질주구의 피줄을 타고났으며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혈서지원》으로 일제침략군에 들어가 일제의 《황군중대장》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학살에 미쳐날뛴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이놈은 만주일대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토벌》에 무려 110여회나 참가하여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동포들의 마을에 불을 지르고 어린이들과 로인들까지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꺼리낌없이 저지른놈이다. 박정희역도놈은 일제가 패망하자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고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괴뢰정권을 가로채고 들어앉은 미제의 충실한 졸개이다. 박정희역도는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이후 미제에게 남조선을 송두리채 팔아넘기고도 성차지 않아 동족의 피까지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는놈이다. 이 놈은 미제의 범죄적윁남침략전쟁에 남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을 값싼 대포밥으로 떠밀어넣었으며 수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을 《이민》이니, 《인력수출》이니 하는 수치스러운 간판하에 외국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종신노예로 팔아넘긴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다. 또한 이놈은 《제2의 리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협정》을 맺겠다고 앙탈을 부리면서 인민들의 항의를 총칼로 억누르고 옛상전인 일제와 매국적 《한일협정》에 도장을 찍어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적예속물로 만든 천인공노할 매국노이다. 박정희역도야말로 조선민족의 천추에 용납못할 흉악한 범죄자이며 만고역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박정희무리들은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공산주의〉의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가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성공할수 없으며 그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습니다. 우리와 남조선괴뢰들과의 대립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립인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노와의 대립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3～30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활하고 음흉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흉악한 매국노들로 꾸며진 괴뢰정권의 매국적성격을 가리여보려고 주구들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민족주의》의 간판을 들게 하는 연극을 꾸미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활한 잔꾀로써는 그 누구도 속일수 없다. 미제에 적극 아부굴종하면서 그에 충실히 복무하는 매국노를 제아무리 민족주의자로 가장시킨다하여도 그 본성을 숨길수는 없는것이다. 괴뢰역적놈들이 떠받드는 미제국주의는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민족해방과 독립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강도적침략을 감행하여온 우리 민족의 피맺힌 철천지 원쑤이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흉악한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다.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은 바로 이와 같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침략도구로 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매국노들로 꾸며진 남조선괴뢰정권이 나라와 민족을 미제에게 팔아먹는 철저한 매국노들의 《정권》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로서의 남조선괴뢰정권이 가지고있는 특징은 다음으로 그 식민지적, 예속적 성격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이 또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7페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냐,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이냐 하는 문제는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일반적으로 자주성은 독립국가주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 특히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신생독립국가들을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국가주권의 자주성문제는 정권의 성격을 특징짓는데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을 심오히 분석하시면서 미제가 신식민주의적형태로 인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조작하는 《정권》의 식민지적이며 예속적인 성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식민지적이며 예속적인 성격은 그것이 우선 인민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조작되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도구로 되고있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처음부터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을 휘둘러서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정청〉의 간판을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로 바꾸어달았던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7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총칼로 억누르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목적에서 조작된 《정권》이다.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은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이 강제로 조작된것이며 식민지를 《독립국》으로, 식민지통치를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의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철저한 식민지적이며 예속적인 괴뢰정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식민지적, 예속적 성격은 또한 이 《정

권》의 모든 정책이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복무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모두 미국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7~78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정권이 제놈들의 지령의 단순한 집행자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 되게끔 지배와 예속의 체계를 세워놓았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가 강요한 각종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에 얽매여 모든 활동에서 미제의 철저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또한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무제한한 권력과 특권을 행사하고있는 《미국대사관》과 미제침략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국제개발처》 등 침략기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은 《헌법》과 《법률》을 꾸며내며 《예산》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금을 받아내고 괴뢰기구내의 졸개 한놈을 옮겨놓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상전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못하는 완전한 허수아비로 되고있다.

괴뢰정권은 경제적으로도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남조선의 중요공업부문들이 거의 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지배밑에 들어가고있으며 화학공업의 100%, 전력공업의 80%, 세멘트공업의 65%가 외국자본의 수중에 장악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경제는 원료, 자금, 설비면에서도 미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게 철저히 예속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가공공업 주원료의 80~90%, 연료, 동력의 거의 대부분을 미제에 의존하고있으며 지어 지난날에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던 원면마저도 오늘에 와서는 그 98%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수입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또한 재정금융면에서도 매해 예산의 20~30%와 금융자금의 30%이상을 미제의 《원조》에 매달리고있으며 막대한 대외부채에 얽매여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군사분야에서도 철저히 미제에게 예속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직접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을뿐만아니라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과 전반적인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있으며 괴뢰군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괴뢰정권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제에게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내세워 철저한 지배와 예속의 체계를 만들어놓은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최대한으로 수행해나가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4페지)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고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어 전쟁정책을 감행하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며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미제상전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남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송두리채 긁어내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동원하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남조선괴뢰정권의 식민지적이며 예속적인 성격이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로서의 남조선괴뢰정권의 특징은 또한 그 반인민적성격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8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의 반인민적성격은 그것이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가장 반동적인 계급들을 그 기둥으로 삼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반대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추종하고있는자들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식민지통치의 사회적기둥이며 괴뢰정권의 계급적기초이다.

남조선력대괴뢰정권의 구성자체가 그의 계급적본질을 뚜렷이 보여준다. 박정희괴뢰정권을 비롯한 력대괴뢰정권의 구성을 보면 소위 《장관》, 《차관》의 77%가 매판자본가와 지주 출신이며 그 나머지도 반동관료배들과 악질정탐배들로 채워져있다.

이른바 《립법기관》이라고 하는 력대괴뢰국회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미제가 1948년에 처음으로 조작해낸 《리승만국회》에는 지주가 42%, 매판자본가가 16%, 반동관료배가 1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나머지도 친미친일분자로 꾸려져있었다. 오늘 남조선괴뢰《국회》에도 지주, 매판자본가들이 33%, 군사파쑈분자, 반동관료배, 정상배들이 44%를 차지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없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바로 이와 같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침략정책의 도구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이러한 반인민적, 반동적 성격으로 하여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언론과 생존의 자유마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괴뢰정권을 통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통치의 전형을 이루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심으로써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과 교활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였으며 미제가 조작한 괴뢰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필연성과 그 투쟁이 가지는 원칙적의의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신 기초우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녘동포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되여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식민지통치의 추종자이고 지지자이며

침략세력의 안내자이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들에 의거함으로써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유지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미제의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괴뢰정권을 위장물로 하여 실시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가장 침략적이고 매국배족적이며 예속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이다. 이러한 반동적, 반인민적 통치를 그대로 두어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하며 모든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폭력투쟁에 복종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과업과 방도들은 남조선혁명의 근본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끄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분석하시면서 조선인민의 유일한 국가주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엄연한 력사적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있을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6페지)

조선민족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수반으로 모시고있는 단일한 민족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일한 국가로 가지고있는 인민이다.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축치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참된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오늘과 같은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그이의 령도밑에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한결같은 념원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깊이깊이 뿌리박힌 의지이며 신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국가수반으로 모시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가장 애국적이며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국가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은 가장 애국적인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은 가장 자주적인 정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정권의 애국적이며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심오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만이 전체 조선인민의 모든 리익을 철저히 대변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로 되고있음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　　*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조작된 남조선괴뢰정권이야말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라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있다.

오늘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다름아닌 바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에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로 깊어가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북반부인민들처럼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기려는 지향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으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 북반부인민들과 같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제8~9호(루계 33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9년 8월 10일 발행 • 1969년 8월 15일

ㄱ—93320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 (331)

차 례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친애하는 대표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이번 국제기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려는 5대륙기자들의 숭고한 리념과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소집되였습니다.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되는 세계진보적출판언론계의 참다운 대표들의 회합이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박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구라파에서 온 진보적기자들의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적변혁의 시대,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있는 장엄한 력사적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와 평화애호력량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쇠퇴몰락하고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제국주의억만장자들이 지구상에서 활개치고 주인행세를 하며 인류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함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는 민족해방혁명운동의 거세찬 조류가 막을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쓸어버리는 위대한 혁명의 폭풍이 이 대륙들을 휩쓸고있습니다.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수억만의 이 지역 인민들이 자주로운 식민지명에를 벗어던지고 거연히 일떠서 새로운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되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 제도를 짓부시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위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있습니다.(박수) 아직도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나라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철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여지없이 붕괴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은 끊어져가고있습니다.(박수)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도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피에 굶주린 제국주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습니다.(박수)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고 일시적인 실패와 좌절도 있으나 전반적추세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리롭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박수)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옛처지를 꿈꾸며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결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에서 칠성판에 오른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악랄하게 교란하고있습니다. 미제는 몇해째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살륙전쟁을 계속하는 한편,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그

들은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나라이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인 꾸바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습니다. 미제는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강화하고있으며 중근동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부추겨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다시 무장시켜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위험한 발원지를 만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이리석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동화한 군부상층 및 종족상층부의 대표와 같은 우익계층들을 매수하여 긁어모아가지고 이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내세운 괴뢰들이 저들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로 될 때에는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며 공공연한 무력간섭까지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흉악한 음모책동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공갈하며 적지않은 정부들을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사실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후진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은 신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후진국공동개발》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원조》정책을 해외팽창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으며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독점자본의 해외침투의 길을 개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에 의거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략탈하여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습니다.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도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미명밑에 일련의 나라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고취하고 민족허무주의를 주입하며 썩어빠진 양키식 패륜패덕을 부식하고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파괴와해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밑에 일련의 나라들을 침략적군사쁠럭과 쌍무적 군사동맹, 군사조약에 얽매여놓고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바로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수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후 구식민주

의자들을 대신하여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틀어쥐고 식민주의《제왕》으로 등장하였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의 촉수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가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라는것을 더욱더 뚜렷이 증명하여주고 있습니다.

현정세는 5대륙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민족적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사면팔방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며 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경각성있게 물리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의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는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겨야 할것입니다. 세계혁명기지로서의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식민지략탈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피압박민족들이 벌리는 모든 혁명투쟁을 적극적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의 동맹군을 강화하는것이며 반제혁명투쟁의 공동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입니다.(박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함께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을 강력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종주국의 로동계급과 식민지피압박민족들은 다같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국의 로동계급과 식민지인민들을 갈라놓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합니다. 그들은 로동계급을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상의 악취로 중독시키려 하며 식민지에서 긁어온 초과리윤의 일부로 로동귀족들을 매수하여 로동계급의 전투적대오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 합니다. 종주국의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음흉한 간계를 철저히 짓부시고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이 자기자신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길이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박수)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이며 마지막지탱점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스

스로 식민지를 내놓지 않으며 독립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식민지국가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고도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앞에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아직도 제국주의예속밑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 조약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방면으로 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간파하며 그를 철저히 폭로분쇄함으로써 그들의 올가미에 다시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전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박수)

오늘 반제반미공동전선에서 국제민주운동과 평화애호운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 운동은 그 산하에 세계의 수억만 근로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망라하고있습니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줄기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자기가 차지하고있는 매개 전선에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소멸될것이며 모든 나라 인민들은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이번 국제기자회의는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할 중대한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는 엄숙한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인민들의 정의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우는것을 신성한 임무로 삼고있는 5대륙 진보적기자들의 대표들이 오늘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한 방도를 한자리에 모여앉아 토의하는것은 매우 시기적절한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박수)

이번 회의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을 반제반미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공동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옹호자이며 전파자이며 사회여론의 대변자이며 조직자인 진보적기자들과 선진적출판물들의 고무적역할은 자못 큽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투쟁에 인입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민대중은 그가 혁명의식으로 무장하고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족

파하는 피어린 투쟁에 몸바쳐나설 때에만 참다운 혁명의 주력군이 될수 있고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이 될수 있으며 새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어떤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위대한 력량으로 되며 혁명투쟁에서 김정치역할을 놀게 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에게 혁명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계몽하는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사들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싸우는 선진인사들은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며 옳은 투쟁구호를 내세우며 인민대중을 고무하고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킵니다.

선진사상의 소유자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온갖 부정의와 사회악을 불사르는 투사들인 진보적기자들은 언제나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선진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혁명의 필봉을 튼튼히 틀어잡고 썩어가는 낡은 제도를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죽어가는 반동통치계급에게 준엄한 멸망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수)

이 성스러운 투쟁마당에서 진보적기자들은 피도 많이 흘렸으며 반동들의 갖은 폭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지어는 감옥과 단두대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박수) 이리하여 기자들은 인류의 해방투쟁사에 실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인민들은 인류해방의 성전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며 싸운 혁명적기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있으며 그들의 위훈을 길이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선렬들의 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인류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미제국주의의 죄행을 준엄히 단죄하며 전세계 인민들을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결전에 용감히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진보적기자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여야 하며 그들의 야수적면모를 낱낱이 벗가놓아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가는곳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광범한 사회여론을 조성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그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설교하는것은 인민들의 혁명적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오만무례해지고 횡포무도하여지게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부추겨주는 결과밖에 가져다주는것이 없다는것을 력사는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은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단호하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수 있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고 그것을 더욱 튼튼히 할수 있으며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널리 선전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이와 함께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 대미의존사상을 반대하며 미제를 끝없이 미워하는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제의 반동적사상

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을 정치적불구자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선진사상의 대표자들인 진보적기자들은 미제의 반동적사상문화적공세를 단호히 물리쳐야 할것입니다. (박수)

사상전선에서 진보적기자들의 정력적인 문필활동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이 높아질 때 그들은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할것입니다. (박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것은 세계진보적기자들의 마땅한 혁명임무입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은 인류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언론출판계인사들에 대한 악랄한 공격이며 도전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을 비롯한 전세계 영웅적인민들,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새 생활을 용감하게 창조하고있는 인민들,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 미제를 규탄하는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 언제나 같이 숨쉬고 같이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그리하여 기자들이 쓰는 모든 기사, 평론, 정론들은 미제를 력사의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을 반미구국항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진보적기자들의 국제적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진보적기자들은 비록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서 살며 정당의 소속과 정견, 풍속과 신앙, 국적과 피부색, 언어와 문자는 서로 다르지만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통된 리념과 투쟁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전선에 서있는 전우들입니다. 오직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서만 세계진보적기자들을 광범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기자들의 국제적운동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효과있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박수) 세계의 모든 진보적기자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을 합쳐야 하며 일치단결하여 미제를 규탄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번 국제기자회의가 여러 대표들의 진지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방도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기자들의 기대와 희망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우렁찬 박수) 그리하여 회의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기자들의 투쟁력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남기게 될것을 희망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친애하는 대표 여러분!

당신들은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귀중한 손님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이렇게 많은 나라 반제투사들이 참가한것은 미제국주의의 직접적침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은 20년이상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고 그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충실한 앞잡이인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국을 통일하려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민족적숙원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근원입니다.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전세계 진보적기자들 특히 당신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하여 깊은 리해와 동정을 표시하여주었으며 조선반도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에 대하여 언제나 힘있게 규탄하였습니다. (박수) 전조선을 삼키려는 미제의 강도적야망에 의하여 도발된 지난 조국해방전쟁기간에 세계의 진보적기자들은 미제의 범죄적만행을 단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존엄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선 우리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으며 오늘도 미제를 몰아내고 인위적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필봉을 높이 들고있습니다. (박수) 조선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열렬한 문필활동가인 김종태동지에게 세계진보적기자들의 이름으로 국제기자상을 수여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정당한 반제혁명투쟁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지지로 됩니다.(박수) 이에 대하여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참다운 벗으로, 믿음직한 전우로 맞이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는동안에 가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간절한 념원을 몸소 느끼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같은 투쟁목적으로 하여 언제나 피압박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친선단결은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반제반미투쟁전선에서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끝으로 인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몸바치고있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며 열렬한 반제정치활동가들인 혁명적기자들의 보람찬 사업에서 보다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는바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이라크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물음: 미제국주의강점을 반대하며 남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진행하는 남조선 인민의 치렬한 투쟁에 관한 각하의 생각과 나라의 두부분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하께서 제기하시는 기초들은 어떠한것입니까?

대답: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1966년에 있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를 비롯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문제에 대하여 쓴 우리의 문헌들이 많이 발표되였습니다. 이 문헌들을 읽으면 우리의 조국통일방안과 미제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잘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인민의 가장 큰 념원은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성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의 해결에 귀착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더욱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며 자체의 혁명력량을 빨리 키우는것이며, 셋째로 세계인민들, 특히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이 굳게 뭉쳐 미제국주의자들을 국제적으로 최대한 고립약화시키는것과 함께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는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가지 혁명력량이 충분히 마련되고 옳게 배합될 때 조선에서의 통일이 실현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조선인민들과 온 세계 인민들앞에 널리 선포된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시종일관 바라고있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중앙정부를 세우자는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이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민족자주의식을 반영하고있으며 정당의 소속과 정견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날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방안과 제의들을 한사코 반대하여왔으며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입니다. 남조선에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남북조선의 총선거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의 비호를 받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말것을 그놈들에게 애걸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참다운 의사가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도 북반부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미제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매국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은 남조선에서 누가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마구 잡아가두고있으며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의 활동에 대하여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고있으며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투옥학살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인 현괴뢰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이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가고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세력이 정권을 쥔다면 그들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현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앞잡이인 박정희괴뢰정권을 때려부셔야만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으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념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정권》에 오래동안 들어앉아있을것을 목적으로 서두르고있는 이른바 《3선개헌》책동을 반대하여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들고일어나 기세찬 시위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물론 간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과정에서 단련되고 자기들의 투쟁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있으며 혁명력량을 계속 축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영웅적투쟁경험도 가지고있습니다.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고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투쟁하여야 승리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더욱더 똑똑히 깨닫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대렬에서는 훌륭한 혁명적지도간부들도 많이 자라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박정희괴뢰정권을 때려부시고야말것이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고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실현할 날은 멀지 않아 올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세계인민들앞에서 침략자로서의 제놈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우리가 남조선을 《침략》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선전을 불어대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운동을 공화국북반부의 소행이라고 떠벌여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도발행동을 감행하고있으며 전쟁으로 우리를 위협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기만술책으로써도 결코 세계인민들을 속일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자기의 념원을 결코 버리지 않을것입니다.

이라크인민은 지난날도 그랬고 오늘도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라크인민에게 사의를 표하며 이라크인민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물음: 우리는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아랍인민이 진행하는 투

쟁을 각하께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하여 아랍인민들이 진행하는 무장투쟁에 관한 각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답: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우리 정부와 사회단체들에서 성명들을 여러번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랍인민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이며 파렴치한 침략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영웅하게 싸우고있습니다. 오늘 아랍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조선인민은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는 용감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전체 아랍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언제든지 아랍인민들과 어깨겯고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자기의 투쟁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거세찬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부딪쳐 더욱더 녹아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아무리 강하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전세계의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은 반드시 패망하고야말것입니다.

물음: 사회주의의 가장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각하께서 이라크의 1968년 7월 17일혁명에서 쟁취한 사회적전취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계십니까? 이라크에서 체포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간첩들을 처단한데 대하여 각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우리 정부가 이미 표명한바와 같이 조선인민은 이라크에서의 혁명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라크혁명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이라크인민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은 이라크의 로동계급과 인민이 이라크혁명정부의 령도밑에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라크에서 체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간첩들을 처단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취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국주의간첩들에 대하여 자비심을 베풀어서는 안되며 혁명의 원쑤들과는 오직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이라크인민들이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간첩악당들에게 가한 단호한 징벌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합니다.

아랍 《다르 알타흐리르》출판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물음: 수상동지, 제가 조선을 방문하여 배운것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입니다. 저는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귀국의 대내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되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력갱생의 원칙이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제가 모든것을 다 충분하게 리해하였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상동지께서 이에 대하여 더 말씀해주실수 없습니까?

대답: 우리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서는 로동신문사 주필인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보았겠지만 우리는 지난날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일떠서 용감히 투쟁하였기때문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았으며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조선사람이 잘 압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입니다. 조선혁명에 대하여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하고 처방을 내릴수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조선혁명을 하여줄수도 없습니다.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주인인 조선사람들자신이 자기 머리를 써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첫날부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왔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간단히 말하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나가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 혁명에 리롭게 처리해나가는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구현하였습니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왔으며 전체 인민들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 부원으로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입니다.

당신이 정전직후에 찍은 우리 나라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실로 많은것이 파괴되였습니다. 모든것은 불타고 파괴되였으며 도시와 마을들에 남은것은 재더미뿐이였습니다. 평양시만 보더라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은것은 집 몇채뿐이였는데 그것도 다 마사진것이였습니다. 참으로 그때 우리 나라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곤난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시 일떠설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거의다 파괴되였다 하더라도 자력갱생하면 페허우에서도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전후복구건설의 장엄한 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은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있는 힘과 지혜와 기술을 더 내여 눈부신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면서 자기 손으로 기계를 만들고 공장들을 다시 일떠세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과학적발명들과 기술혁신과 창의고안들을 하여 우리 나라에서 걸리고있던 문제들과 곤난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애국적인테리들이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일제때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방직공업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추는 몇천추밖에 안되였고 천은 한사람앞에 겨우 14센치메터 차례지나마나 하였습니다. 해방된 다음에도 인민들의 옷문제를 푸는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때문에 목화가 잘 안되므로 섬유문제는 여전히 곤난한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원만

히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석회석을 가지고 비날론을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해냈으며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많이 나는 갈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우리 나라 과학자들의 힘과 국내원료로써 완전히 풀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제철공업에서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콕스탄이 나지 않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콕스탄을 사다가 철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제철법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또하나의 큰 기여로 되였습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해하여 비료를 생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기가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석탄을 가지고 가스화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에는 없다던 여러가지 광물들을 많이 발견하여 공업을 빨리 발전시켰으며 농촌수리화에서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형식들을 창안하여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건설사업도 국내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하였기때문에 빨리 진척시킬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빛나게 구현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간부들과 인민들은 자력갱생하는데 습관되였으며 매우 용감해졌습니다. 당에서 무슨 문제든지 내놓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꺽 받아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내고야맙니다.

우리가 정전직후에 용광로를 복구건설할 때 우리에게는 기술자도 없었고 설비와 자재도 모자랐습니다. 손쉽게 하자면 기술자도 다른 나라에서 청해와야 했고 설비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업대학 3학년학생들을 미리 가졸업시켜 설계를 하고 용광로를 건설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200명을 가졸업시켰는데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투쟁하여 한해남짓한 기간에 좋은 용광로들을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용광로를 건설하였더라면 돈이 많이 들었을뿐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렸을것입니다. 설계하는데 1년, 설비를 제작하는데 1년 또 그것을 가져오느라고 적지않은 시간이 걸렸을것이며 결국 용광로건설을 완공하기까지는 적어도 4~5년은 걸렸을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거하면 용광로를 하나 건설하는데 이처럼 많은 자금을 들이면서도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지만 자체의 힘으로 하면 한해라는 짧은 시일안에 훌륭한 용광로를 건설할수 있으니 자력갱생하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기관차같은것도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소요되는 많은 전기기관차를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과 기술자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설계를 하여 기관차

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과 힘으로 훌륭한 전기기관차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자체로 만든 전기기관차를 가지고 나라의 철도를 거의다 전기화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계를 하나 얻으면 그것을 본보기로 이르는곳마다에서 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뜨락또르도 만들고 여러가지 무기도 만들며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거의다 자체로 만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력갱생하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놓았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건설장들에서는 자체로 만든 현대적기계들이 일하고있으며 전야에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뜨락또르가 발을 갈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도로들에는 자력갱생호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무기를 가지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여 아직 인민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오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쌀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으며 우리가 지은 집에서 우리 나라에서 만든 천으로 옷을 해입고 자체로 만든 일용품을 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나가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이처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종합적으로 발전된 공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는것의 일부만 자체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것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물론 생산력발전의 소여단계에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쓰는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건설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나라에서 많이 쓰는것과 중요한 원료, 자재들은 반드시 자체로 생산하여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할수가 있습니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은 결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잘 건설하기 위한것입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조선에서 살아야지 제나라를 버리고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력갱생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건설하면 우리의 민족적임무를 다하는것인 동시에 이것은 곧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하는것으로 되며 세계혁명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국제적련대성을 거부하는것이 아니며 형제나라들사이에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고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한다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나라들사이에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으며 호상 협조하고 원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적인 사회주의나라들로부터 원조도 적지않게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후복구건설의 성과에는 형제나라인민들의 원조의 손길도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있으며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것은 배우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은 받아들이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할줄 모르는것, 우리가 처음 해보는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없는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쏘련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원유가 나지 않기때문에 원유가공공장도 쏘련기술자들의 방조로 건설하고있습니다. 물론 다음번부터는 화력발전소도 원유가공공장도 다 우리 기술자들의 힘으로 건설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나라들사이에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지마는 그것을 기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어디까지나 자력갱생하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웠지 다른 나라의 원조를 중요한것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는 아무리 지성어린 원조라 하더라도 제한성이 있으며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밖에 놀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로써는 자체의 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며 덮어놓고 남만 쳐다보고 남의것만 본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도 남의것을 그대로 본따거나 남의 글을 그대로 베껴다쓰면 좋은 글이 되지 못하며 글이 늘지 않습니다. 글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써야 좋은 글을 쓸수 있고 글재간이 늘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오직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여야만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대하여 많이 칭찬하는데 우리가 거둔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남쪽 절반땅은 여전히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있습니다. 조국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지상의 혁명과업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야 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쳐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라의 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문제가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물론 우리앞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앉아서 뭉개는 곤난도 아니고 후퇴하는 난관도 아니며 전진하는 도상에 있는 곤난과 난관들입니다.

곤난앞에서 실망할줄 모르고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하며 계속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곤난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아갈것이며 우리앞에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아갈것입니다.

물음: 수상동지께서는 귀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진영내에 의견상이가 있다는것은 가슴아픈 일이며 그것은 극복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신께서는 1968년 9월이후 사회주의진영내의 의견상이가 더 심각하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우리가 그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지만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의견상이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 있는 모순이나 사회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처럼 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주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모순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는 어디까지나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형제나라들사이에 있는 의견상이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있다면 그것은 주로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와 반제투쟁의 전략전술문제에서의 의견차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대평가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원자탄을 터치면 마치도 세계가 다 망하는것처럼 여기면서 적극적인 반제반미투쟁을 벌리지 않고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물론 제국주의를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다면 조선전쟁에서 왜 패배당하였겠습니까? 또 미제국주의자들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있지 않다면 왜 남부윁남에서 녹아나고있겠습니까? 이것은 미제의 운명이 이미 칠성판에 오르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아랍인민이 나쎄르대통령의 령도밑에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였을 때에도 제국주의자들은 감히 전

쟁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알제리인민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싸워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이밖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습니다.

그러면 라틴아메리카는 조용합니까? 결코 조용치 않습니다.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불리워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미제는 맥을 추지 못하고 녹아나고있습니다. 혁명적꾸바인민들은 바로 미제의 코앞에서 사회주의를 용감하게 건설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닉슨의 《특사》란놈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인민들의 노도같은 반미항쟁의 세례를 받고 결국 문밖에서 쫓겨나고말았습니다.

제국주의는 밖으로부터뿐아니라 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흑인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반전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들고일어나 투쟁한 결과 드 골독재정권으로 하여금 할수없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다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는 징조들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제국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데서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는데서 의견상이들이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는 한가정안의 일시적인 의견충돌이나 같은것입니다. 한가정안에서도 형제들사이에 일시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형제나라들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영 없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이와 같은 의견상이가 최근에 더 격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 의견상이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것만큼 때에 따라서 서로 말다툼을 더많이 할수도 있고 적게 할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의견상이가 더 격화된것은 아니며 더우기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완전히 분렬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약 사회주의나라들가운데서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의 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면 몰라도 의견상이가 발생한 이래 아직까지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도 제국주의의 편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또 넘어갈수도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완전히 분렬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한 국제로동계급의 계급적단결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의 동맹체에 결

합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결대로 서로 분렬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결국에 가서는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리간과 분렬을 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시도도 참패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물음: 귀당이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인이 바로 사회주의진영내의 의견상이에 대한 당신의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고있다고 인식하여도 좋겠습니까?

대답: 우리 당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회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당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동지적으로 토의하고 공동의 투쟁과업을 규정하며 행동통일을 기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며 단결의 위업에 이바지할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당들의 국제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자면 충분한 준비밑에 모든 조건이 성숙된 다음에 소집되여야 합니다. 오늘의 조건에서 국제회의가 소집된다면 형제당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적들앞에서 더욱 로출시킬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단결의 위업에도 리롭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형제당들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리익과 국제혁명운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오늘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형제당들의 그 어떠한 국제회의에도 참가하는것을 삼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물음: 수상동지께서는 《다르 알다흐리르》출판사의 신문들을 통하여 아련인민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까?

대답: 아련인민은 나쎄르대통령의 령도밑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련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아련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아련인민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자신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련인민과 같은 전우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아련인민과 언제나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강점지역에서 몰아내고 아랍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아련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물음: 미제국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와 령해 그리고 령공에 대하여 미제가 감행한 유린행위를 귀국령토에 대한 있을수 있는 보다 광범한 무장간섭에 앞서 진행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전면전쟁을 가져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태발전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대하여 몹시 우려하고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장난을 거의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극도로 첨예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그리고 령공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범행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적책동의 한 고리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진영을 침략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총칼에 의하여 남조선에 자기들의 군사적침략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괴뢰정권인 가장 포악한 식민지파쑈독재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고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특히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벌려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2,000여차례에 걸쳐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을 하였으며 숱한 간첩들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침입시켜 파괴암해행위를 감행케 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새 전쟁 준비상태를 시험할 목적으로 지난 3월에는 《포커스 레티너》작전이라는 이름밑에 미국본토로부터 수많은 침략적부대들과 군수물자들을 남조선에 《공수》하는 극히 도발적인 군사연습까지 벌렸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요즘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정탐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백주에 무장간첩선들을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적대적도발사건을 빈번히 일으키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우리의 령공에서 침략적인 공중정찰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지난해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하게 하다가 붙잡히여 마땅한 징벌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탐행위를 계속하여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공표한데 의하더라도 올해에 들어서서 지난 몇달동안에 미제의 정찰기들이 우리의 령공주변을 돌면서 정탐행위를 한것은 수백차례나 되며 지난 4월 15일에는 대형간첩기 《이씨—121》을 공화국령공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 하다가 조선인민군 용사들에 의하여 격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령공에 침입하여 적대적행동을 하던 미제의 간첩비행기를 우리가 쏴떨군것은 국제법상 공인된 자주권의 행사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지키며 그를 해치려는자들에 대하여 자위적조치를 취하는것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간첩비행기가 호된 징벌을 받게 되자 황당한 궤변으로써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이리석게 책동하고있으며 더욱더 분별없는 전쟁광증을 일으키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탐행동을 하는것이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그 어떤 조치나 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무슨 《권리》이기나 한듯이 사태를 꾸미면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찰비행을 계속하며 거기에는 《무장보호》를 붙인것이라고 떠벌여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런 도발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시설과 그밖의 군사기밀을 탐지하며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하는 고의적인 침략행위인것입니다.

요즘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이 남조선에 많이 기여들어 전선과 군사기지들을 싸다니고 한달이 멀다하게 남조선괴뢰들을 위싱톤에 불러다가 모의를 거듭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특별대기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징조로 보아 우리가 고도로 혁명적경각성을 높이지 않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정세는 매우 긴장하며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전쟁이 래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이렇게 서로 치고 얻어맞는 과정이 되풀이되면 그것은 결국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될것입니다.

물음: 남조선땅에서 미국의 군사적잠재력이 증가되였다는 실례들이 있습니까? 만일 증가되였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이 계획적인 긴장상태의 격화와 전면전쟁의 위협과 어느 정도로 련관되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남조선은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군사침략기지인것만큼 거기에는 이미부터 미국의 방대한 군사적잠재력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6만여명의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배치하고있으며 70만에 이르는 방대한 수의 괴뢰군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철저히 자기들의 군사적목적과 전쟁정책에 복종시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위하여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증강하고있으며 그의 전투력을 더욱 보강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조선에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많이 끌어들였으며 최근에는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71기동합대라는것까지 새로 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해에 배치하고 남조선기지들에 수백대의 전투폭격기들을 증강하였습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는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그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것입니다.

남조선괴뢰군이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식민지고용군대입니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군대신 괴뢰군을 굉장히 많이 늘이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침략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것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비용을 씁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여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지출을 많이 《절약》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군대대신 방대한 괴뢰군을 고용함으로써 마치도 남조선괴뢰군대가 그 어떤 민족적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처럼 가리우며 자기자신들은 그 어떤 《원조자》로 미화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륙군만 하여도 정전직후의 16개 사단으로부터 29개 사단과 4개의 려단으로 확장하였으며 원자 및 유도무기부대들을 새로 편성하고 남조선괴뢰군의 해군과 공군의 병력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습니다.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 격추사건이 있은 다음에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습니다. 괴뢰군병사들의 제대를 중지시키고 복무년한을 연장하며 후방예비사단들을 전투사단들로 개편하며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는것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지난 1～2년동안에 남조선에서는 거의 10만명에 이르는 괴뢰군병력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향토예비군》을 편성할데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현지고용병을 더욱 증강할 목적으로 《향토예비군》을 조작하고 여기에 200여만에 이르는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넣고있으며 그의 완전무장을 서두르고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향토예비군》을 괴뢰군의 지휘체계에 망라시키고 군사훈련을 강요하고있으며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수 있게 《소집명장》까지 미리 만들어놓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사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전략도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신설확장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전쟁정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써 정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새로운 침략전쟁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물음: 당신께서는 조선령토에서 전면전쟁의 폭발이 저지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지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전면전쟁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온갖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인민으로서 그 누구를 먼저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령토를 한치도 침범한 일이 없으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추호만치도 침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입니다. 특히 미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의 가는곳마다에서 온갖 강도적략탈만행을 다하였으며 수억만 인민들의 고혈로써 살쪄왔습니다.

오늘 조선에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도 결코 우리가 북미합중국의 령토를 침범하고 그의 자주권

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을 하였기때문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우리 나라에 와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조선에서 전쟁의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조선에서 전면전쟁이 터지는가 안터지는가 하는것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이런 전쟁의 불집을 들어내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저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물러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그만두면 조선에서 전면전쟁은 저지되고 평화는 유지될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면전쟁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우리는 미제침략군이 조선에서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서로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군이 조선에서 물러가고 남북조선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대폭 줄이는것,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으며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러나 미제는 이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더욱더 모험적인 전쟁도발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로막고 조선정전을 공고히 하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최대의 참을성과 완강한 투쟁 그리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유지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평화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써는 절대로 유지할수 없으며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이며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전취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에서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드는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단호히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섬멸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원쑤와의 결전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코 원가전쟁상인들의 식민지노예로는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과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외래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견결히 수호할것입니다.

물음: 미제국주의는 어떤 조치로써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의 발전가능성들은 어떤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데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침략의 길잡이로, 그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습니다. 지주계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농민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억압하고있습니다. 매판자본가들은 미국의 잉여상품과 자본을 끌어들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여 미국독점재벌들에게 팔아넘기며 미제국주의고용군대에 군수물자를 대주어 치부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미국침략군대를 몰아내며 미제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애국적청년학생들, 인테리들,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면적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그들은 인민들의 온갖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애국적인 민주력량을 횡포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되고있습니다. 최근에만 하여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남조선의 통일혁명당 간부인 김종태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하였습니다. 실로 오늘 남조선사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보정치, 여론을 무시하는 강권정치》가 살판침으로써 《공기 없는 천지, 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로 전락되였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횡포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히틀러와 도쬬의 파쑈독재를 훨씬 릉가하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정권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민

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파쑈적폭압이 횡행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 반미구국투쟁을 진행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전도는 물론 간고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와 반동 사이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날로 고립되고 약화되여가고있는 반면에 애국적인 혁명세력은 계속 장성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대중속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가고있고 반미감정이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급격히 앙양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환경속에서도 남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장성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마침내는 어떤 간악한 원쑤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날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혁명정세가 도래하면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물음: 조선의 민족적통일이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될수 있습니까?

대답: 조선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고있는 립장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명백히 천명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주장하여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여맡길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 내부문제를 해결할수도 없습니다. 조선문제는 오직 조선사람들자신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얼마든지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전민족의 숙원인 우리 나라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였을것이며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것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군대가 물러가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총선거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민들은 정당의 소속과 징견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남북조선의 어데서나 똑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게 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가로막거나 억누르는 모든 요인들을 없애고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분위기속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만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의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이며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후 오늘까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남북조선총선거가 당장 실현될수 없다면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며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련방제라는것은 현재 남북조선에서 세워진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임명하는 같은 수의 대표들로써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런 최고민족위원회는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조절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남북간의 호상협조와 교류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통치배들이 련방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얼마동안 정치문제는 제처놓고라도 남북조선사이에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실현하여 민족분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일 이것도 싫다면 하다못해 남북조선인민들사이에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을수 있는 인도주의적조치라도 취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이 정당한 제안들마저 모조리 거부하였으며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오늘까지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나도록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에서 서로 갈라져 살고있는 부모, 처자들과 친척, 친우들사

이에 서로 안부조차 전할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일만한 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통일방안들을 반대하는가 하면 결코 그런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는 미친듯한 폭압소동을 벌리고있으며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에 미제국주의자들과 현괴뢰통치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이란 사실상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낸 다음 남조선인민들이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남조선의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쫓겨가고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이 물러앉은 다음 다른 어떤 진보적민주인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그들과 언제나 조국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협상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리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이루어질것입니다.

조선의 통일과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위업의 실현은 결국 세가지 혁명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남북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결국은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말것이며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핀란드공산주의자들과 핀란드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물음: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며 자기 나라의 자결권을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들의 의지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청년들은 원래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하여 두려움과 곤난을 모르고 싸우는 훌륭한 특징과 자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혁명과 새 사회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아름다운 특징과 자질이 혁명적당의 령도아래 사회와 인민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려는 그들의 높은 혁명적각오와 결합될 때 그것은 매우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조선청년들이 자기들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이 진리를 훌륭히 증명하여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의 독립과 인민들의 안전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보위하기 위

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해방후 조선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민주청년동맹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북조선에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일정에 오른 전후복구의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을 훌륭히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으로 되는 농업을 협동화하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면서 공장을 일으켜세우고 철도를 복구하였으며 재더미로 된 도시와 농촌을 새로운 면모로 건설하였습니다.

행복한 새 사회를 더 빨리, 더잘 건설하려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높은 혁명적열정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농촌과 어촌에서 그리고 온 나라의 수많은 건설장들에서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고있으며 생산에서 혁신운동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이고있습니다. 그들은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과 튼튼한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건설하는데서 모범적위훈을 떨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민족 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꽃피우는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에는 우리의 남녀청년들이 흘린 고귀한 땀이 스며있으며 그들의 커다란 공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과 자기 조국의 자주권을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였을 때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벌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도로 찾았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조선청년들은 백절불굴의 혁명적투지와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원쑤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조국보위초소에 튼튼히 서있습니다.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원쑤들이 우리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때에는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이러한 반격앞에서 여러번 쓴맛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보위사업은 인민군대에 있는 청년들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자인 동시에 조국의 참다운 보위자들입니다. 그들은 다같이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한결같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그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조국을 튼튼히 보위할 굳은 결의로 가득차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조선로동당에 대한 조선청년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표현이며 자기 조국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선청년들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나라의 참된 주인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며 자기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고 배울수 있고 청춘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게 하여준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적극 지지하고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혁명의 전취물과 자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치는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전하는데 따라 청년들의 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검박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꾸준히 성실하게 배우며 일하는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일반적인 생활기풍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혁명전사라는 높은 혁명적자각과 아름다운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차고넘치고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아갈것입니다.

조선청년들은 핀란드청년들을 포함한 온 세계진보적청년들과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더욱 강화할것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전선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물음: 당신께서는 미국대통령선거와 웰남에 관한 빠리회담 및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수립이 웰남문제의 종국적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웰남문제는 오늘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입니다.

웰남에서의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군사기지로 만들며 웰남민주공화국을 삼켜보려는 강도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웰남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무력간섭을 감행함으로써 시작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한 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이미 15년동안이나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50여만에 이르는 방대한 자기의 침략군과 수많은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남부웰남에 끌어들이고 여러가지 대량살륙무기와 전쟁수단 지어는 유독성화학물질까지 동원하여 남부웰남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웰남인민의 강력한 항전에 부딪치자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범죄적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1964년에는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고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파괴전쟁을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웰남에서 전쟁이 중지되고 웰남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모든 침략행위를 당장 그리고 영원히 그만두고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무조건 걷어가지고 남부웰남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웰남문제해결의 기본조건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앉았다고 하여 미제의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웰남문제해결에서 그 무슨 전환이 일어날것처럼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북미합중국의 모든 정책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남아있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달리는 될수 없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든지 그는 오직 미국독점재벌들의 리익의 대변자로서 미제의 식민지정책과 해외팽창정책을 충실히 집행할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여 북미합중국의 국가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미제의 정책이 침략적인것으로부터 갑자기 그 어떤 평화애호적인것으로 결코 될수 없습니다. 웰남문제에 대하여서도 같은것을 말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였다고 하여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야망이 변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미국에서의 대통령선거가 웰남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전환의 계기로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남아있는 한 웰남문제가 영원히 해결될수 없는 전도가 암담한 문제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웰남문제는 혁명의 주객관적정세가 조성되면 조만간에 반드시 해결될것이며 빠르면 미국의 현대통령이 집권하고있는 기간에도 해결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국의 현대통령이 침략정책을 그만두고 평화애호정책을 써서가 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쟁에 의하여 미제가 웰남땅에서 종국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나감으로써 해결될것입니다.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전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만회할수 없는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게 되고 웰남에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할수없이 빠리회의장에 끌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전투마당에서 당한 참패를 회의마당에서 만회해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으며 《평화》와 《협상》의 간판뒤에 숨어서 《힘의 정책》을 추구하고 웰남침략전쟁을 강화하며 남부웰남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술책에 매달리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을 교살하고 남부웰남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유지하며 웰남민주공화국을 격파하려는 저들의 강도적야망을 끝까지 추구하여보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잘 진척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관한 빠리회담에서 현재의 립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여기로부터 바라볼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웰남문제를 국제여론과 웰남인민의 념원에 맞게 해결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의 대표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웰남인민을 대신하여 웰남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웰남의 주인은 웰남인민이며 웰남문제는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서 웰남민주공화국대표가 제기한 방안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이 발표한 10개 항목제안에 기초하여야만 웰남문제가 가장 옳게 해결될수 있다고 인정하며 그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선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최근에 전세계 인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획기적사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수립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에서 이룩된 빛나는 열매로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에서 중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집니다. 남부웰남인민은 자기의 혁명정부를 세움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며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남부웰남을 건설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을 비롯한 남부웰남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및 각계층 인민을 망라한 남부웰남인민의 참다운 합법적정부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인민의 참다운 합법적대표인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에 남부웰남문제를 맡기고 남부웰남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서도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와 남부웰남문제의 해결책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지금과 같이 계속 남부웰남의 티우—키괴뢰도당을 부추겨주고 범죄적침략책동에 매달린다면 남부웰남인민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 한놈을 쓸어버릴 때까지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적남부웰남인민이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주권을 잡고 무장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영웅적웰남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녀성들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믿음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자

김 성 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보고를 비롯하여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내놓으신 이 전략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녀성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나라의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1

녀성문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사람들사이에 불평등이 생긴 때로부터 력사적으로 형성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은 종국적으로 푸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녀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에 관한 문제이며 녀성들을 모든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도록 하는 문제이다.

녀성문제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의 기본은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꼭같은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는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데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녀성문제는 모든 녀성들을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있다.

녀성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이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녀성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보장하여야 온 사회가 참

말로 착취없고 평등한 사회로 될수 있으며 모든 녀성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노릇을 하여야 사회는 참말로 행복하고 화목한 사회로 될것이다.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녀성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사회발전의 속도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력사의 창조자는 바로 인민대중이며 혁명의 결정적인 동력은 각성된 혁명적군중이다.

인민대중, 혁명적군중은 성별로 볼때에는 남자와 녀성으로 구성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다. 녀성들은 그 수적구성에서 남자와 같은 비률을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도 남자들에게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다.

결국 녀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성원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커다란 혁명력량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녀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발전할수 있다. 녀성들이 각성하여 혁명적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사회전체의 혁명력량이 강화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착취사회처럼 녀성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 녀성들이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절름발이사회이며 병신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바퀴를 가진 수레의 한쪽바퀴와도 같은것이다. 남자들이 수레의 오른쪽바퀴를 담당했다고 하면 녀성들은 수레의 왼쪽바퀴를 담당했다고 말할수 있다. 수레의 한쪽바퀴만 돌아가고 다른 한쪽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을것은 명백하다. 또한 수레의 한쪽바퀴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다른 한쪽바퀴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수레는 굴러가기는 하여도 속도가 매우 뜰것이다. 오직 하나의 축으로 련결된 두바퀴가 다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수레는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굴러갈것이다.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이처럼 중요하며 녀성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그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혁명의 매 단계마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훌륭히 해결하여오시였다.

해방전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통치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봉건적유교도덕에 얽매여 인신적으로도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사회정치생활에 전혀 참가할수 없었을뿐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가질수 없었다. 녀성들은 오직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이였으며 천대와 멸시, 롱락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우리 조선녀성들을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고 우리 나라의 녀성문제를 옳게 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전체 인민들과 함께 녀성들을 일제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녀성들의 사상문화적락후성을 철저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녀성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적극 동원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께서는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녀성들이 해방되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자면 봉건제도와 식민지통치제도를 없애버려야 하며 이것을 없애버리려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녀성들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남자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방침에 따라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곳곳에 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고 녀성들속에서 정치계몽사업을 널리 진행하시였으며 녀성들을 반일사상과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을 미워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는 부녀회를 비롯한 반일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반일혁명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녀성들을 대담하게 항일유격대에 받아들여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시였다. 천대받고 압박받던 수많은 녀성들이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항일유격대와 부녀회조직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본질, 녀성운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높이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할것이라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을 정식화하시였다. 이 강령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세기적인 암흑과 질곡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을 따라 활발히 전진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그이의 령도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나 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력사무대의 떳떳한 주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과 녀성운동의 고귀한 경험들은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발전과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해방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과 수령께서는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시고 그 해결에 전당과 전체 녀성들을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천대받고 압박받던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수령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에서도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을 창건하신 다음 인차 우리 녀성들의 정치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조직하여주시였다. 1945년 11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들은 비로소 전국적범위에서 합법적인 자기의 정치적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광범한 녀성들이 사회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당과 수령께서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을 봉건적, 식민지적 예

속으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압박과 천대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던 우리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녀성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녀성들에게 법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권리가 보장되였다 할지라도 녀성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이 낮으면 그것을 충분히 행사할수 없으며 녀성운동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과 수령께서는 녀성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녀성들에게 남자와 같은 법적권리를 보장하여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시였다.

당과 수령께서는 성인학교를 비롯한 여러가지 학교들과 교양망들을 조직하여 녀성들에 대한 문맹퇴치와 문화계몽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하여 녀성들속에서 일제사상잔재와 낡은 봉건유습을 뿌리빼고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의식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결과 지난날에는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우리 나라 녀성들이 해방후 몇해 안되는동안에 모두다 우리 글을 자유롭게 읽고 쓸수 있게 되였으며 현대적기술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오던 우리 녀성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도 매우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녀성운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왔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섬으로써 녀성문제해결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녀성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온갖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였다. 개인농경리의 좁은 울타리에서 살아오던 농촌녀성들은 어엿한 사회주의적협동농민으로 되였으며 중소상공업에 종사하던 녀성들은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의 대렬에 들어가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우리 당은 모든 녀성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망라시키는 한편, 녀성들에게 충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의 방침에 따라 전국각지에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많이 창설됨으로써 녀성들은 어디서나 자기의 체질과 기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수 있게 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가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 아동병동과 아이들의 놀이터를 아담하게 꾸려주었으며 세탁소, 의복수리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마련하여주었다. 근로녀성들에게 산전산후유급휴가제를 실시하여 주었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세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모성로동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의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우리 녀성들은 오늘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재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났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3만 3천 599명의 녀성들이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10만명을 넘는 녀성들이 기사, 기수, 전문가로 자라나 공업, 농업, 교육, 문화, 보건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날 사회정치생활에서 완전히 무권리하였고 갖은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오늘은 훌륭한

사회정치활동가로, 현대적인 기업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 대규모적집단경리를 운영하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으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학자, 교원, 의사, 예술가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끝없이 행복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 녀성들은 아직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형편은 수레의 한쪽바퀴가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던것과 같은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 두바퀴가 다 돌아는 가는데 한바퀴가 완전하지 못해서 수레가 제 속도를 다 내지 못하는것처럼 사회에서 녀성들이 마땅히 놀아야 할 역할을 다 놀지 못하기때문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발전에 일정한 지애를 주는 처지에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중대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바쳐야 할것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며 녀성들을 믿음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의 방침대로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2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녀성운동과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맑스-레닌주의당과 로동계급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것을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인 남반부는 해방된지 24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밑에 놓여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겨레

들이 미제의 학정밑에서 갖은 천대와 모욕을 다 받고있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압박받고 천대받는 남조선형제들을 구원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하루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러한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각오와 공산주의적의식을 더욱 높여야 한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 어떻게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녀성들의 사상이 뒤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들이 적극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겠는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으로 볼 때에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있다.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여감에 따라 인민경제로력구성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초소들을 맡아나서고있다. 그러므로 녀성들의 사상의식과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건설자인 동시에 자녀들의 양육자이고 교양자이며 가정의 주부들이다.

그러므로 녀성들이 혁명화되여야 자녀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고 가정을 더잘 혁명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오늘 녀성동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각급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자기 활동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하며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수령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모든 활동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울수 있고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독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이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녀성들에게 주신 그이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수령의 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그를 자로 삼아 모든 문제를 재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 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혁명전통을 학습하여야 우리 당의 깊은 뿌리와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가 어디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으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녀성들은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고매한 풍모를 배워야 한다. 또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모두다 따라배우며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우리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하며 어떠한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편단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다.

우리 녀성들은 조선녀성혁명가의 귀감인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의 수령을 낳아키우신 강반석녀사는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였으며 자제분들을 위대한 혁명투사로 키우신 혁명가의 어머니였으며 열렬한 녀성혁명가이시였다.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남편 김형직선생과 자제분들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주시였을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혁명투쟁에 나서시여 조국의 광복과 우리 녀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참으로 강반석녀사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들의 전형적모범이시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투쟁의 시대, 벅찬 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거울처럼 비쳐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움으로써 일생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바치며 혁명을 위하여 사는 열렬한 녀성혁명가로,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로, 자제들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어머니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투쟁대상은 착취계급이 남겨놓은 개인주의, 리기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발생한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사회도 모르고 집단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리기주의사상은 다같이 잘 살자는 공산주의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혁명가로 될수 없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녀성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과 자기 가정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가정생활이나 안온하게 해나가려는 리기주의적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녀성들이 다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고 개인가정살림보다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을 가지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그들속에서 문화혁명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녀성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녀성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녀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늘 당보를 비롯하여 《조선녀성》, 《사회주의생활문화》와 같은 신문, 잡지들과 기술, 문화 서적들을 열심히 읽으며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정치지식과 과학지식으로 무장하며 자기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녀성들이 새 사회의 문명한 인간이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다운 면모를 갖출수 있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조직규률과 일상적인 비판, 위임분공수행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교양하는 힘있는 계기로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직의 엄격한 규률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책임성과 집단주의정신을 키워가며 자기 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하는것을 곁에서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결함을 고치고 사상적으로 단련되는것이다.

녀성들은 당생활을 비롯하여 녀맹생활 그밖에 여러가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체의 사상단련과 사상수양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하며 자유주의사상을 버리고 혁명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행하고

야 마는 높은 책임성을 끊임없이 배양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집단적로동속에서 단련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이며 집단로동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개조되며 발전한다.

녀성들은 집단적로동을 통해서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을 체득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여야만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배울수 없으며 점점 더 락후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면 집단생활을 하고 여러가지 모임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녀성들은 사상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소양을 높일수 있으며 서로돕고 이끄는 고상한 품성을 기를수 있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40페지)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단적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수도 없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격과 지위는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의 인격과 지위란 그야말로 보잘것없다. 녀성들이 가정에 묻혀있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남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인격을 존중해준다 하여도 실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편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녀성들은 가정에 들어앉아 남편의 덕에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을 버리고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사회생활과 집단적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에서 자기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녀맹조직들이 이야기모임, 노래보급, 책읽는 운동, 예술소조활동을 비롯한 녀성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널리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녀맹조직들은 특히 어머니학교를 잘 운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어머니학교는 녀성들을 교양하기 위한 좋은 근거지이며 중요한 거점이다. 녀맹조직들은 어머니학교를 단순히 우리글만 배워주는 곳으로 여기지 말고 녀성들을 혁명화하는데 잘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대중적학교이다. 그러므로 녀성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녀맹단체들은 녀성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천리마작업반의 대렬을 늘이며 모든 녀성들이 천리마기수의 대렬에 들어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

써 자신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전진함에 따라 우리 녀맹원들과 전체 녀성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주인답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 국가법령과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 국가계획을 반드시 완수 또는 초과완수하여야 할것이다.

녀성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하며 모두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창의고안과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을 널리 벌려 작업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다그치며 선진과학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나라의 기술혁명을 앞당기는데 녀성들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짧은 기간에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품종을 대대적으로 늘일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경공업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이 부문에서 일하는 로력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녀성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녀성들은 한메터의 천을 짜고 한개의 일용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다 인민을 위한것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제품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엄밀히 립각하여 알뜰하고 쓸모있고 보기 좋게 만들며 매개 제품마다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뜨거운 애국심이 깃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농촌 녀맹원들과 녀성들 앞에는 수령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촌녀성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자라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테제가 내놓은 과업들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농촌녀성들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작물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녀성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을 정보마다 500키로그람씩 더 내기 위한 운동과 매 작업반에서 고기 2~3톤, 매 농가에서 고기 100키로그람, 닭알 400~500알이상 생산하기 위한 운동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녀성들이 주동이 되여 돼지기르는 운동, 양치기운동, 닭기르는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가둑누에와 피마주누에 치기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이 운동에 로동자구녀성들을 비롯한 모든 녀성들이 광범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국가경제기관들과 교육, 문화, 보건부문에서 일하는 녀맹원들은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육교양하는 참다운 교사로 되여야 한다.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마음놓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다 내여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국가에서 보장하여

준 탁아소, 유치원들과 세탁소, 의복수리소, 밥공장을 비롯한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편의봉사시설들은 관리운영하는 사람도 녀성들이고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도 주로 녀성들이다. 결국 편의봉사시설의 주인은 우리 녀성들인것이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일하는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탁아소, 유치원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밥공장, 가족식당을 비롯하여 식료품가공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식료품가공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며 세탁소, 의복수리소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봉사의 질을 높여 더 많은 녀성들이 그것을 널리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가정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과 가정부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기능에 맞게 가내작업반과 부공장들에 적극 망라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녀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국가재산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는것입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33페지) 라고 교시하시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수령께서는 또다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녀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모든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적극 애호절약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국가에서 마련하여준 집과 가정비품들을 알뜰히 거두며 전기, 물, 석탄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한알의 쌀, 한오리의 실이라도 랑비하지 말며 쓸모있는 온갖 폐설물들을 적극 회수리용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녀성들은 귀중한 우리의 국토와 자원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마을, 자기의 도시를 아담하게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한뙈기의 땅도 비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둥뚝을 쌓고 강하천들을 정리하며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녀맹원들과 전체 녀성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활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뒤떨어진 생활 양식과 인습을 없애고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모두가 자기의 향토와 마을, 직장과 가정들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들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며 모두가 문명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들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장래운명과 우리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를 세워놓고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물려받을 후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지어는 사회가 점차 변질되여 혁명의 전취물을 상실할 위험까지 있다는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37페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서 녀성들은 누구보다도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다. 녀성들은 어린이들의 양육자이며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이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에게 걷는것과 말하는것, 옷입는것, 밥먹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문명한 인간으로서의 시초활동을 다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첫교양을 잘 주는가, 못주는가가 그들의 장래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에게 가정교양을 잘 주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교양하기 매우 헐하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도 잘할수 있다.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먼저 어머니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 어머니들자신이 일하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며 리기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아이들보고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교양하는데서는 말보다도 실천적모범이 앞서야 하며 말그대로 이신작칙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써 어린이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로동을 즐기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길러주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결정적인것도 녀성들의 노력이다.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깨끗이 거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그들이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다. 녀성들은 자기의 위생지식을 더욱 높이며 어린이들을 잘 거두는 운동,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널리 벌려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절대다수의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머니들과 함께 보육원, 교양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높이며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며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그러므로 녀성들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조국강토를 감히 침범하면 언제든지 용감하게 맞받아나가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각오를 높여야 하며 군사적 및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막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인민반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모든 인민반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한놈의 원쑤에게도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녀성동맹사업을 강화하며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녀맹단체들은 무엇보다도먼저 간부대렬을 비롯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녀맹단체들은 하나가 열을 움직이고 열이 백을 움직이고 백이 천을 움직이며 나아가서 전 조직을 움직이도록 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녀맹조직을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전투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녀맹단체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녀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녀맹단체들은 녀맹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고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야 하며 녀성들속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녀맹단체들은 조직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동맹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에 전체 녀성대중을 더욱 힘차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다음해에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25주년과 국제녀성운동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3.8국제부녀절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써 이 뜻깊은 명절들을 맞이하도록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

김 국 훈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네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날을 맞이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항상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으로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동방일각에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적들의 발악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켰다.

우리 당은 또한 당안에 둥지를 틀고 있던 반당종파분자들과 각종기회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철통같이 강화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며 맑스-레닌주의의순결성을 고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고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가진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와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당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은데서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　　　　*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

명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창건과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건설리론의 기초에는 일관하게 주체사상이 놓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전행정에서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당건설의 구체적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이 불패의 혁명대오로 되게 한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계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조성된 모든 난관을 뚫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제때에 당을 창건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 민주개혁을 통하여 변화된 근로대중의 처지와 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는 강철의 대오로 꾸리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전행정은 당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건설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수립할데 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당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명백히 밝힌 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은 당자체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상의지적통일에 기초하여서만 강화될수 있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은 당의 선두에 위대한 수령이 서계시고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일적인 산유기체로 움직일 때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당은 《구락부》와 같은것으

로 되고말것이며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한 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과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운동안에 기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허물어보려고 날뛰였으며 당이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자기들의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렬파괴책동을 일삼았다. 경험은 당안에 기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지 못할 때에는 당이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롱락물로 전락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당의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혁명투쟁에서 심장이시며 최고뇌수이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킬 때에만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반당적요소와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밝히신것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것으로서 혁명적당건설의 리론과 실천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가르쳐주신 당건설의 이 기본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당건설의 제일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각종 그릇된 사상경향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심대한 해독을 끼쳐온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각종 기회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당반혁명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내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이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그 어떤 사나운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세련된 당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건설의 조직적원칙들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가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철저하게 조직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1페지)

당이 전투적기능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이 유일한 혁명적규률에 의하여 강철같이 조직된 전투적부대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우리 당의 조직원칙으로 천명하시고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당을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자기의 조직과 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고 광범한 당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으며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그리고 온갖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을 없애고 지도에서의 통일성과 유일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의 기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이 기본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사업의 기본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창조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당건설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는 열쇠를 마련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의 본신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용광로를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광로를 움직이는 사람과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도 간부들과의 사업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내세우셨다. 간부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지휘성원이다.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을 핵심으로 하고 해방후에 새로 자라난 로동자, 빈농, 고농 출신간부들로써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부단히 보충하고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예군인 등 당의 핵심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간부들을 고착시키고 끊임없이 교양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간부대렬은 계급적원칙에서 튼튼히 꾸려지고 그의 질적구성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당의 전투적기능이 일층 높아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할데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을 강화한다는것은 매 로동당원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사업에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과 당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알고 개인의 리익을 이에 복종시키며 어느 때, 어느 곳,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당의 리익과 당의 원칙을 고수하며 일체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들과 타협없이 투쟁하며 당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의 규률을 철저히 지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러한 당원만이 당성이 있고 당성이 강한 당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당원들의 당성

파 당적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77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성의 본질과 당성단련의 구체적방도를 밝히심으로써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당과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 정치활동가로 키우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하는것을 모든 당조직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로 규정하시였다.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하도록 하는것은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등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당원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적분공을 주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당회의의 정치적수준을 높이고 당생활총화를 잘하도록 하는 등 끊임없는 지도를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핵심을 육성하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지침을 주시었다. 수령께서 내놓으신 당핵심을 키울데 대한 방침은 당원들사이에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객관적조건을 옳게 타산하시고 모든 당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길러내는 올바른 길을 뚜렷이 가르쳐준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다. 또한 그것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대중적정당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을 질적으로 빨리 공고발전시켜야 할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한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이 방침을 당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당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급속히 높이고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었으며 당대렬을 질적으로 튼튼히 다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당을 공고히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해야 하며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군중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당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군중을 동원해야만 혁명사업을 전개할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26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자체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우리 혁명발전의 매단계에 상응하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세우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지도하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혁명적대중단체건설의 기본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광범한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이 조직들을 발동시켜 당의 로선, 정책집행에 대중을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였

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견실한 기본군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도록 하심으로써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주되는 임무로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을 주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군중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웠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졌다.

이렇듯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둘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당사업의 대상과 본질, 사람과의 사업의 내용과 원칙,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당사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완성하시였으며 우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시였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당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한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당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부동한 초석으로 간직함으로써 자기 대오를 그 어떤 사나운 폭풍우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혁명적전위대로 더욱 튼튼히 다질것이다.

*　　　*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확고한 지침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 길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시고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혁명적당이 자체의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선결조건이며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발전의 모든 력사적단계들에 창조적이며 독창적으로 적용발전시킨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사상으로서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당적령도의 뚜렷한 방향과 기준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 지도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을 령도하여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 지도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하게 보장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고 그것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철저히 정치적령도로 되여야 하며 당적령도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당적령도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심화시킬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가르쳐주신 정치적령도원칙을 확고히 틀어쥠으로써 당적령도를 행정경제사업으로 대행하는 그릇된 경향을 단호히 물리치고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다. 우리 당은 당적령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적원칙성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령도해나갈수 있었다. 또한 우리 당은 당적령도에서의 군중로선의 원칙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과 의논하여 모든 문제를 풀며 그들의 자각성과 창조력을 끊임없이 발양시켜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발전하는 현실과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이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의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당적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 령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부문의 최고령도기관으로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지도통제하는 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1페지)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은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사업과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을 다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집체적령도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심화발전과정에서 나서는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수령께서 마련해주신 이 우월한 령도체계가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각급 당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튼튼히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집결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을 강화하고 큰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이 군당위원회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동시에 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적규모가 큰 군들에 중심군당위원회를 설치할데 대한 창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연한 당적령도체계를 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모든 독창적방침들이 관철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이 모두 당의 지도와 통제밑에 진행되게 되였으며 해당 부문과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일군은 당사업을 하고 행정경제일군은 행정경제사업을 하는 사업체계가 차고히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적지도와 행정경제기관의 창발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이 밀접히 결합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이 적극 발양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령도체계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령도체계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체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당적령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그에 적응한 과학적령도방법이 옳게 세워질 때 전면적으로 나타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방법으로서 키잡이리론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장과 행정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행정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이 다 앞에 나가서 노만 젓다보니 빨리 가는것 같지만 곧바로 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가기때문에 결국은 더디게 갈수밖에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39페지)

김일성동지의 키잡이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행정경제기관들의 창발적이며 독자적인 활동과 당적지도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당의 령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킨 창조적사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국가, 경제 기관들과 대중조직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키잡이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국가, 경제 기관들과 대중조직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이 리론에 의하여 당위원회와 행정경제기관,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 사이의 호상관계가 뚜렷이 밝혀지고 그들의 위치와 역할이 더욱 명백하게 규정되었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가장 우월한 령도방법을 전당에 확고히 세움으로써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거나 그 뒤꼬리를 따르는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뿌리뽑고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오늘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들에 사업방향을 주고 사업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그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299페지)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여오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생산자대중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고 일군들과 광범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철하도록 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고 완성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한집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화하며,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적사업을 추켜세우는 등 맑스-레닌주의적령도의 중요한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현한 가장 힘있고도 우월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령도방법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방법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당조직들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고 상하가 합심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적사업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렇듯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시고 그를 우리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하게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였기에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될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 그것은 곧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한데서 이루어진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하게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며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신념이며 의지이다.

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파악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곳곳이 나아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미제와 그 추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세차게 다그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더빨리 앞당겨야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이 놓여있다.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 당내에는 당의 이 유일한 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자—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구호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그이께서 직접 창건하시였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것을 최고사명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서의 응당한 의무이며 제일차적인 혁명과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며 그이의 영향력과 위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의 초보적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혁명적신조이며 행동준칙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과 교시,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근본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심오히 학습하여 깊이 체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자기의 대오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면서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리자

최근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세계 5대륙의 90개 나라들에서 온 114개 대표단들과 13개의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들, 모두 221명의 참가하에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세계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전례없이 격화되고있는 엄중한 시기에 5대륙의 진보적인 출판, 언론계의 참다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과업을 토의한것은 전세계 인민들과 진보적기자들의 반제반미투쟁력사에서 커다란 사변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준렬히 단죄하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울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지였으며 대회의 기본문건으로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반미세계기자대회의 개막회의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참석하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을 축하하여 연설을 하여주시였다. 이것은 대회참가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서는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인민들과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전투적과업들이 명시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하신 축하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악랄하게 교란하고있습니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과 령토를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가림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은 더욱 격화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존재자체를 무엇보다

도 두려워하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들과 침략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전면전쟁과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있다.

미제는 큰 나라들에 대해서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나라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부월남에 제놈들의 수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15년간이나 남부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50여만에 이르는 방대한 제놈들의 침략군과 수많은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남부월남에 끌어들이고 각종 대량살륙무기를 비롯한 막대한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남부월남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있으며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의 령토 관따나모를 계속 강점하고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무서워하며 혁명적꾸바를 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고 악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미제는 저들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남조선에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물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등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지상, 공중, 해상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새 전쟁 도발책동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야수적인 파쑈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저들의 전쟁정책에 완전히 복종시키고있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정세가 매우 긴장되여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위험한 긴장상태의 근원이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오늘의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있는 근본원인이다.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고 날뛰고있는 흉악한 미제는 인민들속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면서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치사상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이른바 《평화전략》은 놈들의 군사전략의 연장이며 그 보충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사회주의나라들을 파괴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미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무장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가장 파렴치한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으며 캄보쟈의 령토완정을 유린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계속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주군으로 등장하고있으며 강도적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부추겨 아랍인

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광대한 아랍땅을 강점케 하였으며 령토완정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 새생활창조를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아프리카에서도 구식민주의자들에게 돈과 무기를 대주어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 앙골라 등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의 온갖 혁명적진출을 가장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교형리, 인민들의 고혈을 무제한하게 빨아먹는 흡혈귀로 되고있다. 놈들은 꾸바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여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베네수엘라, 과떼말라, 꼴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교살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전략적자원을 독점하고 매해 수십억딸라를 수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침략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최근년간에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과 전복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놈들은 각종 기만적구호를 들고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우익반동들을 매수하고 긁어모아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빈번히 조작하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려고 획책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반동적군사정변은 그 어느 하나도 미제의 음모책동과 련관되여있지 않는것이 없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는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가혹하게 략탈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놈들은 또한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미명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데 세계의 모든 반동세력을 끌어들이면서 특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를, 구라파에서는 서독군국주의를, 중근동에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피에 굶주린 이 흉악한 원쑤들은 모두다 미제의 품속에서 되살아나고 자라난 인류의 극악한 원쑤들로서 아세아와 구라파, 중근동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협정》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결탁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나서고있다. 놈들은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적으로 실시하고있으며 《원조》, 《개발》, 《협조》 등 간판을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내려고 책동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며 세계인민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제국주의세력은 그 모두가 이러저러하게 미제에게 종속되여있고 미제와의 결탁밑에 대외침략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사실상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잔명을 유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그 어떤 반제투쟁도 반드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여야 하며 사실상 오늘 반미투쟁은 반제투쟁의 중심과업으로, 기본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미제를 고립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 때려부심으로써만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체계전반을 붕괴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현정세는 5대륙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현대의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평화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으며 더구나 민족적해방과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으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반제력량은 반드시 미제를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삼고 그를 반대하는데 창끝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력량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전략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진공적인 전략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인민들의 선차적인 혁명과업인 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사면팔방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며 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의 광범한 반제반미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뿐만아니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세계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함께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도 반제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을 강력히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종주국의 로동계급은 자기들을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상으로 중독시키며 로동계급의 전투적대오를 분렬와해

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간계를 철저히 깃부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통치를 뒤집어엎으며 자기자신의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이며 마지막지탱점이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스스로 식민지에서 물러간 실례를 모른다. 놈들은 선대로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

식민지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고도 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낼수 있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 조약과 협정들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며 그것은 철저한 반제투쟁과 결합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에서 국제민주운동과 평화애호운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더욱 줄기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놈들의 음흉한 세계전략에 따라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신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뜨는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방침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함께 달라붙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의 왼팔과 바른팔을 뜯어내고 왼다리와 바른다리를 뜯어내며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국주의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은 녹아나고말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의 투쟁전략은 우리 시대의 특징 그리고 세계반제혁명력량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평가와 쇠퇴몰락하는 미제의 력사적지위와 그 취약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전략이다. 이 전략의 혁명성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 모든 곳을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전환시켜 사면팔방으로부터 미제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 숨통을 끊어버리며 매 전선에서 인민들이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를 매리부시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은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

문제는 반제반미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 자기의 주체적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꾸리는가에 달려있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숭미》, 《공미》 사상과 큰 나라만 쳐다보는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없애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죽을지언정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는 되지 않는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싸운다면 반제반미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선전쟁의 경험이 이 진리를 보여주었

으며 꾸바혁명의 승리와 윁남인민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항전이 또한 이 진리를 훌륭히 확증하여주고있다.

더우기 미제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기 시작한 오늘 반제반미적립장을 견지하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를 때려눕힐수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반제반미력량의 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적요구이다.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력량, 민주주의력량 및 평화애호력량 등 모든 반제력량은 하나의 기치밑에 단합하여야 하며 단합된 력량으로써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세력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에게 더욱 강한 타격을 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그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 그리고 미제의 앞잡이로 복무하는 모든 반동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돌격대》로 복무하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미제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며 놈들의 목을 졸라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세계도처에서 더욱더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세력과 모든 반동세력은 멸망의 운명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그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2페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날로 확대발전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예봉은 모든 지역에서 점차 미제를 반대하는데 더욱더 돌려지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을 일층 강화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팔다리를 뜯고 머리를 잘라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싸워나가는 조선인민은 아세아에서 미제를 때려부시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다.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달려든다면 단매에 능뼈를 분질러놓고야말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은 불가피하다. 미제침략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미쳐날뛰지만 그것은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여줄뿐이다.

미제국주의는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력량, 세계의 장성하는 광범한 반제력량의 더욱더 드센 타격을 받아 마침내 멸망하고야말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혁명위업은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 ※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기자들 앞에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는 엄숙한 시기에 소집된 반미세계기자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이번 회의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세계진보적기자들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을 반제반미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공동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12페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기자들의 반제반미투쟁력사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되는 반미세계기자대회는 인류의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폭탄으로 될것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축하연설에서 진보적기자들이 혁명투쟁에서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그들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진사상의 소유자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온갖 부정의와 사회악을 불사르는 진보적기자들은 예리한 필봉으로 미제의 죄행을 단죄하고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넓게 신랄히 폭로함으로써 전세계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결전에 용감히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은 미제의 간악한 반동적사상문화적공세를 단호히 물리치고 인민들을 《숭미》, 《공미》, 대미의존 사상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정력적인 문필활동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것은 오늘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진보적기자들은 항상 싸우는 인민들과 같이 숨쉬고 같이 생각하여야 하며 자기가 쓰는 글이 미제의 죄행을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진보적기자들의 국제적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그 숭고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진보적기자들은 하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튼튼히 단결함으로써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효과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은 세계진보적기자들의 혁명적문필활동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회의에 참가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기자들은 일치하게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을 자기들의 《귀중한 교과서》, 《혁명적기자들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진보적기자들은 자기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전투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을 촉진하는데 더욱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근로자 제10호 (루계 33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10월 1일　　발 행 • 1969년 10월 5일
ㄱ—93419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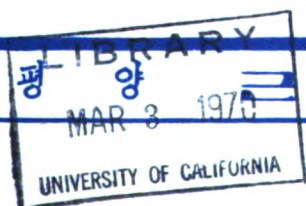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 (332)

차 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 방법을 따라배우자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탁월한 령도방법을 견지하여오시였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고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을 철옹성같이 공고히 하며 우리 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강력한 요인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가장 철저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집중적발현이다. 이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요구들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령도방법의 전형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며 그 진수를 깊이 체득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할 때 일군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 잘 인식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개선하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　　*

현지지도방법,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의 폭풍속에서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통적인 령도방법이며 우리 혁명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 지하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온갖 시련과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조선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몸소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고 혁명조직들에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에 일떠세우기 위한 눈부신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운동을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여러부대들과 광범한 혁명적군중들 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세심히 지도하시고 보살펴주시었다.

조국해방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견지하신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끈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건하고 공고히 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전통적인 현지지도방법

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개선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에도 들리시기전에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였으며 여러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로동자, 농민들의 앞길을 태양처럼 밝게 비쳐주시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거세찬 투쟁에로 인도하시였다.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승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전선의 고지들과 후방의 공장, 농촌들을 찾으시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고 지도하시였으며 그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하시였다.

전후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전국의 모든 지방,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쉬임없이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전후시기만 하여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나라의 공장과 광산, 농장과 어촌을 몸소 찾으신 그 길이 몇천, 몇만리이며 그이께서 로동자,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신것이 그 얼마인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실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느 곳 할것없이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그이의 발길이 닿는 모든곳에서 혁명적인 앙양과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 반석같이 다져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 등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혁과 우리 인민이 쟁취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현지지도와 떼여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현지지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를 인민이 살며 투쟁하는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심으로써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하부실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선집》, 제4권, 546～547페지)

김일성동지의 모든 현지지도과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발전의 구체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현실을 통하여 깊이 통찰하시는 과정이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추진시키고 인민들에게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 새로운 현명한 방침들을 구상하시는 과정이였다. 현지지도방법은 바로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단위, 전국의 매개 지방의 생동한 현실속에서 혁명발전의 현실적 및 전망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통찰하시고 대중의 풍부한 투쟁경험을 포착하시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현명한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농업협동화를 비롯한 사회주의혁명수행을 위한 모든 방침을 작성하심에 있어

서 항상 이 현명한 령도방법을 적용하시였으며 또한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을 건설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들도,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도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방침이 항상 정확하며 백전백승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당정책과 대중의 생활을 결합시키고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자각적열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인도하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1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령도의 이 근본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한 사업방법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는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하신 이러한 사업방법의 불패의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1956년의 강선제강소에 대한 현지지도, 새로운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더욱 앙양시키신 1967년의 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당의 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령도방법의 전형적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내외의 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어려운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고 그들이 일하는 현지에 내려가시여 그들의 힘과 지혜를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로 조직동원하신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한점에서 일어난 불길을 일반화하여 전국을 혁명적정열과 창조적적극성이 약동하는 일대 혁명적고조에로 이끌어가신다.

다음으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푸는 전형을 창조하고 모든 일군들을 실천적모범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가장 세련된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은 현지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 고리를 틀고 그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162페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청산리 및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 인민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대안과 숙천에 대한 현지지도 그리고 산간지대농촌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길을 가리켜준 창성군에 대한 체계적인 현지지도 등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혁명발전이 제기한 성숙된 요구를 푸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는 과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전형을 창조하시고는 그를 일반화하여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인 긴절한 문제를 가장 철저히, 가장 짧은 기간내에 훌륭히 해결하시였으며 그리하여 전반적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추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구체적인 단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포치한 사업의 정당성을 검증하시고 그 지도경험에 기초하여 전반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우리 혁명

과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렇듯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위대한 지도방법, 현지지도방법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은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 이것은 혁명의 리익을 최고의 리익으로 삼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그이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신장이시며 최고뇌수이시다. 그이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작성하시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 총체와 우리 당과 국가의 대내외활동전반을 친히 령도하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우리 혁명을 더 빨리 전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현지에서 세심히 지도하시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신다. 이것은 오직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주야로 심려하시는 우리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 이것은 또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인민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는 자애롭고 영명하신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광명한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고가기 위한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리익을 전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령도하실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이 어떻게 살고있으며 그들에게 요구되는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다.

이것은 오직 우리 혁명을 령도하신 첫시기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과 일심동체가 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오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탁월한 령도방법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이 이와 같이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언제나 몸가까이 받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휘황한 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무한히 행복하고 자랑찬 인민이다.

*　　　*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시켜나가야 할 혁명적지도방법이며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의 산교범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서로 다른 조건과 정황에 맞게 혁명적사업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방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였으며 실정을 료해하는 방법, 정치사업을 하는 방법, 아래를 실속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부터 지도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절차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실천적모범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하실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아래실정을 정확히 료해분석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것인데 이것은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30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과정을 통하여 아래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료해장악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실정료해방법의 생동한 모범을 우리는 1960년 2월 청산리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에서 찾아볼수 있다.

력사적인 청산리현지지도를 몸소 시작하신 그이께서는 먼저 농장원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시는 사업부터 진행하시였으며 리내의 초급간부들 및 핵심당원들과 여러차례에 걸치는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고 미리 파견하였던 지도성원들의 보고도 구체적으로 받으시었다. 이리하여 일반적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리당산하의 초급당조직들의 핵심당원들과의 담화, 리사업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는 군사업의 료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시였으며 모든 자료들을 재삼 확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과정에서 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직접 담화를 나누신 일군들과 핵심당원들만 하여도 무려 60여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그이께서 하나의 크지 않은 리사업을 정확하게 료해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셨는가를 보여준다. 그이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리내 농장원들의 살림형편과 일군들의 경력, 지식정도, 성격, 취미 등으로부터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능력, 협동농장의 생산형편과 관리운영정형, 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간부들의 사업정형 등 모든 문제를 환히 료해하시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이께서는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근본결함과 결린 문제를 포착하시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대책까지도 미리 구상하시였다.

아래실정에 대한 이렇듯 세심하고 체계적인 료해는 청산리에 대한 지도에서뿐만아니라 모든 현지지도에서 그이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사업방법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아래실정을 있는 그대로 료해하시고는 그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며 그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한 지도대책과 방침들을 제시하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정확한 해결방도를 찾는 방법과 함께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정치사업방법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강선제강소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에서 찾아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창고로 쓰자고 지은 집에 로동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매우 어렵다, 미국놈들은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쳐들어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들어올는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종파를 내밀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와 한짝이 되여 우리를 내려누르려고 한다, 우리 나라 종파놈들은 제각기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을 반대하고있으며 리승만은 미국을 믿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락심해있으면 되겠는가, 형편이 이처럼 어려울수록 우리가 용기를 내여 일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것을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9~4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언제나 대중속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내외형편, 당앞에 나서는 긴절한 임무들을 깊이

인식시키고 로동계급과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는데 정치사업의 중요한 화력을 돌리신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알기쉽게 해석하여주시며 당이 무엇때문에 그러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았는가,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등을 모든 근로자들이 완전히 파악하고 당정책관철에 의식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치사업은 반드시 때와 장소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다. 《황철은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이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등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전투적구호들은 그 단위, 그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책임감과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야 말 일념으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진행하신 이러한 정치사업은 언제나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당내부사업과 당조직정치사업을 항상 그 부문, 그 단위 앞에 제기된 경제과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지도하시였으며 경제과업을 푸는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가 최대한 발양되게 정치사상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또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그에 경제기술적인 사업도 따라세워 정치사업의 성과가 위대한 열매를 맺게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범은 모든 일군들이 지도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를 실천적으로 가르쳐주는 생동한 교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의 원칙을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사업에서 어떻게 관철할것인가에 대한 실천적모범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8월 황해제철소에 대한 현지지도에서는 철생산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1960년 2월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는 농사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모든 현지지도과정에서 그 부문, 단위의 위치와 사명, 당이 맡겨준 기본임무와 그 수행정형, 준비된 력량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명확히 규정하여주시며 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사업전반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현명한 방도를 가르쳐주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매개 부문, 단위의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규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대중의 지혜에 튼튼히 의거할것을 가르치시고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황해제철소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중심고리를 규정하신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당원들, 로동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것이 똑똑하게 밝혀졌습니다. 로동자들은 일이 잘 안되는 원인을 밖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동력직장 일군들을 다 다른 건설사업에 돌리고 평로의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것, 가스가 모자라는데 쓸데없이 로만 많이 돌리기때문에 강철생산이 잘 안된다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엄중한 결함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황해제철소의 결함을 똑똑히 알고 고칠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65~3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현지지도를 하실 때마다 그곳 지도일군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을 종합하여 로력, 설비, 원료, 자재 등 모든 형편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모든 고리들의 호상 의존성과 선후차를 밝혀내시며 결

려있는 문제를 찾아내신다음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고리, 중심고리를 규정하신다. 또한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제기된 과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가장 적극적이고도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주신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전략전술의 원칙을 구체적단위의 사업에서 구현하는 이러한 실천적모범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따라배워야 할 가장 훌륭한 본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서 특히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 주는 가장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래를 지도하는 목적은 아래에 내려가 일을 도와주며 결함이 있으면 고쳐주고 모르는것은 가르쳐주며 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지도대상에 맞게 당내부사업, 경제사업, 근로단체사업, 교육문화사업, 군사사업, 사회안전사업 등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걸린 매듭들을 손수 풀어주시면서 아래일군들을 도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매개 부문, 단위들의 사업을 도와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사업방법을 고쳐주는데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 대한 현지지도 경험을 개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성군의 경험은 군내의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기본이 군당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든지 못할일이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정책을 군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 대한 체계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사상적각오를 높여주고 그들이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에서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동시에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당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일떠세우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지도일군들의 책임적역할을 높이고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시면서 그들의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물질적조건도 보장하여주신다. 이것은 그이께서 모든 부문과 단위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한개 단위를 지도하시고는 그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반복지도하심으로써 아래일군들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청산리와 강선, 대안과 창성 등 수많은 실례를 통하여 그이의 이러한 세심하고 따뜻한 지도의 모범을 찾아볼수 있다. 온 나라의 모든 사업을 한몸에 맡으신 수령께서 장수원협동농장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단위만 하여도 전후시기에 90여차례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심려하고 계시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전과정은 우리 일군들을 친히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막힌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두다 훌륭히 일하는 혁명전사로 키워주는 참다운 교육교양의 과정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모범은 이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아래를 지도할 때 지도성원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준비시키며, 지도성원들이 지도받는 해당단위의 당조직에 속하여 어떻게 생활하며 방식상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여야 하는가 등 아래를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

신 실천적모범에서 배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주신 이 모든 지도방법은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고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실태를 료해하는 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결합하는 방법,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을 밀고나가는 방법,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 등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창조하신 지도방법의 모든 모범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도방법은 바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이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혁명적군중로선과 군중관점에 철저히 립각하고있음으로 하여 또한 가장 철저한 인민적사업방법으로 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에 맞게 모든것을 푸는 인민적사업방법의 전형으로 된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육친적배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의 근저에 흐르고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현지지도행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지도방법은 또한 철저한 과학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지도방법의 전형이다. 이것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에 기초하여 창조된것이며 그것을 지도사업의 모든 분야에 직접 구현한것이다. 여기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리론과 당사업원칙이 심오히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이 모든 방법들은 언제나 정확하며 백전백승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의 과학성은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은 철저한 혁명성과 인민성, 과학성으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세련되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방법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심오히 연구하고 생활에 옳게 구현할 때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사업에서 새롭고 더욱 큰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이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체득하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모든 현지지도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따라배움으로써 청산리방법을 더욱 심오히 체득하고 자기의 사업에서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단순히 일군들의 사업상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수령의 현지지도방법을 체득할수 있으며 실천활동에 구현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매 시기 그이께서 주신 교시와 현지교시들을 심오히 학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당사업과 당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들, 청산리와 강서군당에서 하신 교시, 리현리와 대안전기공장에서 하신 교시를 비롯하여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고칠데 대한 그이의 모든 교시들을 깊이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자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의 교시, 당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일하며 그것을 자막대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와 배치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령의 교시,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지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지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줄수 있도록 자기의 기술실무수준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사업방법을 체득한 수령의 참된 전사로, 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는 그들의 충복으로 되여야 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실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가 무겁고 방대하며 우리의 투쟁이 간고하고 복잡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현지지도방법을 체득하고 구현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빛나는 혁명전통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으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거기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불멸의 투쟁업적과 매우 풍부한 투쟁경험이 포괄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설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음으로 하여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교양을 일층 심화시켜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모두다 자각적인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그리고 장기적이고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이다. 이 위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참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키워야만 혁명투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의 혁명대렬은 수많은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다. 이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근본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공산주의투사로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혁명화의 힘있는 수단인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근로자들뿐만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후대들을 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어떤 풍파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가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워야 한다.

1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의 젊은 후대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전통을 연구하여 자신을 혁명화하지 않고는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가가 되지 않고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로동계급과 그 당이 힘있는 교양수단을 가지는것이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을 가질 때에만 로동계급과 그 당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바로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훌륭한 교양수단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이 혁명화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혁명화의 근본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이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작용하는것은 그 혁명전통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당의 유일사상을 창시한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 이룩된다는대 근거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조선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이력사적뿌리를 키우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조국을 오늘의 륭성발전에로 이끌어오신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할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사상체계를 훌륭히 계승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초석을 이루며 그것을 일관하고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고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수령의 혁명활동을 체계적으로 따라배워야 하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 정당성이 여실히 확증된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힘있게 작용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여기에서 주체사상의 리론적기초를 정확히 인식시킬뿐만아니라 수령의 혁명력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가적원칙성, 조선혁명에 대한 무한히 높은 책임성과 강의한 혁명가적의

지, 명도의 혁명성을 생동한 사실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주체사상의 진수를 심장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하며 수령께서 이룩하신 사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계승할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하는것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항상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생동한 사실을 통하여 직접 본받을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탁월한 수령이시라는 신념을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자신의 뼈와 살로 깊이 체득한 혁명투사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제나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그 명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목숨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간직하고있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의 진수를 이루며 그들의 사상과 심장 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장 고귀한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적립장과 실천적모범을 본받아 생활에 옮길 때 우리는 자신을 수령의 참된 전사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견결한 혁명투사로 더 잘 준비할수 있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또한 혁명을 끝까지 견결히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이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의 모범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

근로자들을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는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은 혁명화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아는것만으로는 혁명화될수 없다. 진실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한 견결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혁명리론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어떤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군들은 대부분이 지난날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다. 또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런 사정은 근로자들을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항일빨찌산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본보기로 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엄혹한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을 항상 필승불패의 혁명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이 비록 간고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시였으며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하에서, 혁명투쟁에 필요한 크고작은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했던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걸음마다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역경속에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혁명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헤아릴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언제나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투쟁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만난을 극복해나갔다. 바로 이러한 확신과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싸워이길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이룩하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혁명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진수를 이루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이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두고두고 사람들을 혁명적위훈에로 고무하며 혁명적인 투쟁정신을 길러준다. 그것은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실지 혁명한 사람과 같이 만드는 귀중한 량식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진수를 이룩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진행정에서 빛나게 구현하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생동한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스스로 느끼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된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고결한 혁명가적품성을 따라배우게 된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 혁명가적품성은 철저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철저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든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전과정에서 훌륭히 발현되였다. 그것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서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하는 원칙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사업에서의 결함과 온갖 비계급적 또는 적대적경향에 대한 비타협성으로 표현되였다. 그것은 특히 혁명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유격대원들의 고결한 혁명가적품성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에 의하여 키워짐으로써 비할바 없이 굳건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의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몸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고수하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그리하여 수령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유격대원들속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혁명가의 지조와 강의한 의지, 조직과 혁명동지를 위하여 어려운 고비에서 자기를 희생할줄 아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과 원칙적단결의 정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 등의 고결한 품성을 낳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는 경우에도 결코 자기 혼자나 잘 먹고 잘 사는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리기주의, 개인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발로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아서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잘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데서 최대의 기쁨을 느꼈고 바로 거기에서 참다운 삶을 찾았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은 버려도 정치적생명은 더럽힐수 없다》는것이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되였으며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그 진수를 이룩하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또한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의 리익을 끝까지 고수하는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낳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이러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낡은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는 동시에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일군들이 혁명가적습성을 가지며 당적사업작풍을 가져야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당을 믿고 사랑하며 당을 따라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일군들의 훌륭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며 대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데 있어서 결정적고리로 된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도 없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낼수도 없다.

이러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전통은 오직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여 싸운 항일무장투쟁시기 가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처음으로 이룩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고 그것이 오늘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근본원칙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확고한 기초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구현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본받으며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발현된 혁명적군중관점을 옳게 배움으로써 공산주의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은 참다운 혁명가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복무하는것은 그것이 또한 매우 풍부한 투쟁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직접 가르쳐준다는데 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혁명투쟁의 훌륭한 경험과 방법을 소유함으로써만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능숙하게 뚫고나갈수 있는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투쟁경험과 방법은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종 형태의 투쟁에서의 경험과 방법을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은 단순한 군사활동에만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의 정치경제투쟁과 밀접히 결부된 투쟁이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투쟁, 인민정권수립과 대중단체건설, 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오랜 기간 적과 맞서 유격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경험, 군중속에서의 선전사업, 각계각층군중들과의 통일전선사업, 유격대의 조직과 부대내의 사상정치사업, 적군와해사업, 반간첩투쟁과 반민생단투쟁 등 실로 혁명투쟁에 필요한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이 쌓아졌으며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이 마련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 투쟁경험은 우리 사람들을 혁명화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난관을 뚫고나아갈수 있는 투쟁방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투쟁방법을 배우는것은 계급투쟁리론과 혁명의 전략전술을 더욱 깊이 있게 습득하며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투쟁과정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뚫고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의지와 함께 투쟁의 무기 즉 혁명의 전략전술적원칙들과 투쟁방법을 체득하며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적원칙들이 구현되여있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과 방법을 따라배우며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그처럼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함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서 그처럼 큰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그것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태양과 같이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험난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위대한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조선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근본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으며 조국해방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매단계에 걸쳐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조선인민에게 오늘의 행복과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으로, 4천만 조선인민의 태양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탁월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그리고 세계혁명위업에 바치신 위대한 업적과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이처럼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이룩된 혁명전통임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처럼 감동시킨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세계혁명력사에서 그 류례가 없는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가장 숭고한 사명을 실현하는 투쟁속에서 이루어진 고귀한 모든것이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생동한 사실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위한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있을뿐아니라 그 모든것이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자체를 무장하려는 정열로 불타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스스

로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흥분하며 감동하는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쥐기때문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며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를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의 혁명화를 더욱 촉진시킬것이다.

2

우리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인 혁명전통교양을 전면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단체들은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1페지)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체계와 령도의 현명성,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담겨져있는 모든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전통의 진수를 이루며 그 근본으로 된다. 수령의 혁명활동을 체계적으로 따라배움으로써만 우리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할수 있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 그리고 오늘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뿌리에서 키워졌는가를 깊이 인식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초기혁명활동,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전일체로서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수령께서 혁명사상을 키우신 혁명적가정, 그것은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혁명적가정의 본보기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온가족, 온일가가 혁명의 씨앗을 뿌려온 위대한 혁명적가정이였다. 수령의 혁명적가정은 당대사회의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을 심각히 체현한 식민지피압박인민의 전형적가정이였다.

수령께서 위대한 혁명사상과 계급적의식을 키우신 이 가정에서는 한시도 혁명투쟁이 중단된적이 없었고 혁명적풍랑과 시련이 떠나본적이 없었다. 우리는 수령의 혁명적가정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함이 없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적기풍,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드높은 투쟁정신,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배워야 한다.

혁명적가정과 더불어 초기혁명활동시기의 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초기혁명활동시기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수립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항일무장투쟁의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적력량과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신 시기이다. 이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리론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시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선행시기의 혁명운동의 교훈을 심각히 분석하신데 기초하

시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명백히 규정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로선과 통일전선로선, 그리고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대중적지반을 꾸리는데 온갖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에 실로 다양한 활동무대에서 각이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시였으며 각종 투쟁조직들을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각이한 부류의 활동가들과 접촉하시고 그들의 그릇된 로선과 주장을 신랄히 비판하시였으며 특히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 기여든 종파분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이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높은 덕성과 풍모,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원형을 이룩하시였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으시였다.

우리는 이 시기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신 경험과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대중을 혁명화하며 혁명의 핵심골간을 꾸리는데서 이룩한 귀중한 투쟁경험을 배우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신 김일성동지의 공산주의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고매한 덕성과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고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신 위대한 력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의 지도사상과 혁명로선을 확립하시였으며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의 진수를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우리 나라에서의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심으로써 조국해방의 위대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해결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 천재적인 군사리론과 독창적인 유격전술을 창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혁명의 가일층의 발전과 종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을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자들의 대중지도에서 필수적요구로 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 이 투쟁에서 이룩된 불후의 혁명적업적들에 깃들어있는 모든 고귀한 전통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매한 덕성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건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가장 정확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적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거기에 뿌리를 둔 우리 당이 있고 조선혁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더욱 실속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소설보듯이 흥미거리로 읽을것이 아니라 그안에 담겨져있는 혁명정신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회상기학습을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와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거기에 구현되여있는 수령의 고매한 덕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옳게 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수령의 령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그들의 애국적헌신성의 산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들은 그것을 옳게 배움으로써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오직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견결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교양사업의 거점이다.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강의와 토론, 연구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배합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그 질적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연구실강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강의와 해설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각급 당조직들은 구체적인 계획밑에 혁명전통과 관련되는 의의깊은 기념일을 계기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등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사상단련, 사상수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혁명전통교양이 실지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에 의한 혁명적골간의 육성

오 백 룡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건설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골간으로 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 혁명적골간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이며 현명한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 창건의 조직적준비를 튼튼히 마련하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시였으며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간고하고도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 대렬을 확대하시면서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필승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골간을 키우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이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혁명적골간을 튼튼히 꾸릴것을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이것은 그이께서 선행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당면한 요구와 장래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한 위대한 방침이였다.

튼튼한 혁명적골간을 꾸릴데 대한 문제는 수난에 찬 우리 인민의 초기반일혁명운동과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에 기초하여 제기된 절박한 요구의 하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당면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긴절한 문제였다.

특히 혁명적골간을 육성하는 문제는 당창건을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당창건은 이미 있는 공산주의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성의 공산주의자들을 결속하는것만으로써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그것은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대렬의 본질적약점과 관련되여있었다.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로 혁명적골간을 마련함으로써만 견고한 지반우에서 당을 창건하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당창건과 우리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선행시기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우리 혁명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아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당을 창건하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혁명적골간을 키우는 문제를 가장 선차적인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육성확대하는것이다. 실제투쟁에서 세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든지간에 이들을 골간으로 하여 그 주위에 혁명군중을 튼튼히 집결시킨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도 있으며 제기된 복잡한 혁명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할수도 있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혁명적골간을 키워야만 당창건을 준비할수 있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었다.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도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사업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그를 중심으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아가는 문제도 다 혁명적골간이 없이는 해결될수 없었다. 또한 혁명적골간은 꾸림으로써만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실로 혁명적골간을 키우는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여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관건적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골간육성문제를 조선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신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함께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할뿐아니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익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혁명적골간육성문제를 당면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전진을 위해서뿐아니라 해방된 새 조국 건설을 예견성있게 준비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근본문제로 인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매개 전사들과 지휘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의식수준을 높이며 풍부한 군사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대사변을 영접하게 되든가 또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조직동원시키자면 혁명적리론으로 무장한 우수한 간부들이 대량 요구된다.

혁명적리론을 소유한 우수한 간부가 없이는 혁명운동을 정확한 로선에서 실천할수 없다는것도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민족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새 조국 건설의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천재적인 예견성에 기초한것이였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

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 및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아갈수 있는 혁명적골간들을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적골간으로 키워야 하였다.

전체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혁명적골간으로 키워야만 결정적시기에는 한사람이 수천수만의 군중을 각성시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며 한사람이 수백수천의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하여 일제침략자들을 일거에 소탕하고 민족적해방을 달성할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유격대원들을 혁명적골간으로 꾸려야만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당, 인민정권, 인민무력, 근로단체들을 창건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새 조국 건설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혁명적골간육성문제를 조선혁명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행정에서 그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를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혁명적골간을 키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독창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근본적문제들을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골간육성문제를 처음으로 혁명의 필수적요구로, 선결조건으로 제기하시였다.

혁명적골간들은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가장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핵심부대이다.

혁명적골간은 위대한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칠 확고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실천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참된 공산주의자들로 이루어진다.

혁명적골간육성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되는것은 수령의 령도밑에 그들이 노는 혁명적역할과 관련된다.

혁명적골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 기둥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다. 로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은 무엇보다 그 골간이 튼튼하여야 제때에 창건되고 급속히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주위에 결속하여 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혁명적골간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당을 공고발전시키며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키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수령과 당의 주위에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아가며 원쑤를 고립시키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혁명적골간들은 또한 수령의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지휘성원들이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수령의 혁명로선과 방침을 대중속에 침투시키고 그것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한다.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수령의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싸우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는 혁명적골간을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밀고나아가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와 같이 혁명적골간들을 튼튼히 구

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며 우리 당을 건설하고 혁명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는데도 거대한 기여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아갈 세련된 혁명적골간들을 키우시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조선혁명의 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항일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들을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혁명위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가장 선차적문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확고히 세운 사람만이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로,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혁명의 길에서 싸우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간주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키는 불요불굴의 혁명가로 될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 당 창건의 준비사업에서 핵심이 되며 군중을 수령의 주위에 결속하는 정치활동가로 되며 독자적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었다.

항일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실로 그들을 수령의 참된 친위대, 결사대, 혁명의 핵심부대로 키우는 선결조건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적골간들을 키움에 있어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정확한 계급로선과 계급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승리의 기본담보이다.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특히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사람들로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그들이 참으로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확고한 계급적립장에서 혁명적골간을 키우시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새로운 혁명가들을 교양육성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가장 원칙적이며 정당한 골간육성의 방침이였다.

오직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선발되고 육성된 혁명적골간부대만이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신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참다운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실천투쟁속에서 혁명가들을 검열하고 단련시킴으로써 혁명적골간부대를 꾸려나가는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다. 혁명적실천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자라야 혁명투쟁에서 골간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원쑤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지하공작도 해보고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 온갖 난관과 죽음의 고비를 뚫고나아가면서 단련되고 세련된 사람이라야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혁명의 핵심부대로 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과 적통치구역에서의 지하공작은 반일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혁명성을 검열하며 그들을 혁명적골간으로 키우는 가장 훌륭한 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혁명적방침들에 기초하시여 우선 손에 무장을 잡고 투쟁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을 원쑤를 무찌르는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와 당조직 및 공청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서의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믿음직한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는 과정에는 또한 그이의 높은 덕성이 안받침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아갈 귀중한 밑천으로 여기시며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언제나 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사랑하시였으며 생활과 투쟁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면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혁명적골간으로 키워주셨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육성된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그이의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움으로써 원쑤와 용감히 싸우는 견결한 전투원으로뿐아니라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인민대중을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로, 앞으로 창건할 당, 인민정권, 인민무력 그리고 근로단체들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학습과 실천투쟁 속에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는것을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골간육성의 기본방도로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는것을 위주로 하시면서 각종 혁명조직을 통하여 그 성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시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다만 항일무장대오와 공산주의조직들을 통해서만 양성해내는것으로 만족할수는 없다. 우리는 반일통일전선로선을 견지하며 국내외의 광범한 혁명력량을 각종 반일혁명조직들에 단합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자들로 육성해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견지하신 혁명적골간육성의 확고한 지침이였으며 특히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는 조건에서 유격대내에서만아니라 전국각지에서 급속한 시일내에 더 많은 혁명적골간들을 키워내야 하였던 당시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청소년학생들과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혁명활동을 조직전개하시면서 《타도제국주의동맹》, 《새날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각종 반일혁명조직들을 통하여 그 조직성원들을 조선혁명의 핵심적골간으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반일혁명조직들을 통하여서와 각 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을 통하여 혁명군중들속에서 핵심을 장악하고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혁명조직성원들은 적들의 상시적인 감시와 경계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무한히 고무되여 그이의 전사된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면서 수령의 가르치심을 실현하는 길에서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담하고 림기응변한 기략으로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과 유격대원호사업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그 과정에서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우수한 유격대원들을 장백지구에 파견하시여 불과 수개월동안에 이 지대 주민의 거의 전부를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망라시켰으며 그들중 핵심분자들로 현당위원회까지 내오게 한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분산된 공산주의자들을 집결시키고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시는데도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가르쳐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방도를 견지하심으로써 혁명적골간들을 급속히 키워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군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정치일군들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가르치고 그 열사람이 다른 백사람을 교양하여 부대의 혁명력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길러낸 그들은 장차 수천수만명을 가르치고 이끌어 조선혁명을 완수할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이다.…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가장 효과적이며 독창적인 혁명적골간 육성의 방도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유격대내의 지휘관들은 자기 대원들을 책임지고 교양하였으며 적통치구역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혁명군중들속에서 핵심을 장악하고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가족과 친척, 친우들을 교양하게 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혁명적골간을 키워나아갔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항일유격대원들과 수많은 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적골간육성의 방침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많은 혁명적골간들이 육성된것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혁명적골간을 친히 키우시였기에 조선혁명은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항일무장투쟁으로 발전할수 있었다. 또한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에서와 각종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수많은 혁명적골간을 키우시였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실현 등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일제를 물리치고 민족해방의 혁명위업을 달성할수 있었다.

혁명적골간을 키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그 실현과정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은 특히 새 조국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혁명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졌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그 기초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은 해방후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

명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아갈수 있게 한 튼튼한 밑천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하려고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늘였으며 이것을 밑천으로 하여 해방후에는 당을 조직하고 우리 나라 혁명을 옳게 지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90페지)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일떠선 조선인민앞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해방직후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국내외의 반동들을 긁어모아 갖은 파괴책동을 다하였다. 계급적원쑤들과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저마다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자파세력을 긁어모으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제때에,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인민무력을 건설하고 근로단체들을 조직할수 있었던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으며 자기의 수령을 내세우고 그 주위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울줄 아는 혁명적골간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을 기둥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 인민무력과 근로단체들을 제때에 조직하시고 그 사업을 정확히 통일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앞에 나서는 모든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매시기 우리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의 지조를 굳게 지키면서 꿋꿋이 전진할수 있은것도 주로는 우리 당과 국가 그리고 우리의 인민무력이 항일빨찌산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적령도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튼튼히 꾸려졌기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골간들이 우리의 당, 인민정권, 인민무력, 근로단체들의 주추돌이 되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던것과 관련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그처럼 짧은 시일내에 우리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할수 있은것이나 미제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이께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의 핵심적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이 있었기때문에 청소한 조선인민군이 수령께서 내놓으신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락동강계선에까지 진출하여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또한 수령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전략적후퇴방침과 재진공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이 당면한 일정에 올랐던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쳐부시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혁명위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도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키우신 조선혁명의 골간들의 핵심적역할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은 급속히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언제나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현명한 방침을 견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께서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160여만의 강철의 대오로 장성강화되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전체 인민을 단결시킬수 있었다.

우리의 혁명적골간들은 특히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주위에 인민대중을 단결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주위에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적골간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서만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선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밑에 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지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골간들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원쑤들의 반당적, 반혁명적 책동은 완전히 분쇄되고 인민대중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오직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켰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혁명력량은 비상히 확대되였으며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간부들과 함께 수많은 새로운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우리 당의 골간부대는 더욱 늘어났다.

우리의 혁명대오에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섰으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필승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이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부동한 밑천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간에 걸친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혁명적골간을 키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견지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심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철옹성같이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키우신 혁명적골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골간을 키우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 연구체득하며 혁명적골간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사는 혁명적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

김 룡 하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에 걸쳐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라는것을 처음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 가장 곧바르게 공산주의에로 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명시해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그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할것을 가르치고있으며, 로동계급자체를 부단히 혁명화하여 전사회 혁명화의 본보기로 만들것을 가르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비롯한 여러 로작과 교시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거듭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548페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그들의 리상과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는 사회라는데 있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인것만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부단히 개조해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이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계급, 계층들에 대한 혁명적작

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 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이다. 로동계급은 농민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계급적령도와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이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로동계급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킨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로막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그 어느 계급보다도 가장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이 사회건설에서 대중을 이끄는 결정적력량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인 사회적력량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령도계급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농민과 인테리는 자기 혼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갈수 없다. 그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적령도와 적극적인 지도방조를 받음으로써만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로 갈수 있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령도와 지도방조 밑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다. 농민은 또한 로동계급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 밑에서만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으며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의 온갖 락후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올라설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인테리는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아야 새 사회 건설에서 자기의 온갖 지혜와 열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농민과 인테리는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받음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로 로동계급과 함께 갈수 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계급적처지로 하여 그 어느 계급보다도 단결력과 조직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근로대중의 유일한 령도계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은 형성된 초기부터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령도계급으로서 자기자신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견결하고 용감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는 혁명투쟁에서 모든 근로대중을 이끌수 있는 위력하고 조직된 부대로 될수 있었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그가 계급으로 형성된 첫시기부터 우리 혁명의 확고한 령도계급으로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선두에 서서 인민대중을 그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었다.

특히 우리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옳바른 길을 찾고 령도계급

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의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믿어주시고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자체의 혁명화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요.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여주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주력해야 하오. 그리고 우리 혁명대오에 로동계급출신이 아직 많지 못한만큼 그들속에서 많은 로동계급출신의 핵심을 길러내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는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영향력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이끌었으며 또 이끌고있다.

이처럼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키는것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2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자체의 혁명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고 농민과 인테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 전사회 혁명화의 앞장에 서서 그 본보기가 되며 농민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혁명적작용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자신의 혁명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게을리한다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결국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도 혁명화해야 진정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지 그저 로동했다고 하여 저절로 혁명화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로동계급도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진정한 로동계급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더 완성할수 있고 전사회 혁명화의 참다운 본보기로 될수 있다. 전사회를 혁명화하는 과정은 로동계급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그들이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의 혁명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가 선차적인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도 지난날 자본주의제도에서 살아왔기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가운데는 어제날의 농민이 많으며 지난날의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가들도 적지않

습니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더 많습니다. 지난날의 중소상공업자들은 이미 로동자로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아직도 그전처럼 놀고먹었으면 하는 생각, 남을 착취해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교양하여 참다운 로동계급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왔기때문에 부르죠아사상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었다. 로동계급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되는것은 과거 사회에서 계급분화가 부단히 일어나 중소부르죠아계층들이 파산몰락되여 로동계급의 대렬내에 부단히 흘러들어온 사정과 관련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로동계급은 그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적이고 조직적이며 단결력이 강한 좋은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사상잔재를 가지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는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후 맑스-레닌주의당의 의식적인 사상교양사업에 의하여 부단히 극복되며 이 과정은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가 청산됨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이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더우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하며 해방후 공업이 짧은 시일내에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과정에서 로동계급의 대렬에는 어제날의 소상인, 수공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로동계급대렬내에 여러가지 락후한 사상의식이 들어올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자신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며 혁명화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부패한것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가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그 대렬이 부단히 새로운 세대들로 보충되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로동계급대렬에 부단히 보충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고 줄곧 행복하게 자라났으며 또 살고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점차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승리한 혁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자면 새로운 세대들로 보충되는 로동자들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을 참다운 로동계급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특히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그리고 장기적이고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이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되여있으며 입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우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질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철통같이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여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듦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확고한 혁명사상을 소유한 보다 혁명적인 계급으로 되게 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

로동계급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사상성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때에라야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언제 어디서나 수령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다.

로동계급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로동자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특히 현지교시를 일상적으로 연구학습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그의 혁명적본질과 정당성 및 수행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자들속에서 당정책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기쉽게 하여 실속있게 학습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군중의 준비정도와 심리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로동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당정책을 학습시켜야만 그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더잘 리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도를 찾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책학습을 공장, 기업소 앞에 제기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로동자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맡은 일에 더욱 열성을 내게 할수 있으며 공장의 설비, 자재를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극력 애호관리하며 높은 속도로 생산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사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혁명전통학습은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것으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신의 혁명화를 부단히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그것이 사업과 생활에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깊이 연구하며 그에 대한 토론회, 연구발표회 등을 활발히 조직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사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은 높은 계급의식을 확고히 소유해야만 계급적원쑤들을 옳게 갈라볼줄 알게 되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온갖 안일성과 해이성을 청산하고 고도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또한 공산주의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모든 부문에서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제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되며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조직성을 더욱 높이며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단내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조직성을 높이지 않고는 그들을 혁명화할수 없으며 따라서 령도계급으로서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에 대

한 혁명적작용도 강화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로동계급은 우선 자기 조직의 규약상 요구와 조직생활규범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조직에서 진행되는 회의들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조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로동자들속에서 자기 조직과 집단내의 생활규범을 잘 지키고 공장, 기업소내에 세워진 질서와 제도를 자각적으로 지키는 정신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내의 규률과 질서를 위반하는 현상과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것을 제때에 시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누구나 다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551페지)

문화혁명을 잘하여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그들이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훌륭히 개조할수 있다.

우리는 공장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잘 운영하며 로동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인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 및 야간통신망들에 광범히 망라시켜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문화회관과 직장민주선전실들을 통하여 예술소조활동과 혁명적인 문학작품발표, 혁명가요보급 등 군중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흥겹고 활기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자들속에서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그들이 발전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령도계급답게 모든 생활을 보다 더 문화적이면서도 전투적으로 조직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촉진하며 그들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높이는데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근로자들의 혁명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실천적경험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공산주의교양의 훌륭한 학교이며 경제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운동참가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에 의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든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인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이 운동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더욱 완성해나감으로써 그들이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더욱 빛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강령적지침

김　　하　　명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가 반표된 때로부터 5년이 된다. 이 력사적로작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것인가, 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해야 하며 그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어떻게 풀것인가 등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독창적인 해답을 준 강령적문헌이다.

지난 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은 이 로작의 위대한 사상을 지침으로 온갖 반동사상의 침습과 반혁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면서 혁명적문학예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끊임없는 창조적앙양의 길을 걸어왔다. 경험은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킬수 있으며 그것으로써 남북조선인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키는데 힘있게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로작에서 현시기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해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현시대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해명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다. 바로 이와 같은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혁명을 하는 과업만이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인민들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

를 달성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놈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있어서 남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무리 북조선의 혁명력량이 강화되고 국제혁명력량이 강화되여도 남조선혁명력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것은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43페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반부인민들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남조선혁명문제를 자기의 사활적인 혁명임무로 여기도록 꾸준히 정치사업과 선전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북조선인민들이 남조선형제들을 구원하려는 각오가 높아지면 질수록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력량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큰 고무를 받게 될것입니다. 그뿐아니라 북조선인민들에 대한 이러한 정치, 선전교양 사업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정치, 선전교양 사업으로도 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44페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들이 주권을 잡고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촉진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서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당이 내세운 이와 같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여야 하며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한시도 남조선형제들을 잊지 말고 남조선의 해방문제를 자기의 사활적인 혁명임무로 여기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은 또한 남반부인민들을 각성시켜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점차 확대되여가는 남조선정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남조선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혁명적정열을 북돋아주며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45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교양할 좋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그들을 각성시킬수록 그것은 그만큼 남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여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계급교양과 혁명화에 이바지하는것은 현시기 모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 예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서는 근본과업의 하나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며 자기의 부모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고있다. 이들에게는 낡은 사회에 대한 생생한 표상이 없으며 지주나 자본가에 대해서도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있을뿐이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이 우리 시대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앞에 내세운 중대한 과업으로 되는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후에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아내며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해야 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마땅히 근로자들의 계급교양과 혁명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제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혁명투쟁이 제기하는 물음에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해답을 주며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모범으로 되는 혁명투사의 전형을 그려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적고 절실히 필요한것은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교양하며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문학예술작품들입니다.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항일빨찌산투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적지않게 내놓았습니다. 항일유격투쟁이 우리 혁명운동의 뿌리인것만큼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것을 계속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45페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화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주제분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진행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은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이 영광스러운 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가 마련되였으며 혁명적무장력건설, 정권문제, 근로단체사업, 통일전선운동,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광범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쌓아졌으며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혁명의 골간이 자라났다.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풍부한 업적과 경험, 생동한 사실들과 모범들은 우리 인민을 무한히 감동시키며 이것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의식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은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하여 항일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고매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항일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조선혁명의 뇌수이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목숨바쳐 보위하였으며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어려운 싸움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언제나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들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만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똑바로 보여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옳바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항일무장투쟁이 우리 혁명투쟁의 뿌리인것만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계속 많이 써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제는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 때가 되였습니다. 해방후 20년동안이나 혁명투쟁이 계속되고있는데 어째서 15년동안의 항일유격투쟁만 혁명투쟁이 되겠습니까?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 산업국유화를 위한 투쟁, 당건설을 위한 투쟁, 미국놈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이 모든 투쟁은 다 어려운 혁명투쟁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이 참가한 문자그대로 전인민적전쟁이였습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문학예술인들은 이런 투쟁을 그린 작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45페지)

해방후 20여년동안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더미로 되었던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해방후의 혁명투쟁을 진실하게 그려낸 작품들은 항일무장투쟁주제의 작품과 함께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은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투쟁정신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오늘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작용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우리의 혁명과업과 정세에 비추어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에서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남반부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될수있는대로 많은 교양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남반부에서 투쟁하는 동무들에게는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학예술작품들보다 남반부에서의 그들의 투쟁,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들의 생활을 그린 문예작품을 많이 보여주는것이 더욱 필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4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요구와 그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기 위

하여서는 직접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경험을 그리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왜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 원쑤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에 직접적인 해답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직접 그림으로써 미제식민지통치의 후과, 그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발가놓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고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승리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많은 좋은 동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남조선인민들이 일어나 싸워서 감옥문을 열어줄것을 기다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피흘려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기록될것이라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감옥에서도 단두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울것이며 그들의 뒤를 따라 혁명자들의 대군이 계속 끊임없이 투쟁전선에 나설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48페지)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은 다만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고무할뿐아니라 북반부인민들에게도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혁명적대작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해방전에 혁명군의 임무를 받고 투쟁하던 동무들을 원형으로 하여 하나의 대작을 쓸수 있습니다. 그 동무들의 해방전 인민혁명군에서의 투쟁, 혁명임무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지하투쟁을 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면서 불요불굴의 투쟁을 한 모습, 해방후 오래동안 서로 헤여졌던 동지들의 감격적인 상봉 그다음 당을 건설하고 정권을 세우며 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눈부신 활동,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적의 포위를 뚫고 다시 들어오는 간고한 후퇴작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과 같은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품을 써야 사람들에게 과연 혁명이란 파란곡절이 많구나 하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랑만주의정신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감옥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혁명적대작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문학예술형태상 특성과 사명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주시였다.

혁명적대작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현시대의 혁명운동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다. 혁명적대작의 주요한 특성은 혁명투사의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혁명활동을 보여줌으로써 혁명투사들의 긍정적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하며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을 촉진시키며 투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혁명투쟁에 참가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작용할수 있는 대서사시적 형식의 작품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주인공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의 각성과 공산주의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밝히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가혹한 탄압밑에서의 지하투쟁, 조국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 해방후 조국에로의 개선과 당창건 및 인민정권의 수립을 위한 투쟁, 제반 민주개혁과 미제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눈부신 활동 등 혁명활동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을 따

라 앞장서나아가고있는 혁명투사들의 준엄하고도 보람찬 투쟁의 력사를 그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당과 로동계급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하게, 더욱 자각적으로 복무하는 혁명투사로 교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산주의적세계관의 확립에 이르는 사상의식개조과정으로서 꾸준한 교양과 심각한 사상투쟁을 거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이 투쟁속에서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투쟁의 로정, 그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할수록 문학작품은 그 모범으로써 사람들을 더잘 감화교양할수 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도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자신심과 영예감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에서 혁명적대작이 결코 살아있는 사람의 전기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전기를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것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지 못합니다.》(우와 같은 책, 149페지)

일반적으로 원형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의 우월성은 사람들에게 보다 진실한 느낌을 주며 새로 자라나는 혁명가들에게 영예감을 가지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우월성은 혁명가, 영웅들의 실제생활을 전기식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전형화하는데서만이 발현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항일무장투쟁에서와 해방후의 혁명과 건설 투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따라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적위훈을 떨친 혁명가, 영웅들의 수많은 투쟁자료가 있다. 혁명적대작에서는 이러한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들의 투쟁을 소재로 하여 예술적으로 전형화할 때에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상미학적감동을 잘 줄수 있고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실제생활을 전기식으로 쓰는것만으로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혁명운동의 내용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힐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명확히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대작은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 혁명투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을 다 포괄하여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그려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적대작에서는 주인공들의 개인적운명의 묘사가 민족과 계급의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묘사와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여기서 혁명투사들의 불멸의 영웅적위훈과 고상한 정신적풍모를 옳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겹겹이 막아서는 난관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에 이르는 혁명투쟁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면서 그 승리의 원천으로서의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혁명성을 정확히 밝히는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혁명투사들은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 속에서 힘과 승리의 신심을 얻었으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었다.

우리 혁명의 이와 같은 승리의 원천을 옳게 밝힘으로써만 작품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할수 있다.

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또한 혁명적노래를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음악예술부문일군들은 우리의 민족음악을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요즘에 나온 노래들가운데서 제일 잘된것 같습니다. 조선적인 선률로 일관된 이 노래는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근로자들의 전투적기상과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득차있는 그들의 락천적인 정서가 잘 표현되여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음악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우리 사회주의적음악발전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음악은 다른 형태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유한 형상적형식으로 혁명하는 시대의 정신과 우리 인민의 지향을 진실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 복무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을 더잘 표현한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가르치심은 우리 음악발전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지난기간 우리의 민족음악은 이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는 창조적앙양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적음악이 인민들의 정서와 지향을 더잘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반드시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이다.

음악에서의 조선적인것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조선인민의 미학정서적요구를 반영하면서 형성발전된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음악이 조선인민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리해되며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것은 그것이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선률을 풍부히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음악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예술은 인민들에게 접수되고 그들의 미학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만큼 사상교양의 기능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는 기본방도를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민족음악에서는 주로 민요를 발전시키는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민요를 오늘의 청년들의 감정에 맞게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창극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도민요가 바탕으로 되여있는 〈강건너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온다〉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민족음악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우와 같은 책, 152～153페지)

민요는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인민들자신이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재능에 의하여 자기들의 사상과 정서를 구현하면서 발전시켜온 가장 인민적인 음악이다. 물론 민요에도 시대적제약성이 반영되여있지만 그것이 오랜 력사적기간을 두고 인민들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하여 발전되여온만큼 오늘의 인민들에게 그 어느 형태의 음악보다도 가장 가깝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한 민족음악의 발전은 이와 같은 귀중한 재부를 옳게 계승하는데 기초하면서 여기에서 반드시 옛날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복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옛날것을 그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족음악의 발전과 복고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음악에서 우리가 조선적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여 너무 고전만 떠받들어서는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15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유산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적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옛

날것 그대로를 답습하려는 복고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복고주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낡은것, 봉건적이고 부르죠아적인것을 비호하고 미화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전진과 음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지난기간 우리의 사회주의적음악이 민족적선률과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씩씩하면서도 락천적인 음악으로 발전되여온것은 모두다 복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음악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옳게 구현한데서 이룩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대중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음악예술을 옳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고수관철하며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조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부 전문가들만이 알수 있는 이른바 음악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착취계급들의 비위에나 맞는 타락한 음악은 우리에게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무디게 하는 온갖 퇴폐적인 부르죠아음악을 배격하여야 합니다. 감상과 비애에 잠겨죽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것과 같은 곡조들은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5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퇴페적인 부르죠아음악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적음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음악은 민족적이면서 언제나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57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적민족음악발전의 가장 정확한 길이며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훌륭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꾸준히 배우며 그들자신이 혁명화되고 공산주의투사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지 않으며 군중에게서 꾸준히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귀족화되고 관료화되여 우리 혁명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5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첫날부터 문화인들을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사상단련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방도를 창조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하며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적인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생활을 잘하여 자신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당정책이 실현되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생활을 연구하고 체험하며 로동자, 농민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오직 수령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현실을 잘 알고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였을 때에 비로소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훌륭히 복무할수 있는 문학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절박하게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년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사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 문학예술사업의 실천적경험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의 힘있는 무기로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도록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문예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과 리론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온갖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조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당의 영예로운 문예전사들인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하여야 하며 일대 창조적앙양으로써 당과 수령의 깊은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일련의 교시들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휘황찬란한 앞길을 명시하시면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노는 커다란 역할과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과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가 없이는 수행할수 없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친히 창설하시고 그 사명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를 마련해주시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깊이 파악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농업부문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시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과 이 과정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테제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방침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빨리 하여 어디서나 다 기계와 전기, 화학비료, 농약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며 농촌에서의 소유관계도 개인농민의 사적소유를 협동적소유로 만든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시키려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도 지난날의 개인농민을 사회주의적근로농민으로 만든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선진적인 농업로동자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공산주의로 가자는것이며 이 과정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왔던것입니다.》

농촌문제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이며, 협동화이후시기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다.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협동화이후시기에도 농촌문제는 계속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협동화이후시기에 농민문제와 농업문제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리유는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져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다는데 있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서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농촌경리의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를 공업화한다는것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도 완전히 공업적방법으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촌경리를 공업화하여야 농업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들도 다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공업화는 또한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또한 농업생산의 제조건의 변화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제고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농촌경리의 공업화는 농민의 농업로동자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사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며 매우 중요한 문제인것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를 공업화하여 농업생산력을 매우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고 농민을 모든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니만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소유관계에서의 차이와 함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도 없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기본사상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 기술, 사상, 문화 령역에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자는것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수행한다는것은 농촌에서 공산주

의를 건설하기 위한 첫단계의 과업,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로 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상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촌경리의 공업화가 실현되고 농촌에 농민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공업로동자와 함께 농업로동자가 있게 될 때, 농민들이 모든 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였을 때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이후시기 농촌에서의 공산주의건설과정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과정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그것이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영위원회는 지난날과 같은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에 의하여 농촌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이 개선되였을뿐아니라 군내 협동농장들의 련계도 강화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페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는 과학적근거의 하나는 그것이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촌경리의 국가적지도관리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생산력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며 또한 그 과정을 촉진하는데 전적으로 알맞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지는것은 합법칙적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되여야 한다.

공업에서의 관리운영방법은 기업적방법이다. 그것은 가장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킨다는것은 협동경리도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한다는것은 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서 기본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져 농업의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기술적지도는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지원 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촉진됨에 따라 농업생산도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전화되였다. 뜨락또르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물론 비료와 농약을 주는 일이나 물관리도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되였다. 기계와 설비들을 잘 배치하고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하고 보강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모든 기계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양수기들을 자주 점검보수하고 계획적으로 물을 대고 뽑는 문제도 그리고 전기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며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육종사업 같은 모든 영농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도 기업적방법이 아니고는, 기술적지도를 떠나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되였다.

그뿐만아니라 우리앞에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빨리 추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대한 혁명과업이다. 기술적지도가 없이는 농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잘 지을수도, 농사를 지도할수도 없는것이다.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보장하자면 반드시 그에 필요한 기술간부들과 기술수단들을 갖추고있는 일정한 규모의 지도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협동농장은 관리간부와 기술간부를 얼마 가지고있지 못할뿐아니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경제토대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도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을 기본단위로 골랐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4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군에는 기술간부들과 관리간부들도 적지 않게 있으며 농기계작업소, 농기계수리공장, 관개관리소와 같은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이 거의다 꾸려져있으며 또 농경지도 만정보가량 있다. 그렇기때문에 군을 단위로 하는것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알맞춤하며 모든 기술장비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도 편리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962년초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면서 군을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시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업협동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다른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이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우리 나라 농촌기술혁명은 국가의 힘있는 지원밑에 국가가 가지고있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모든 기술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지 않고는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가축방역소와 같은 농촌경리분야에서 국가가 가지고있는 모든 기업소들과 기술설비들, 기술력량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경제적방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협동농장들이 가지고있던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의 잔재를 없애고 그것을 더욱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경리로 만들었다. 협동농장들은 군적인 테두리안에서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되였으며 생산계획도 기계설비와 자재를 비롯한 생산의 제요소들을 잘 따진 기초우에서 세울수 있게 되였다.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국영경리의 우월한 관리방법에 따라 협동농장관리간부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는것은 물론, 로동행정, 농장재정 및 재산관리, 축적과 소비의 정확한 비례의 설정과 같은 경리운영의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고 로력과 자재,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 특히 농업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지도의 강화는 농업을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며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며 그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고 생산문화를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이것은 농촌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가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으며

은을 내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노는 커다란 역할의 다른 한 측면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영위원회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한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였다. 경영위원회의 창설은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하고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노는 커다란 역할의 하나를 명시한것으로서 농촌문제 특히 소유문제 해결의 혁명적원칙을 밝혀준 창조적사상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의 하나는 그것이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을 위한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협동적소유를 더욱 완성시키며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로 점차적으로 순조롭게 전환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인민적소유(공업)와 협동적소유(농촌경리)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 로동계급과 농민의 호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다.

농업협동경리제도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의 발전수준에도 맞는것이다. 그것은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그러므로 협동경리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협동경리제도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발전하고 변화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 완성시켜나가는 동시에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1~4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두 소유의 련계문제를 옳게 해결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키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보장하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간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농업생산에 효과적으로 복무시킴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유기적인

결합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고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잘 보급할수 있게 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키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하며 촉진한다. 공업이 빨리 발전하고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계속 확대강화되여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기계설비들이 더욱더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의 강화와 농업생산에서 국가적소유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의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며 맑스-레닌주의적길이다.

다른 길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수 없다.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 안되며,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려 해도 안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반적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것이다.

만약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조건들인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는 사업도,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사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농동맹을 약화시키게 될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농촌경리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수 없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가로막는 길이다.

반면에 구체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협동적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면 오히려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 접근시킬수 있으며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점차적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또 그래야만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문적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사업도 근본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노는 커다란 역할의 하나를 밝혀주고 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군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국토관리, 건설, 상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 등에 힘을 넣어 이 부문들의 사업을 더욱 추켜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과 군인민위원회로부터의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기능의 분리는 정권기관과 경제기관의 사업을 전문화함으로써 당의 영도적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사회주의 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것이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촉진하는 힘있는 무기로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훨씬 강화되였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나라 자연기후적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고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실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은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생활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또하나의 산모범이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으로서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있음으로 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온 목적과 그 사명을 옳게 인식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온 목적은 농촌경리를 낡은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선진적인 기업적방법으로, 다시말하여 공업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인 농업의 공업화에 적응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만큼 그것은 거기에 맞는 사업방법을 요구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구를 만들어놓아도 사업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낡은 관료주의적행정식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사람들과의 사업 즉 기술자들과의 사업, 협동농장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및 분조장들과의 사업, 농민들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농민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의 선진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서 아래일군들과 농민들에게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알려주며 대중을 그 관철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밑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농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들에게 친절히 가르쳐주며 실정을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준다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자기의 우월성을 더잘 발휘하게 될것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며 생산을 직

접 조직하고 생산에 대하여 책임지는 농업기업체이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밑에 내려가서 계획작성, 생산조직, 자재보장, 로력배치, 기술발전, 재정사업 등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특히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더잘 실현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생산을 공업적방법으로 지도하지 않고 계속 뒤떨어진 방법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일수 없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에서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농촌기술혁명에서 달성한 성과는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서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욱 많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뜨락또르로 밭갈이를 하고 후치질을 하며 살초제로 김을 죽이고 병해충도 농약으로 죽이며 가을걷이도 기계로 하고 전기로 낟알을 털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롱질과 손로동을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민들도 로동자와 같이 하루에 8시간로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쉴수 있게 되여야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실현되고 농촌경리가 공업화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의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세우는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앞선 수준에 따라세우며 모든 협동농장들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뒤떨어진 농촌,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그대로 두고는 공산주의로 들어갈수 없다. 모든 지역, 모든 마을이 다같이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되여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워 앞선 협동농장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는것은 단순히 뒤떨어진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것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창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며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서 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동시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을 우선적으로 실어다주고 국가적방조는 물론 사회적지원도 더많이 주도록 하여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알곡을 더 많이 내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알곡을 많이 생산하면 먹는 문제가 풀리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거기에서 대포도 나오고 땅크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도 나올것이다.

올해에 농촌에서는 알곡생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정당 500키로그람을 증수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명년도 농사차비를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발전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분수식관수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남새의 정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일군들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계속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켜 나아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 정책의 정당성

강 범 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정책에 의하여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체육은 빛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체육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간주하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적체육문화를 창설하는 사업을 손수 지도해주시고 체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인들의 조직을 직접 내오시고 체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체육간부양성기지를 꾸려주시고 대중적체육을 위한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져있으며 체육활동이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체육문화는 또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구현한 집단적인 체육형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학교체육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체육의 대중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정책에 의하여 체육이 대중화되고 그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체육종목의 기술이 또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중요한 종목들에서 세계적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의 많은 체육인들은 국제무대에서 세련된 체육기술과 고상한 체육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당 체육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온 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체육문화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훌륭히 복무하고있을뿐만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높이며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도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체육이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체육으로 급속히 개화발전하게 된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과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의 체육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을 언제나 혁명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시고 체육활동을 혁명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독창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인 체육의 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체육문화건설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해방직후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여야 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의 체육사업의 목적과 발전방향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서 가장 정확히 밝히신것으로서 모든 체육활동이 나라의 혁명위업수행에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이 교시는 또한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후 자기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체육문화의 건설을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체육을 대중화하며 그것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은 체육활동을 혁명사업의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체육문화를 급속히 개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동시에 체육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 인민의 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규정할수 있게 하며 체육활동에 대한 전일적인 국가적지도체계를 세우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체육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속에서 체육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 젊은 세대들을 정신적으로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높은 로동능력을 발휘할수 있고 조국보위에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다. 근로대중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조국보위의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체육을 생산활동 및 조국보위와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고있다. 조국의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충실한 주구배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우리 앞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할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투쟁과업이 놓여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체육을 조국보위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활동에서 군인들의 튼튼한 체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군인들의 체력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군대에게는 적을 잘 쏠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 기동성있는 전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체력이 약하면 기동성있게 움직이지도 못하며 적에게 접근할수도 없으며 적진지를 점령할수도 없으며 또 적을 잘 쏠수도 없습니다. 즉 전술과 기술과 체력이 통일되여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49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사행동에서 기술과 전술을 담보하는 튼튼한 체력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체육활동을 강화하여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도 이겨낼수 있는 강의한 의지, 높은 저항력과 기민

성을 배양하는것은 국방력강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여 전인민적체력단련사업을 부단히 강화할 때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고 전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보다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모든 체육활동을 생산실천과 결합시키는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체육사업은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복종하며 그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에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체육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체력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로동성과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체육활동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생산로동의 특성과 직종에 맞게 생산체조와 업간체조를 광범히 보급하는것은 신체의 고르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대중체육형식으로서의 생산경기를 직접 발기하시고 체육과 생산을 결합시키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생산경기형식은 체육과 생산의 가장 적극적인 결합형태로서 근로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성과 인내력을 배양하며 그들을 현대적기계를 다루는데 숙련시켜 능률적인 로동을 가능하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생산과 체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생산경기가 광범히 보급되고있으며 체육활동이 생산을 촉진시키는데서와 근로자들의 신체를 조화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이바지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해방된 민주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선수들을 내세우기 위한 체육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며 또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놀음거리로 되여서도 안될것입니다.…

여기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 하면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며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우리 민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질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할수 있기때문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페지)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체육이 자체의 사명을 원만히 실행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체육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옳게 복무하여야 되는것만큼 그러자면 체육활동이 대중속에 널리 보급되여야 하며 그들속에서 생활화되여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주권이 인민의 손에 쥐여진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체육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진다. 이러한데 기초하여 체육활동에 광범한 인민을 망라시킬수 있는 옳은 방침을 세우고 체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이바지되도록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은 또한 체육 그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체육을 대중화하여야 모든 종목이 발전할수 있고 선수들도 많아지며 기술도 높아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체육은 응당 전체 인민의것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체력과 의지를 튼튼히 단련하여 혁명과 건설에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할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학교체육을 강화하는것은 그자체가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구로 되는 동시에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들속에서 몸을 단련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몸을 위생적으로 거두며 적극적으로 단련하도록 늘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학생들을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며 운동도 잘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학교시기는 사람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되는것만큼 이 시기에 체육을 잘하는것은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체육교육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체육의 군중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학교를 졸업한 젊은 세대들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부단히 진출하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체육을 강화하는것은 전국적으로 체육의 군중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수준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놀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체육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을 잘해야 사상도 건전해진다고 하시면서 집단적인 대중체육을 활발히 발전시키는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단체조는 체력단련에 좋을뿐만아니라 정치교양에도 좋고 학생들을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단련하는데도 아주 좋소.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요.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런 집단체조를 광범히 하게 하는것이 필요하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단적체육활동은 사람들속에서 개인주의적행동과 무규률적인 생활습성을 없애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배양하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또한 집단적인 체육활동은 사람들에게서 소심성, 보수성 등 온갖 비혁명적사상요소들을 없애고 대담성과 적극성, 강의한 혁명가적의지를 키워준다.

이와 함께 체육사업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낡은 생활습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집단적체육활동은 근로자들속에서 락때하고 비문화적인 생활습성을 없애고 생기발랄한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높은 기술에 토대한 체육경기들은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여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는 집단체조를 비롯하여 《보천보에로의 집단달리기》, 《혁명전적지행군》 등 대중적체육형식들은 단순한 체육활동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체육활동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체질을 옳게 고려하여 주체성있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체육훈련에서 주체를 세우고 재치있고 날래며 강기있는 우리 조선사람의 체질적우점을 최대한 조장발전시키는 독자적인 기술전술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체육기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정확한 체육문화건설방침과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리 나라 체육은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회주의체육의 우월성을 높이 보여주면서 힘차게 발전하고있다.

*　　*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체육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근로자들과 체육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근로자들과 체육인들은 체육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라야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과 체육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때 그들은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해내는 불요불굴의 투지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과 체육인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체육문화건설방침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여 체육을 대중화하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산악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국방체육경기들을 옳게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가파로운 산과 벼랑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수 있고 어떤 모진 추위와 더위도 견디여낼수 있도록 강행군, 등산, 헤염치기, 각종 장애물돌파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 모든 사람들의 신체는 전면적으로 단련될것이며 현대전에 능히 이겨낼수 있는 강한 저항력을 가질수 있다.

한편 군사기술기재사용에 능숙하도록 국방실용종목을 발전시키며 국방체육구락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잘 꾸리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국방체육기술을 널리 보급하는것이 중요하다.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체육활동을 과외활동의 첫자리에 놓고 학생들속에서 키크기운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체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각종 종목의 체육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대중체육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사무기관들에서 업간체조와 달리기를 비롯하여 생산과 결합된 체육활동을 정상화하는것이다. 동시에 체육소조활동을 강화하여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체육종목에 숙련될수 있게 하며 체육이 근로자들의 생활의 한구성부분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는것은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체육선수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며 모든 종목의 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은 체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전투적과업이다.

체육선수후비들을 키우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을 더욱 대중화하고 그들속에서 신진선수들을 부단히 육성하며 체육구락부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체육기술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상적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나라 선수들이 이미 거둔 우수한 기술과 훈련경험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체계화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에 모를 박아야 한다.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전인민적체력단련과 함께 체육기술의 전반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모든 학교들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적운동으로 각종 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이미 마련된 체육시설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애호하는 기풍을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대중적체육활동을 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이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고 체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조직들은 직맹, 농근맹, 사로청 등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체육활동이 일상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체육문화건설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체육의 대중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부단히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

신 응 복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계속 분렬된채 남아있고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20년이 넘도록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한부분이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조선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조국의 분렬은 조선혁명의 통일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모진 불행과 도탄 속에 몰아넣고있다.

우리 조국의 분렬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전민족의 번영을 기대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을 불행과 재난에서 구원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제기되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는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세대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　　　*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이 기본방침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부합되며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을 청산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위업을 실현케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서 자주적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근본적리익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서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 방침의 초석을 이룬다.

자주적원칙에 철저히 립각함으로써만 조국통일문제는 그 정당한 해결을 기할수 있으며 민주주의원칙도 보장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서 자주적원칙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외세의 간섭없이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려는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부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인민자신의 투쟁이 없이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 통일과 진정한 자주독립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자주적원칙은 모든 민족은 자기의 모든 내부문제를 자체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것을 요구하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철저히 부합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5페지)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내부문제를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자신이 처리하고 해결하는것은 그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만일 민족자결의 이 신성한 권리가 유린당하게 된다면 그 민족은 자기의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없다.

어떠한 외부세력도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 줄수 없다.

하물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의 근본적리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망상에 불과하며 그것은 전민족의 운명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맡기는 매국배족행위밖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자주적원칙은 우리의 내정을 침범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히 배격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는것을 조국통일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이 자기의 힘으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는 주체적력량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능히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우와 같은 책, 187페지)

오늘의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는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께서 지도하시는 맑스-레닌주의당,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불패의 조선로동당이 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특히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였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땅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놓았다.

남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튼튼한 혁명력량을 부단히 꾸려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며 자기의 운명을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에서 민주주의적원칙은 자주적원칙과 함께 그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이 원칙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해결의 실제적담당자라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민주주의적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만 나라의 통일문제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의사와 근본적리익에 맞게 해결될수 있다.

우리의 조국통일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함이 없이는 전체 인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될수 없으며 그들의 근본적리익도 보장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조국통일을 전체 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풀어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침해와 애국적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는 조건에서는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위하여서는 우선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할수 있으며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국통일방안은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공정한 여론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창건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은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두번만 내놓지 않았다. 우리 당은 전후에만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와 그 이후 수차에 걸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들에서 이러한 방안을 거듭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당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전이라도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안을 제의하였다.

남북조선에 수립된 현존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두지역간의 경제문화적 및 사회적련계와 협조를 강화할것을 예견한 련방제안은 완전한 통일로는 되지 않지만 남북간의 리해를 증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였다.

우리 당은 또한 분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통일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문제와는 관계없이 남북간의 경제문화적교류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남북간의 래왕과 우선 서신거래라도 실현할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당은 이밖에도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바로잡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상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대책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성의있는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였다.

놈들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처음부터 반대하였을뿐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대책으로서의 남북련방제, 경제문화교류는 물론 심지어 남북간에 서신거래를 실시하자는 제안까지도 모조리 거부하여나섰다.

놈들은 남북간의 어떠한 접촉도 반대하였으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공산화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변명하려고 하고있다.

놈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공산화의 위협》이란 조국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참을수 없는 상태를 영구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분렬된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조국이 통일된후 우리 나라에 어떠한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응당히 나라의 주인인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다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통일된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리념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수립되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이 부르짖는 이른바 《공산화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구호들은 다 우리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벌이는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된 식민지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는 놈들의 침략적흉책을 가리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으며 전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는것은 놈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유엔은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문제에 간섭할 하등의 권리도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유엔의 간판을 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고 오늘도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침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유엔의 간판을 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조작된이래 체계적으로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도상에 각종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여왔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미화분식하는데 복무하였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서운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소위 《실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을 할것이라고 떠벌이고있는데 이것은 한갓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이며 매국노인 박정희도당이 《실력을 배양》하겠다는것은 당치도 않는 가소로운 수작에 불과하며 더구나 《승공》이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 격으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제가 패망한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나라의 통일이 이루워지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침략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 되고있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배족의 무리들때문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인 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통일된지 오랬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4~85페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외래침략세력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매국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뿐만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여왔다. 놈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6만여명에 달하는 저들의 침략군대와 추종국가군대를 밀어넣고있으며 70만에 이르는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고있다. 놈들은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저들의 침략정책에 복종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침략과 전쟁을 위한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각종 신형무기들과 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수많이 끌어들이고 괴뢰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대외팽창의 야욕에 눈이 어두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를 기화로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정치적결탁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강화하고있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남조선에 기여드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남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은 우리의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장애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은 실현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함에 있어서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지반으로 하고있으며 대리인으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잔명을 유지하고있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남조선의 력대통치자들은 모두다 철저한 친일친미분자들이였으며 지금 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박정희는 이전에는 일제에게 붙어 개노릇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개노릇을 하는 무지막지한 군사깡패이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느 괴뢰들보다도 미제의 침략정책과 민족분렬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민족의 절실한 념원을 배반하고 나라의 분렬을 더욱더 심화시키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사회를 야수적인 파쑈폭압이 지배하는 암흑의 천지로 뒤덮고 인민들을 모진 고통과 탄압속에 몰아넣고있다. 놈들은 인민들의 사소한 민주주의적권리도 함부로 유린하고있으며 모든 진보적요소들을 탄압말살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서신거래 및 인사래왕의 실현을 주장하는것조차 《국시》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재판》에 넘기고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말만 하여도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괴뢰정권과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론의할수 없으며 그것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통일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은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다음 외세를 반대하는 진보적세력이 정권을 잡아야만 실현될수 있다. 즉 조국통일은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다.

따라서 미제를 내몰고 남조선의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는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은 결코 민족의 원쑤들과의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전제로 하는 철저하게 반제적이며 혁명적인것이다.

*　　　　*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남북조선전체 인민의 신성한 민족적과업으로서 그것은 오직 민족주체력량의 튼튼한 준비에 의해서만 완수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에 대한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민족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매개 나라는 혁명의 주인인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주체적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야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혁명에서 물론 국제적 지지와 원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적력량을 도와주는 보조적힘으로 밖에 될수 없으며 주되는것은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다.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혁명은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주체적력량을 준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특히 우리 혁명이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없다. 오직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완수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이미 인민이 정권을 잡은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혁명기지로 꾸리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에서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릴데 대한 전략적구상이 구현되여있다.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리는것은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이미 혁명이 승리한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혁명기지로 꾸림으로써 주체적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완성을 확신성있게 담보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원동력이다.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투쟁이며 혁명의 승패는 정치적력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만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정치적력량을 믿음직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대중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력량으로 꾸려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만 당과 수령을 위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싸울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래야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을 잊지않고 혁명적대사변을 맞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수 있다.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력량과 함께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적력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정치적과업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할수 없으며 또한 군사력의 강화를 위한 물질적조건도 튼튼히 마련할수 없다. 힘있는 경제력은 정치적과업해결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승리의 강력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혁명적영향을 강화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무장력은 반혁명을 타승하는 기본수단이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강유력한 국방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미제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주체적혁명력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다지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을 강화하여 남조선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여하에 크게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4페지)

조국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조선혁명이 승리하여야 하며 남조선혁명이 승리하자면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는 남조선인민이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이 준비됨으로써만 남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남조선혁명력량과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을 맑스-레닌주의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와 함께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할수 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하며

우리 혁명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한편,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4페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면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다. 미제국주의는 국제반동의 원흉이며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다. 조선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놈들의 패망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미제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투쟁의 승리는 곧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커다란 지지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전략적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이와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혁명력량도 크게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불패의 력량으로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오늘 남조선의 혁명력량도 빨리 자라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미제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괴뢰정권을 때려부셔야만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다는것을 잘알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무장투쟁, 지하투쟁을 비롯한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진행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 《3선개헌》 책동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힘차게 일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크게 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는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결실이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모든 조건은 날을 따라 급속히 성숙되여가고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조만간 남조선에서 쫓겨나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이 성취되면 남북조선 전체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땅에 더욱 아름답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할것이며 북반부인민들처럼 남반부인민들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근로자 제11호 (루계 33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 소•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1969년 11월 1일 발 행•1969년 11월 5일

ㄱ—93425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333)

차 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모든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정식화한 탁월한 고전적명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천리마의 대고조가 계속 앙양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정확한 길을 따라 앞으로도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심오하게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우와 같은 책, 547페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다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앤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며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원래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확고히 쟁취하고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며 온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본능적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 전이나 잡은 다음이나 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화하는데 언제나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하며 특히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런데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다음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초시기에는 아직 사회에 착취계급이 남아있으며 이와 함께 수많은 소상품생산자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는 무엇보다 먼저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없애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품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어야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진행하게 되는 대중에 대한 혁명적교양, 대중을 의식화하고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이끌기 위한 사업도 중요하게는 이 시기에 나서는 혁명과업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착취계급이 완전히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사정은 이와 달라진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업을 해결해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투쟁 대신에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뿐만아니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 등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같이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망라된 사회주의적근로자들로서 사회경제적처지와 리해관계에서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물질적 근원은 영원히 없어지며 로동계급의 사상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접수되여 그들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된다.

이리하여 이때에 와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데 대한 자기의 본능적과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주되는 형식이다.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주로 적대적모순을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고 투쟁이 벌어지던 민족해방투쟁이나 민주주의혁명 또는 사회주의혁명 시기와는 달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협조의 방법으로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자들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결탁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실현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와서도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내외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파괴음모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남반부의 반동계급들과 북반부의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창건된 첫날부터 수행하게 되는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이며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다 혁명의 편에 확고히

쟁취하고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계급투쟁의 주요형식이 있는것이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다른 모든 과업들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을 강화하여야 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막아내고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분쇄할수 있게 하며 적대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을 없앨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게 한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앤다는것은 결국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만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고된 로동과 사상, 문화적 락후성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몸바쳐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끌수 있다. 한편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듦으로써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인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킨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다는데 있으며 여기에 바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전체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제도의 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그리하여 가장 빠른기간내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향상시킬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

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2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로 된다는것을 밝힌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으며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이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국가정권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반석같이 강화되고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굳게 단합되여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발전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위대한 인간개조사업이 성과있게 풀려나감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면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력사적과정이 촉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의 활동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에 리론실천적으로 명확한 해답을 준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에서 명확히 분석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길을 명확히 밝히는것은 오늘의 공산주의운동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이다.

오늘 세계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력사적전환기에 놓여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가 당면한 일정에 오르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계급적내용과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계급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한 길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의 시대에는 제기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도 없었다. 이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을 깊이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만 정확히 풀수 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명확히 밝힐데 대한 문제는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0여년간의 혁명활동을 통하여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정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특히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는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히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9~370페지)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강화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방침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처음으로 무계급사회실현을 위한 명확한 로정을 알수 있게 하였으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모든 사업을 뚜렷한 계급적목표 즉 온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는데로 지향시킬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또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계급투쟁을 정확하게 진행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찾을수 있게 되였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 벗과 원쑤를 정확히 가려내고 어떠한 편향에도 빠짐이없이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사람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목적은 결국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를 길러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길러내는 사업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것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는 물론 물질적요새도 더잘, 더빨리 점령할수 있다.

3

오늘 우리 앞에는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더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계속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또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힘을 합쳐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면서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 미제를 하루속히 몰아내고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 혁명

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하며 장기적이고도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이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벌려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더 불패의 것으로 만들며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보다 굳게 결속시켜야만 우리는 전진도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이 모든 혁명과업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밑에 정권기관들과 교육문화기관, 출판보도기관들과 각계층 군중들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이 모두 이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이 모든 기관들은 다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관들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고 대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들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물론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담당수행하는 모든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이 대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의 모든 국가정권기관들과 교육문화기관, 출판보도기관,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적선을 명확히 세우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당성과 로동계급성을 높이고 계급로선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에 튼튼히 서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똑바로 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몸바쳐 싸울수 있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조선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은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의 과업을 또한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만 사상혁명을 더잘 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중에 대한 혁명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교양, 사람들의 머리속에 혁명의식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혁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두가지의 고정된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 들어있는 모든 기관들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교

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강연회,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비롯한 학습회, 독보회, 당회의와 근로단체회의, 개별담화와 같은 방법 등도 있을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인 책을 읽게 하며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게 하는 방법, 혁명적인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거나 혁명적인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게 하는 방법 등도 있을수 있다. 이러한 형식과 방법들은 모두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신 대중교양의 가장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형식과 방법들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기본열쇠로 된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똑바로 세우며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기 위한 용광로로, 학교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되여야만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몸바쳐 싸울수 있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잘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서의 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리론과 방침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길을 따라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전사회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꽉 들어찬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천리마의 기세, 인당백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할수 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자.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

리 철 복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한층더 다그치며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경제가 더욱 째여가는데 적응하게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이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상반기과업을 완수하고 하반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투쟁을 앞둔 하나의 력사적전환기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7개년계획의 첫4년간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우리 당과 인민은 축성된 중공업기지를 더욱 정비확장하고 그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경공업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남은 3년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대고조를 준비하고있었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는데 대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에 따라 국방력강화에 더욱 큰 힘을 돌리면서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더욱 강화된 실정에 알맞게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진당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이러한 절실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지난 기간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지난날에 있어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이 문헌을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답게 일하며 생활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로작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지도일군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천명하심으로써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관리에서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사업방법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 …진정한 당원이 되고 국가, 경제 기관의 참다운 간부가 되려면 실지행동으로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해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워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1~16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열쇠를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서 찾으시고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 문제를 무엇보다먼저 지도일군들의 사상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하시였다.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이 확고한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계급적자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며 당의 혁명위업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며 철저히 복무하는 혁명가적품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혁명위업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며 철저히 복무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선봉에 선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또한 경제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이나 정치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이나 다같이 당에서 파견하고 인민이 선출한 인민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그 어떤 사리와 공명도 없이 확고한 혁명적세계관과 계급적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으로부터 오직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본래의 사명이며 의무로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이러한 확고한 혁명적립장과 관점에 설 때만이 당과 인민이 그들에게 맡긴 임무를 옳게 실행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여야 참다운 당원, 참다운 인민의 대표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최고기준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가장 높이 발휘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은 최대의 영예이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사업을 통하여 표현되고 평가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애써 싸우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것이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것이며 모든 사람이 잘살수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는것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따라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사업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가 하는것을 늘 재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으로서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밝히시면서 그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당세포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통제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또 그래야만 당성을 단련할수 있고 맡겨진 사업을 잘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64페지)

당조직생활은 당원의 가장 중요한 정치생활이며 모든 당원들이 례외없이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는것은 초보적인 당규약상 의무이다. 당원은 당생활을 하여야만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예리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만과 관료주의적 사업작풍, 안일과 해이성을 제때에 방지하고 당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며 당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인 지도일군들과 모든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관철과 특히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을 떠난 경제관리란 생각할수 없으며 생산공정자체가 곧 기술공정이라는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을 움직이는것은 사람이며 그것을 만드는것도 사람입니다. 일정한 기술숙련과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생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능력과 열성이 높지 못하면 생산이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제관리와 생산지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65~1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의 호상관계, 생산발전에서 일정한 기술숙련과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모든 지도일군들이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명백히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생산물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인민들의 소유로 되며 그것은 전적으로 나라의 번영과 근로자들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리용된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소유자로서 다같이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지며 그들은 생산과정에서 높은 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

의 사상의식은 그들의 모든 생산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며 생산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은 그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높이 발양되며 생산장성의 다른 모든 요인들도 결국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사업을 무엇보다먼저 기계설비를 다루며 생산공정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경제문제를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은 실로 사회주의경제제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사상이다.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운영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과 상론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불러일으켜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능적인 사업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투사인만큼 이들에게는 철두철미 인민에게 의거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업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여있는만큼 생산자대중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집단적인 관리자로 된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은 경제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생산자대중에 튼튼히 의거하고 그들이 언제나 생산의 주인으로서 생산관리에 적극 참가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이끌고나가야 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할때만이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지도관리에서 집체성을 옳게 보장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에 의거한 사업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꼭같이 필요하며 그것을 관철하는것은 당일군, 경제지도일군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생산발전에서 사람들의 역할에 가장 선차적이며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실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경제관리사상이며 그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일군들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을 옳게 인식하고 그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6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이 무엇보다먼저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전환시킨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경제관리체계라는데 있다는것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생산자들에 대

한 사상적자극을 강화하여 그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할수 있고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에 적응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밀접히 결합될 때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청산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것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현지에 나가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직접 자재도 해결해주며 기술문제도 풀어주면서 아래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경제관리운영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맑스-레닌주의경제관리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위력한 무기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에 경제기술사업을 배합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계획화사업, 기술혁명, 로동행정사업, 나라살림살이 등 경제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경제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계획화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모든 물자와 자원이 계획적으로 리용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에 의하여 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설비능력, 나라의 자원과 자재, 자금, 로력과 같은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서는 심지어 측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까지도 타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7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계획화사업은 경제의 지도관리에서 가장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새롭게 발생, 작용하며 이 법칙의 요구가 계획화를 통하여 실현되는만큼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에 따라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균형과 인민경제부문내부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도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분배와 소비도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사람들도 오직 계획에 따라서 일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전국의 경제

발전전반을 계획화하여야 할뿐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활동도 계획화하여야 하며 생산의 모든 물질적요인들을 타산할뿐아니라 사람의 의식수준까지도 세밀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계획화사업이 경제관리의 첫 출발점으로, 전반적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로 되며 또한 그것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옳게 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계획작성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몇몇 일군들의 주관적욕망이나 전문적인 계획일군들의 힘만으로는 객관성을 가진 계획을 세울수 없으며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를 다 반영할수도 없다. 계획의 객관성, 과학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까지도 포함한 생산의 모든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타산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고리들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계획으로 될 때 비로소 확고히 보장된다. 그러므로 객관성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의 구체적현실을 제일 잘아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세우고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옳게 배합하며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뿐아니라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획을 군중적으로 토의하여 세운다는것은 웃기관이 계획작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거나 아래에서 올려온 계획을 그대로 묶어놓아도 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를 없앨뿐아니라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에서 나오는 계획작성의 소극성을 철저히 없앰으로써 전반적인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잘 배합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신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생산장성에서의 국가적요구와 생산기관, 기업소 및 지방의 요구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계획화체계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당의 의도와 국가적요구, 생산현장의 구체적조건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에서 중앙집권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일원화계획의 의의를 똑똑히 깨닫고 이 체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운영에서 기술혁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숭고한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여야만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75페지)

기술혁명은 뒤떨어진 기술을 가진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만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수 있다.

이것은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혁명과업인 동시에 경제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짧은 기간에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의 방도를 명시하시면서 수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데서는 반기계화를 하고 반기계화된

것은 기계화하고 기계화된것은 반자동화하고 반자동화된것은 자동화하는 식으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부터 시작하여 순차적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방침은 조그마한 기술진보의 가능성도 다 리용하며 로력을 절약하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며 기술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것으로서 우리 나라 기술발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로력배치에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로력을 년령과 체질, 성별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 농촌에서 로력관리와 로력조직을 잘하여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 녀성들에게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는 문제, 로동정량과 기술자격을 재검토할데 대한 문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에 대한 문제, 공동경리를 알뜰하게 운영하며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릴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일련의 방침들은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실로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다.

* *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함에 있어서 위력한 담보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문헌은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밝혀준 행동준칙으로 되며 또한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개선발전시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부단히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능동적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인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길, 맑스-레닌주의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먼저 정치를 앞세워야 경제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철저한 혁명적원칙을 밝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당적, 혁명적 방도와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기술적방도들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며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된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도를 밝힘으로써 경제관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를 가일층 발전완성시키는데 위대한 공헌을 한 고전적문헌으로 된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높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속에 진행됨으로써 당시 인민경제발전도상에서 발로된 일부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국가 및 경제 기관 특히 성, 관리국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실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진당적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다.

인민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와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이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전면적으로 심화되였으며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계속 발전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모든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들이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지난날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력사적기간에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다른 모든 로작들과 더불어 이 로작에 담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실천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추진하며 다가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경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습득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이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혁명근거지에서의 인민들의 혁명화

주 호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기 위하여 대중을 혁명화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첫시기에 친히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시고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혁명화의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인민들의 혁명화문제는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면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켜 단결된 힘으로 원쑤와 싸워야 합니다.

대중의 혁명화—여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을 혁명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민족해방위업의 승리를 달성하는데서 관건적문제였다.

원래 혁명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킬수 없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근거지인민들의 혁명화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근거지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노는 중요한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대초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하시였던 혁명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거점이였을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의 책원지였다.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여야만 근거지의 혁명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혁명운동을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우선 근거지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는 중요한 담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일찌기 세계혁명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근거지는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전략적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혁명근거지의 이러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자면 근거지인민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했다. 오직 혁명근거지인민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만 항일유격대의 군사행동의 기지를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해결하면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또한 근거지에 세워진 새 제도, 새 생활을 공고발전시키고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혁명적영향을 더욱 강화하며 전반적 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고리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혁명근거지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주권이 수립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이 실시되였으며 인민들은 보람차고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혁명근거지에 세워진 새 제도, 새 생활은 조국땅우에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암담하던 시기에 전체 조선인민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휘황하게 밝혀준 혁명의 등대였으며 미래의 상징이였다.

이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근거지인민들을 반드시 혁명화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하여야만 근거지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를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근거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혁명가로 육성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그들의 계급적처지와 각오정도를 보아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혁명근거지인민들은 일제와 그의 주구, 지주, 자본가놈들의 압박과 착취에 누구보다도 시달렸으며 땅과 집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와서까지 극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다. 이들 가운데는 일찍부터 의병운동, 독립군운동에 참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근거지인민들은 또한 일제놈들의 대중학살만행으로 원쑤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혁명투사들의 유자녀들과 유격대에 아들딸들을 내보낸 후방가족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그들의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심은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계급적각성정도도 각이하였다.

그러므로 근거지내의 모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시켜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만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우에서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동요없이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었다.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전체 조선인민들에 대한 혁명적영향을 강화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나아가서 조국이 해방된후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골간부대를 육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혁명발전의 일반적요구와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 그리고 당시 근거지인민들의 계급적처지와 사상동향들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근거지내의 모든 인민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친히 그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시면서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 *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우는 사업이란 결코 순탄

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화를 위한 오래고도 꾸준한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인 실천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려면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전면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곧 사상교양을 하며 사상투쟁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혁명사상은 곧 우리 당의 사상이며 우리의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을 혁명화하시기에 모든 정력을 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근거지내에 당 및 인민정권 기관들은 물론 공청, 부녀회, 농민위원회, 반일회, 아동단 등 각계층 군중을 망라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명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혁명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리하여 혁명근거지내의 당 및 인민정권 기관들과 공청, 부녀회, 농민위원회, 반일회, 아동단 등 혁명조직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중교양사업의 명확한 방향에 따라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으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근거지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그들을 조선혁명의 주체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함에 있어서 근본열쇠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전략전술, 무장투쟁의 구체적방도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하여 해답을 준 미리 고안된 그 어떤 처방이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더우기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이나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행된 장기적인 투쟁이였으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근거지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게 할수 있었으며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김일성동지께서 명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의 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었다.

혁명근거지들에서 이와 같이 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기때문에 근거지인민들은 적들과의 헤아릴수 없이 간고하고도 치렬한 투쟁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할수 있고 또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각오와 자부심을 가지였으며 오직 수령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한 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투쟁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높이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 일떠서도록 하는 첫출발이다.

조국땅을 짓밟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은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증오하고 그와 결탁한 계급적원쑤들과는 결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계급적각오가 없이는 인민들이 반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설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였으며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근거지인민들속에 자주 들어가시여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과 조국에 대하여, 슬기롭고 용감하고 지혜있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해주시였으며 이러한 우리 나라가 일제놈들에게 짓밟히고있다는것, 일제는 천추에 용서 못할 우리 인민의 원쑤라는것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1934년 요영구유격근거지내의 목재소와 류벌 로동자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왜 우리는 산좋고 물맑은 조국땅을 버리고 이국땅에 와서 망국노의 설음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때문이다. 일제강도들은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우리의 고향을 빼앗았을뿐만아니라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못살게 압박하며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을 무리로 죽이고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것을 근거지인민들에게 해설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근거지인민들은 일제놈들때문에 자기들이 겪고있는 참상을 울분속에 되새기면서 결코 더는 일제의 노예가 될수 없으며 사생결단하고 원쑤와 싸워이겨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결연히 일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의 민족적각성과 함께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여주시였다.

근거지인민들속에는 자기들의 계급적처지로부터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고는 있으나 계급투쟁의 법칙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군중에게 조선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원인은 그 무슨 《팔자》탓이 아니며 그것은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때문이라는것을 깨우쳐주시면서 놈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어 아동학교와 성인학교들에서도 《지주, 자본가는 왜 나쁜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토론하면서 계급과 계급투쟁의 원리들을 현실과 결부하여 깊이 깨닫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지금은 여러분이 도토리를 울궈먹는다지만 우리 무산계급의 세상을 세우는 날이면 매일같이 당콩박은 흰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곡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뼈가 휘도록 1년내내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수확의 거의 전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지주, 자본가와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있습니다.

그러니 이놈들만 때려없으면 우리가 잘 살수 있습니다.

때려없자면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합니다. 혁명을 하자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단결하면 못해낼것이란 없으며 참으로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단결의 힘이란 위대한것입니다.

…모두다 한사람같이 항일전선에 나와서 싸웁시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가르치심은 생활을 통하여 착취와 억압을 직접 체험한 근거지인민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평생 소작살이로, 머슴군으로 지내왔고 일년내내 등이 휘도록 일하여도 가을이면 빈손을 털고 나앉아야 하였던 지난날과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그이의 령도하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토지개혁을 하여 정권과 토지의 주인으로 된 근거지생활을 대비하면서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을 안고 반드시 놈들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각오를 높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인민들의 혁명화를 위한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키우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은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로선을 천명하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하고 독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있을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무산대중의 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목적은 강도 일제놈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는것과 함께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지주와 자본가를 쓸어버리고 풍만한 자원을 인민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압박과 착취를 모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였다.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원대한 목적을 실현하자면 근거지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조선혁명의 확고한 전망과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의 한 전선에서 변함없이 용감하게 싸워나아갈수 있었으며 열렬한 혁명투사, 공산주의투사로 준비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전투를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근거지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누구도 조국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행복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에게 산좋고 물맑은 조국땅의 경개며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 용맹한 투쟁이야기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였고 로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며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땅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가슴아픈 심정에 대하여,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목적과 사명,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인민이 살기좋고 행복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군 하시였다.

그리하여 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아로새기고 근거지에 수립된 새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옹호하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타개하면서 근거지생활에서 끝없는 행복과 보람을 누리였으며 조선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애국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사업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몸소 대중교양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근거지내에 조직된 당조직들과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의 전투적역할을 높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적통치구역과는 달리 합법적활동이 보장되여였던 근거지의 구체적형편에서 각종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시였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생활을 통하여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받는것을 곁에서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할수 있으며 혁명화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근거지들에서 대중단체들을 직접 조직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사업을 친히 하나하나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청회의, 부녀회의들에 친히 참가하시여 그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혁명조직들의 사명과 임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개별적인 조직성원들에 대하여서도 자주 만나시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대상이 알아들을수 있게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조직생활을 잘 하여 훌륭한 혁명가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따뜻한 배려에 고무된 대중단체의 모든 간부들과 조직성원들은 하나의 의지로 결속되여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였다. 그들은 조직생활과정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배우고 자신의 정치의식수준을 급속히 높이였다. 이와 함께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자체수양을 부단히 강화하고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며 오직 집단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풍을 키우면서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켜 나아갔다.

때문에 그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각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그들은 혁명근거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 당조직이나 항일유격대 그리고 적통치구역에 파견되여 맡은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근거지에서의 각종 혁명조직들은 그 조직성원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는 실로 훌륭한 학교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근거지인민들을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하고 세련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혁명적실천을 떠난 혁명화란 있을수 없다. 혁명실천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검열하며 열렬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혁명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사람만이 투쟁의 앞길에 나서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뚫고 원쑤와 싸워이길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서만 자신도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고 자신의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촉진할수 있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심에 있어서 인민혁명정부와 혁명조직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투쟁과업을 주되 처음에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부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며 그 집행과정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면서 실천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교양육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거나 인민혁명정부와 자신이 속한 혁명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맡고 그것을 철저히 제때에 관철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그들은 삐라공작, 통신련락, 적정정찰, 물자구입, 경계근무, 무기탈취, 유격대원호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련되면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과업, 나아가서는 적후공작 등 어려운 임무를 맡아수행하면서 혁명가적 기질과 품성을 배양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킨것은 그들의 정치사상의식과 함께 실무능력 그리고 완강한 혁명가적기질을 급속히 높이게 한 가장 효과적방도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심에 있어서 혁명투사들이 자기들의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는데 또한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합니다.…

가정혁명화는 혁명의 견지에서 보나 혁명가의 활동과 그 자제들과 친척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나 필연적요구로 제기되며 따라서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혁명근거지에서 가정을 혁명화한다는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무장된 붉은 가정으로 꾸리는것을 의미하였다. 즉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단순한 혁명의 동정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적극적인 혁명투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것이였다.

혁명투사—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더욱 혁명화하는데 힘을 돌리면서 자기 가정과 친척들을 혁명화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밑에 오중화동지의 일가가 혁명화된 경험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오중화동지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는 길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라는것을 정확히 깨우쳐주었다. 이리하여 일가 친척 30여명을 모두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으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웠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가정혁명화방도는 근거지의 전체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의 혁명조직들이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리용할데 대하여 언제나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에서 각종 형식과 방법들을 옳게 적용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다.

근거지에서는 당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실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혁명적문학예술활동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들이 즐겨부를수 있는 혁명가요들을 지으시고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충만한 연극대본을 손수 쓰시였으며 연예공연을 지도하여주시기까지 하시였다. 이리하여 근거지에서는 문학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지여 아이들이건 늙은이들이건 누구나 다 《총동원가》, 《적기가》, 《유격대행진곡》등을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부를줄 알았으며 《피바다》를 비롯한 여러 연극대본의 줄거리를 따로 외워가면서 그에 담겨진 혁명사상을 파악하여 자신을 혁명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아동학교와 성인학교의 교재를 친히 편찬하시였으며 혁명적출판물의 원고도 손수 쓰시였다. 근거지의 인민들과 아동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교재와 혁명적출판물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읽고 토론하는 등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일반지식과 정치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수 구두선전, 직관선전, 강연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을 조직하시고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근거지 인민들은 실로 빠른 시일내에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실천적모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극진한 배려를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그이를 수령으로 모신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였으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 인민혁명정부의 수립과 제반민주주의적시책의 실시 그리고 반《민생단》투쟁과정에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민족배타주의자, 종파분자 등에 의하여 조성된 혁명의 위기를 타개하시고 혁명을 줄기차게 밀고나아가시는 그이의 고결한 혁명가적풍모, 높은 맑스-레닌주의적식견,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의 실현에서 보여주신 높은 사상과 정연한 론리, 능숙한 정치적수완, 전투마다에서 보여주신 그이의 독창적이고도 천재적인 백전백승의 명군술, 인민에 대한 바다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은 어버이사랑, 끝없이 고결한 덕성, 그이의 위대한 혁명가적지략 등 이 모든것들은 근거지인민들로 하여금 오직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만이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에 청춘도, 생명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간직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근거지인민들은 근거지에 수립된 혁명의 전취물을 철저히 보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들은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견지함으로써 근거지에 조성된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혁명을 위하여 꿋꿋이 살며 싸웠다.

근거지인민들이 유격대원들을 도와 일제침략자들의 집요한 《토벌》공세를 그때마다 물리치고 근거지를 4~5년동안이나 보위한 영웅적투쟁은 그들이 혁명화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혁명근거지인민들이 혁명화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보다 튼튼히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혁명근거지는 군사활동의 전략적기지인 동시에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의 혁명근거지에서 인민들을 혁명화하신 빛나는 업적과 경험을 이어받는것은 오늘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차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전통을 연구하여 자신을 혁명화하지 않고는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가가 되지 않고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없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이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신 빛나는 혁명업적과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근거지인민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당의 유일사상—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임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와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중요한 로작들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완성된 리론을 전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리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을 천재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앞에 나서는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3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과거사회에서 물려받은 생산력발전에서의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특히 지난날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뒤떨어진 나라들과 아직도 제국주의 식민지예속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에서 정치적독립을 쟁취한후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한 다음에도 비교

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공업화를 실현하여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종다양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이러한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축성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이와 같이 매개 민족국가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게 하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하게 하는데서도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4페지)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인민들이 착취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밑에서 생존의 초보적권리마저 박탈당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그 어떤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급속히 향상된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제도만이 가지고있는 우월성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이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몸바쳐 싸우도록 할수 있으며 특히 지난날 중산계층에 속하였던 사람들의 동요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들을 자기의 편에 확고히 쟁취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도,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도 결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성과에서 나타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가일층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만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공업화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와 같은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개조를 촉진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6페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상사업 하나만 가지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국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일 때에만 성과적으로 개변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추진시켜야 할 계속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방을 분쇄하고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며 공산주의운동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

주의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고 공산주의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앞에는 매우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업들이 나서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9~10페지)

사회주의국가가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능에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쑤들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건설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반항한다. 특히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며 사회주의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안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앞잡이로 리용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무엇보다 먼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여야만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평화적조건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다그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경제건설에 최대한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결정적고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 개인리기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의 이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나타내자면 근로자들속에서 사

상혁명을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찾아내며 기술발전에서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이 현대적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사회주의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9～110페지)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관건적문제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혁신하며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또한 기술혁명을 하여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그들에게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기술발전을 위한 무제한한 가능성이 열려져있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은 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기술혁명의 정확한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며 이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인입하여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시켜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술혁명을 홀시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킬수 없고 사상혁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하고 기술발전일면에만 치우친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적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할수도 없으며 기술혁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우리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축성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변천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계속 따라세워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

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5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관계는 생산력발전에 적응하며 상부구조는 확립된 토대에 적응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발전에 넓은 길을 열어주며 상부구조는 자기의 토대를 공고화하는데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발전에 대한 생산관계의 적극적작용,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능동적작용이 저절로 강화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의 요구에 맞게 생산관계의 개별적측면들과 상부구조의 개별적요소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시켜나갈 때에라야만 끊임없이 강화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급속히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적응시키고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개선하고 완성시켜나가야만 생산력발전에 대한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변천되는 새 환경에 맞게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시켜 나가는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을 구현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시였으며 그것을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천재적으로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경제관리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적 원칙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지도와 관리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그 발전전망에 맞게 해결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일원화하고 세부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하여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국가의 의도와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가장 정확히 배합함으로써 참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계획화체계이며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와 방법을 개선완성시켜나가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국가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상품화폐관계를 가장 정확히 리용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또한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

읍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3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페관계를 정확히 리용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을 개선하고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참말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통찰력과 탁월한 혁명리론으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 특히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전기간에 상품화페관계를 옳게 리용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 특히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제시하신 제반 원칙적문제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그이께서 가리키신 정확한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는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조국이 분렬되여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첨예하고 긴장된 정세하에서, 북반부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물리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그것은 또한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각방으로 방해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온갖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추호의 동요없이 나아감으로써 오늘과 같은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일관하게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특성과 현실적조건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건설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전후시기에 들어와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로대를 쌓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령락되였던 인민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일관하게 견지하여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로선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하였기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를 복구건설하는데서 력사가 아직 그 류례를 모르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천리마적속도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빠른 길을 따라 건설하여나갈수 있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사업방법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기술혁명의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대중을 힘차게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의 지나온 전기간에 걸쳐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로선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온 결과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았다. 실로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천재적으로 밝히시고 혁명적인 경제리론들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건설은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된 상태에서, 적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이 과정에는 선행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에 의해 해명되지 못하였던 수많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나서고있다. 또한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적견해들은 혁명과 건설의 다른 분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도 심대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여 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혁명리론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시기 경제건설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원칙적문제들 특히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그 실현을 위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대한 문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의 기본원칙과 상품화폐

관계의 리용에 대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가일층 풍부히 하는데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속히 앞당겨야 할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4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의 경제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미제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어느때든지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키는것은 또한 나라가 통일된후 미제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하루빨리 복구발전시키며 만성적인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을 더잘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나라의 공업화와 전면적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에 어느때든지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다지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 다그쳐나갈 때 날강도 미제는 우리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할것이며 설사 그놈들이 무모한 불장난에 매여달린다 하여도 놈들을 일격에 때려눕히고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기세, 인당백의 기세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신 수 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무려 10여차에 걸치는 현지지도와 지극한 배려,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대안전기공장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발원지로, 나라의 강력한 대형전기기계생산기지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도 1961년 12월 우리 대안전기공장에 친히 내려오시여 공장의 생산정형, 기술상태, 설비상태, 보장조건, 로동자들과 합숙생들의 생활형편 등 경제관리와 로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시고 낡은 관리기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시였으며 새로운 기업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해 11월에 다시 내려오시여 대안체계도입후 1년간의 사업을 총화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확립되고 경제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하여졌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매우 높아진 조건에서의 공업관리체계문제,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본질적 우월성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급속히 도입일반화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무기로 되였다.

대안체계가 도입된이후 지난 8년간에 우리 대안전기공장에서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기풍에 있어서나 물질기술적면에 있어서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안체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대안체계가 도입되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간, 로동자호상간,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간에 서로 돕고 이끄는 생활기풍이 일반화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굳게 단결하여 수령의 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나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다내여 일하고 있다.

대안체계가 도입되고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풍모가 튼튼히 서게 됨으로써 우리 대안전기공장에서는 생산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국가계획과제는 매달, 매분기별로 넘쳐수행되고있으며 전기기계의 총생산액은 2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소요되는 수많은 새로운 품종들을 생산하게 되였

으며 제품의 질도 세계적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하나의 분공장으로서 자그마한 변압기와 전동기도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대안전기공장은 오늘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과업이라면 그 어떤 복잡하고 규모가 큰 전기기계설비라도 능히 생산할수 있는 나라의 강력한 대형전기기계생산기지로 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생산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대안전기공장은 1963년 3월 15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첫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196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공장의 높은 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우리 대안전기공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 이 커다란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공장당위원회는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사업체계의 첫째가는 우점은 그것이 공장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잘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공장에서 모든 결정권이 지배인에게 있었으며 지배인이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로동자들은 공장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매우 불충분하게 참가하였으며 그저 여덟시간동안 자기가 맡은 일이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였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그들에게는 거의 상관이 없는것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생산에 대하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령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4~425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대안체계의 첫째가는 우월성이 공장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공장관리운영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는데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경제관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경제관리에서의 주인도 그들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이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경제부문들간의 생산적련계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것은 합법칙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는 그 어떤 개인의 총명이나 독단에 의해서는 잘 관리운영할수 없다.

오직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는 집체적령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제는 경제관리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이며 경제관리에서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집체적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령도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가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공장을 관리운영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공장 당위원회에는 …당간부들, 행정간부들, 핵심적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정신상태와 기술수준, 기술정비정형과 자재 및 후방물자의 공급정형 같은 공장의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한 기초우에서 옳은 방침과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의 우월성의 하나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인 동시에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당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여야 하며 어떻게 사업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제관리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돌린것은 우선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옳은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그 집행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된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공장의 관리운영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과 방도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에 맞게 옳게 세워지는가 못세워지는가에 달려있다.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집체적령도를 원만히 보장하며 경제관리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는데서 선결조건은 당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잘되는것이다. 당위원회의 위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되고 공장안의 중요한 부문들의 실정을 잘 알고있으며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유능한 핵심들로 꾸려져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직접적인 배려밑에 공장당위원회는 당일군, 행정관리일군, 공장의 중요한 부문들에서 일하는 핵심적 로동자들과 기술자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공장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상태와 기술상태 및 생산보장조건 등 공장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그리고 대중의 창조적지혜가 충분히 반영된 공장관리운영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수 있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지도방조할수 있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에 의한 옳은 방향과 방도의 제시 그리고 당위원회의 일상적인 지도방조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로동자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 보낼 축전지차를 만들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할 때의 일이다. 공장당위원회는 수령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동원하는데 힘썼다.

당위원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당의 요구와 공장의 구체적실정을 알려주고 그들과 거듭되는 집체적협의를 진행하였다. 대중의 창발적의견들을 종합한데 기초하여 공장당위원회는 주강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축전지차의 적지않은 부분품들과 부속들이 주강품인 조건에서 그 질을 높이는것은 가공추대를 훨씬 줄이게 하며 오작품을 근절하고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는 결정적고리였다. 공장당위원회는 금속기술자들을 비롯한 일부 력량을 주조직장에 돌리고 일군들로 하여금 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의논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조직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옳은 방향과 대책을 세우고 그 집행을 잘 지도함으로써 주강품의 질을 훨씬 높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축전지차생산과제를 기한내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며 지도일군들의 배합작전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공장내의 모든 부서, 일군들, 로동자들의 활동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하는것이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 다음에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그 실현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고 지도일군들의 배합작전을 강화케 함으로써 공장의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지배인은 기업소의 전반적인 행정경제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며 기사장은 공장참모부를 틀어쥐고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조직정치사업을 책임지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시킴으로써 행정기술사업을 정치적으로 안받침해준다. 지배인과 기사장, 당책임비서는 공장당위원회가 내세운 대책들을 실현하는데서 늘 협의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힘으로 풀어나간다.

지도일군들간의 이러한 배합작전은 공장관리운영에서 독단과 주관을 없애고 집체적힘을 훌륭히 동원할수 있게 하였으며 공장관리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고 문제해결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절연재료들을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장당위원회는 우선 집체적협의밑에 처음부터 큰 절연물직장을 차리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연구소를 꾸리고 시험생산을 거쳐 대량생산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일군들간의 배합작전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공장지휘성원들인 지배인, 기사장은 시험소를 꾸리는데서 걸리고있는 행정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취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해주었으며 당일군들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에 이악하게 달라붙게 하고 걸린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훌륭한 각종 절연재료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공장절연물연구소는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졌으며 종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수십종에 달하는 각종 절연물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관리에 대한 집체적령도를 강화하며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당위원회가 중요한 관심을 돌린 문제의 하나는 공장내의 각급 당조직들의 활동을 강화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잘 보장하면 모든 당원들을 움직일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움직이면 모든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게 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철저한 집체적지도는 없으며 이 이상 공장의 집체적힘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25~426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가 당원들을 발동하는 전제로 되는 동시에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에서 어렵고 중요한 자리에 당원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으며 약한 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동요없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아래에 내려가 초급당조직들과 당세포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방조하였으며 특히 매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며 그들모두가 움직일수 있도

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고 군중속에서 발언권과 위신이 서게 하였으며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여 모든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기간 대형조립부문 로동자들이 기준량을 4배이상으로 넘쳐수행하고 년간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초과완수한것을 비롯하여 현공장설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오늘과 같이 그렇게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것 등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당사업이 강화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데서 이루어진 결실이다.

경험은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경제관리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기본담보의 하나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장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내세운것은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실지사업에 구현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의 요구이며 또 그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본질이 참모부요, 업무부요 하는 새로운 관리기구에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기구를 짜놓아도 간부들이 이 기본정신을 잊어버리고 우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호령만 한다면 이 체계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8~169페지)

새로운 공업관리체계가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알맞는 사업방법이 동반되여야 한다. 기구체계는 그 자체만으로써는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옳은 방향과 방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것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는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이로부터 공장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98~299페지)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서 군중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에게서 지혜와 힘을 얻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러한 사업은 경제관리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제때에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그 관철대책을 올바로 세워 집행하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여기에 아래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고 지도와 대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군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이것은 또한 기업소의 구체적조건과 생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에 기초하여 생산의 제요소들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게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과학성,

합리성을 보장하게 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계획적으로 아래에 내려가게 하며 아래를 도와주는데서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며 인민적사업기풍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체의 힘으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힘썼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굳게 단결시키고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훌륭히 동원할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 모든 생산단위들이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사람들이 사상동원이 되여 다 자각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이며 군중을 동원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기술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인것이다.

만약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행정기술사업에만 치중하거나 혹히는 정치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물질적자극만 내세운다면 사회주의경제를 잘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도 없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자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가 정치사업에서 첫자리에 놓고 실정적의의를 부여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인군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경제관리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군들과 당원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견실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대안사업체계의 공산주의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옳게 리해할수 없으며 실지사업에서 그를 구현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과학리론적으로 해명되어있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의 구체적방도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모든 당원들과 인군들의 사업에서 유일한 자막대기이며 활동의 지침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만 위대한 변혁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현실을 바로 리해할수 있으며 경제관리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제때에 극복하고 제기된 문제의 옳은 해결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불바치게 싸울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잘 꾸리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당원들과 인군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적가정과 위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며 그이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고상한 풍모를 자기들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께서 하신 연설, 보고, 로작들과 당의 결정들을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집단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라난 우리 공장에서 그이의 현지교시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수령의 현지교시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대중강연, 담화사업은 물론 조직별로 되는 집중학습을 포치하는 한편 선동원들에게는 강습을 주어 근로자들속에 수령의 현지교시를 해설하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해 현지교시 기념일을 계기로 강연, 담화, 사진전람회 등을 조직하고 교시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고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물리치면서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게 하였다.

정치사업에서 공장당위원회가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대로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교양은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을 경영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움에 있어서 공장당위원회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는 당일군들뿐만아니라 행정경제일군모두가 정치사업을 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지도일군모두가 정치사업을 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술도 잘 알아야 하고 실무능력도 있어야 하지마는 이와 함께 정치사업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경제지도일군들은 마치도 정치사업은 당일군들만이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래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마 우리 경제지도일군들가운데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라면 유급당일군이건, 경제지도일군이건 할것없이 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으로 일해야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이 당사업을 해야 하며 정치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7～168페지)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에 기초하여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행정만능》, 《기술만능》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면서 모든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행정경제사업을 단순한 실무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방법으로, 당적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꾸준한 조직정치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행정만능》, 《기술만능》의 그릇된 경향이 점차 극복되고 경제지도일군들도 다 정치사업을 하게 되였으며 모든 문제를 정치적방법으로,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풀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장관리기구체계들이 실지 사업을 통하여 자체의 우월성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참모부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사업을 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계획과 생산, 기술 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었다. 또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후방공급체계가 은을 내여 모든 기대들에는 필요한 자재들이 제때에 내리공급되고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오직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칠수 있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장당위원회가 또한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는 그것을 제기된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혁명의 동력은 인민이며 군중인것만큼 그들에게 목표를 똑바로 대주고 거기까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며 거기에 가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만 그들이 확신성있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며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것이 바로 정치사업이며 군중과의 사업입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23페지)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이 교시를 정치사업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업에 구현하도록 조직지도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있을 때마다, 당의 중요한 정책적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공장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공장당위원회가 제시한 방향과 분공에 따라 생산현장에 내려가며 대중적인 토의를 통하여 모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로 하여금 수령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것이 얼마나 영예롭고 중요한 일이며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구체적과업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파악하도록 하며 이에 토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조직을 한다. 정치사업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당원들과 기술자들은 명확한 투쟁목적을 가지고 확신성있게 자기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으며 제기되는 과업을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과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한다는것은 경제기술적사업, 물질적자극을 도외시하거나 홀시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물질적자극을 이에 결합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과 정치도덕적자극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여기에 경제기술적사업,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치사업은 당일군들뿐아니라 모든 지도일군들이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 물질적자극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나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는데 있어서 적지않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에서 복철단조프레스를 창안제작하고 125크바 교류발전기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자체의 힘으로 일용직장들과 대형전기기계생산기지를 꾸리며 전기기계제품의 질을 높이며 보충완비설비를 해결하는 등 제기되는 모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은것도 결국은 정치사업이 대중의 심장을 울리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도록 진공적으로 힘있게 전개된데 있다.

우리 공장에서 처음으로 발기되였고 오늘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기술혁신련합작업반운동》은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적면모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공산주의적대중적운동이다.

이 운동은 련이어 수많이 제기된 기술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동지적협조

와 단결의 필연적결과로 발생하였다. 로동자들은 자기의 생산과제를 질적으로 완수한 다음에도 다음공정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기술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공정수행에도 사회적로동으로, 무보수로 참가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술의 발전과 생산장성에 자기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새로운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3폐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실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종전의 사업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공산주의적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사업체계인것만큼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이 아닐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려면 난관들에 부닥칠수 있으며 동요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법이다. 사실상 우리 공장에서 새로운 사업체계를 도입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난관들이 있었다. 특히 과거의 관리체계하에서 일하던 일군들의 낡은 사업관습은 우리의 전진을 심히 저애하였다. 이러한 난관들은 오직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사업체계를 반드시 관철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킴으로써 수령의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당의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려는 완강한 투쟁정신으로 하여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었다.

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바로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위대한 사업체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으며 여러가지 난관들을 용감하게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공산주의적기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태도에 달려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사업체계의 위대한 힘은 무궁무진하다. 수령께서 창조하여주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더욱 충분히 발휘시키자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영원히 간직할것이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국토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

도 응 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비롯한 여러 교시들에서 앞으로 국토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국토건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그를 대대적으로 벌리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서는 근거와 국토건설의 내용,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조건과 구체적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국토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을 힘있게 추진하며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건설의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리론적근거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토건설이란 경제림과 과수원을 조성하고 수리화하고 강, 하천을 정리하며 도로를 건설하고 정리하고 도시와 농촌부락을 형성하며 철도를 건설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토건설은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강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전국적이며 종합적인 자연개조사업이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조성하며 그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알뜰히 유지관리하며 국토전반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국토건설은 자기 나라 땅과 자원 그리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꾸려나가며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하게 잘 살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여나가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땅과 자원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리용하며 보호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국토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건설을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한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것이다. 국토건설을 잘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

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국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야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라를 문명하게 하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과 자연의 온갖 구속으로부터도 해방할수 있다.

국토건설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축성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국토건설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경제건설분야에 구현된것이며 제발로 걸어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자는것이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자면 주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과 토지, 산림자원과 강하천 등 국토와 자연부원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땅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전국가적견지에서 전망성있게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토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풍만한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국토건설을 하여야 나라의 어느 한 지역도 뒤떨어진데가 없이 모든 지역을 다같이 발전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강화되고 생산력은 빨리 발전할것이며 그에 따라 생산품은 많아지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상 수요는 국내생산으로 더욱더 원만히 충족될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이 또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천하려면 토지건설을 비롯하여 농촌건설을 널리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농업생산을 공업화하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과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으신 방침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빨리 추진하여 어디서나 다 기계와 전기, 화학비료와 농약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하며 소유관계도 농촌의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켜 협동농민들을 선진적인 농업로동자로 만들자는것이다.

국토건설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바로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에 있다. 물질적측면에서 농촌의 락후성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공업보다 뒤떨어져있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데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는 국토건설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토지건설을 비롯한 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이다.

토지건설을 비롯한 농촌건설을 널리 하지 않고서는 현대적농기계들과 기술수단들을 농업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할수 없고 그것들의 능력을 제대로 낼수 없으며 결국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물론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혁명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수리화는 기본적으로 끝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자체로 많이 만들고 있다. 농촌전기화도 가까운 앞날에 끝낼수 있으며 화학화의 전망도 크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기계를 비롯한 기술수단들이 제능력을 다 낼수 있도록 토지건설사업을 더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산지대와 비탈진 땅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토지건설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벌방지대나 산지대, 비탈진 땅이나 할것없이 모든 곳에 뜨락또르와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들어갈수 있고 그것들을 능률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비료와 살초제의 효능도 높이고 물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국토건설을 잘하는것은 이처럼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그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수준에 더욱더 접근시킴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키는 과정도 앞당기게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를 없애며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을 모두 선진적인 농업로동자로 만들수 있다.

이와 같이 국토건설은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첫단계의 과업,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과업을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이 나라의 경제뿐만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 하천, 도로, 주택, 공장과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문화정도를 규정하는 척도의 하나입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하천과 도로가 잘 정비되고 공장, 주택, 마을이 알뜰하게 꾸려져있다면 그 나라의 문화발전수준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를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고있는가 하는것이 나라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국토건설이 나라의 전반적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든것이 풍족할뿐아니라 국토의 모든 요소들을 정리미화하여 근로자들의 생활환경도 문화적으로 꾸릴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국토건설은 바로 나라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땅과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과 국토를 정리미화하며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연개조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국토건설에는 국토와 자원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맞게 개발하는것과 국토의 모든 요소들을 정리미화하여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이 통일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반드시 국토건설을 하여야만 경제와 문화를 다같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특히 수천년에 걸쳐 억압과 착취와 빈궁이 가져다준 낡은 때를 완전히 가시고 우리의 농촌을 새로운 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국토의 전반적인 면모를 참말로 문명하게 문화적으로 일신시킬수 있다. 또한 국토건설을 잘하여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논밭과 산천을 알뜰하게 꾸릴 때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은 더욱 흥겨워질것이다.

국토건설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마땅히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사상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규정하는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사상혁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도 국토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국토건설은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꾸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 모든것은 국토건설을 잘하는것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국토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당과 인민의 힘 그리고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과학적인 예견성,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국토건설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가는 길을 보다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아직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고 해명하지 못하였던 완전히 새로운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이다.

국토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리론을 더욱 풍부히 한것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또하나의 거대한 기여로 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를 구상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토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이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익혀오신, 조국을 광복하시고 이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해방된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개발하여 우리 인민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사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자연개조사업을 새 조국 건설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시고 몸소 그 실현을 위한 위대한 첫발기를 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 실현할 웅대한 자연개조의 설계

도를 작성하시고 그 실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주객관적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국토건설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광복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세워주시였으며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고 도시와 농촌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토와 자원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마음껏 개발리용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국토건설은 오직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하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국토건설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농촌에서만 보더라도 착취계급은 농촌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둡고 어지러운 곳으로, 뒤떨어진 곳으로 만든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기 때문에 국토건설을 전국적규모에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국토건설을 실현하는것이 커다란 사회적관심사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건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국토건설은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농민은 물론 로동계급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토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국토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시였을뿐 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국토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토지건설문제를 전면에 내세울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 나라 기계공업이 토지건설에 요구되는 중기계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런 문제를 내세웠댔자 빈말로밖에 되지 않았을것이기때문입니다.… 많은 면적의 땅을 정리하는것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현대적중기계없이 곽괭이나 삽, 지게 같은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대형불도젤을 비롯하여 대형엑스까와또르, 대형자동차와 같은 중기계들을 만들고있으며 그 생산량은 앞으로 빨리 늘어날것입니다.》

국토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필수적인 과업이지만 그것은 그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과 함께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보장할수 있을 정도로 공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여야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가 창설됨으로써 대자연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에 유리한 제반 조건들이 성숙되는 정도에 따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이 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국토건설을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

켜 진행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해야 할 사정과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업과 농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켰으며 치산치수사업과 관개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산림을 조성하며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정리하며 현대적인 도시와 문화농촌을 건설하는 등 방대한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탄광, 광산들과 공장, 발전소, 철도와 도로, 항만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크고작은 저수지들과 수만리 물길이 생겨났으며 공공문화후생시설들이 도처에 건설되였다. 또한 농촌에는 아담한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방대한 규모의 과수원과 경제림이 조성되였으며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이 개발되고 서해안간석지도 개발되고있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는 더욱 공고화되고 국토의 면모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국토건설과 국토관리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은 또한 그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이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에게는 토지건설과 농촌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웅대한 자연개조를 구상하시고 직접 지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대자연개조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하여주며 우리 인민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가 대대적으로 벌려야 할 대자연개조사업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심려하여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일련의 교시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떨쳐나서 전국적범위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과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당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사회경제적 및 물질기술적 조건을 가장 과학적으로 타산한 혁명적인 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건설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인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놓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의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국토건설을 실현함으로써 후손만대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생활밑천을 확고히 마련하며 낡은 사회의 수천년 묵은 때를 가시고 나라의 면모를 문화적으로 일신시켜야 할 숭고한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벌리게 될 국토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준비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토건설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국토건설부문에 주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들을 철저히 연구체득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것을 깊이있게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

으로, 뼈와 살이 되게 하며 국토건설에 대한 당의 요구와 그 실천방도를 명확히 알고 당정책관철에 혁명적으로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상과 애국주의사상이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후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피땀을 흘릴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1페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은 우리 세대 사람들뿐아니라 후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생활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모두가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특히 이 부문 대렬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국토건설부문 기업소들과 연구기관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대렬을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국토건설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국토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토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계획을 면밀하게 만드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우리 당이 하려는 국토건설은 나라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그것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진행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필요한 측량도 하며 모든것을 엄밀히 따져 설계에 반영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 현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것이다.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국토건설은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일정한 경험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조직된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험적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설계와 계획도 더 잘 만들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농촌건설사업은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국토건설사업에서도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 국토건설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대형기계생산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전체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토건설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준비를 모든 면에 걸쳐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대대적으로 벌리게 될 국토건설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장기《집권》책동은 과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최 필 원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3선개헌》놀음을 조작하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과 사회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3선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감행하고 그의 《통과》를 날조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1971년 여름에 실시될 괴뢰대통령선거놀음을 앞두고 제놈들의 손으로 한놈이 두번이상 련이어 《대통령》을 해먹을수 없게 만든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장기《집권》의 《법》적기초를 마련하려는 책동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추악한 책동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해나서고있는 모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또하나의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도전으로서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행위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기를 쓰고 성사시키려는 장기《집권》야망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가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서산락일의 운명에서 발악하는 놈들의 추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헌법》을 고치고 란동을 벌리고있으나 그것은 한갖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것은 미제의 검은 배속에서 흘러나오며 놈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허수아비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정권>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모두 미국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8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려놓고있는 장기《집권》책동은 다름아닌 미제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술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략탈적, 군사침략적 야망에서 출발하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미제와 그 주구들이 장기《집권》놀음에서 무엇을 얻자고 하며 어찌하여 박정희역적놈에게 계속 《대통령》의 감투를 씌우려고 하는가 하는것은 자못 명백하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른바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조작하고 성사시킴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계를 건져내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부지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눈독을 들이고 침략행위를 감행하여왔으며 8.15이후에는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그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략탈과 탄압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전례없는 가혹한 식민지적략탈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사회경제적위기는 절정에 달하였으며 인민들은 암흑천지에서 헤매고있다. 특히 만고역적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횡포무도한 군사파쑈테로통치로 하여 미제에 의한 식민지적예속성과 남조선사회의 파괴상은 일층 심화되였으며 남녘의 온 강토는 테로와 학살과 빈궁, 무권리와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대로 살래야 살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더욱더 자각하고 반미반독재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놈들의 저주로운 명줄은 걷잡을수 없이 끊어져가고있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체계를 횡포무도한 군사파쑈테로통치를 더 연장하는것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부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놈들은 이밖에 그 어떤 다른 길이란 더 찾아낼수 없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테로통치의 극악성과 잔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7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오직 이와 같은 야수적인 군사파쑈통치에 의거함으로써만 저들의 끊어져가는 숨통을 하루라도 더 이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놈들에게는 저들의 충실한 개이며 군사깡패인 박정희와 같은자가 절실히 요구되는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깡패 박정희역적놈이야말로 그 어느 주구보다도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이며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이기때문이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강도적수법으로 《대통령》감투를 쓴 이놈은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의 그물로 뒤덮게 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잔악한 탄압을 가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흉악한 교살자로서, 인민탄압과 사람잡이로 이름난 인간백정, 파쑈교형리로서의 《솜씨》를 보여주었다.

만고역적 박정희는 원래 일제때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집행의 충실한 주구였으며 8.15후에는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여 놈들의 조선침략과 식민지예속화 정책을 떠받들고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지않고 감행한 자이다. 미제침략자들의 충실한 주구로 된 박정희역도는 괴뢰정권을 타고앉은 이후 미제상전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서슴지않았으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면서 남녘땅을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게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매국역적 박정희악당놈이 바로 이와 같은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임으로 하여 이놈을 계속 괴뢰정권에 눌러앉히며 하며 이놈을 부추겨 파쑈테로통치를 유지해나감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얽매여두려고 꾀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장기《집권》책동을 벌려놓고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테로통치를 계속 유지해나감으로써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되살아날길없는 파멸적위기에서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고있다. 놈들은 지금 침략의 주되는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으며 특히 조선땅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광하고있다.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준비를 일층 다그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모험적군사도발책동을 더욱더 격화시키고있으며 전조선을 집어삼키며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려는 오래전부터의 야망을 실현하

여보려고 날뛰고있다.

이 흉악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놈들에게는 남조선에서 계속 군사파쑈독재가 요구되는것이며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인 군사깡패 박정희따위의 머슴군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박정희역도야말로 미제의 충실한 전쟁머슴군이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놈들의 길잡이, 앞잡이이다.

시종일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실현의 하수인으로 복무하면서 천추만대로 용서못할 치떨리는 범죄적만행을 일삼아온 박정희역도놈은 괴뢰정권에 올라앉은 첫날부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해나섰고 남조선을 미제의 군사기지로 내맡겼으며 남조선경제를 놈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변시켰다. 이 역도놈은 미제상전이 불어대는 전쟁나발에 맞추어 꼬리를 치며 분별없이 날뛰고있으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괴뢰군을 증강하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계속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이놈은 미제상전의 지시를 떠받들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일협정》까지 체결하고 정치, 경제, 군사 부문에서 일제와의 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음모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범죄적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역도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계획을 실현하는데 충실히 복무하는 놈들의 더러운 개일뿐아니라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을 집행하는 충실한 개로서의 《솜씨》를 또한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으뜸가는 전쟁머슴군으로 반벗고나서고있는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그 어느 괴뢰보다도 제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일 많은 괴뢰군병력과 민간인들을 미제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에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동시에 미제가 일본군국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만들려고 꾀하는 아세아괴뢰들의 《반공》군사동맹결성음모실현에서도 미제의 그 어느 괴뢰보다 열이 올라 발벗고나서고있으며 미제의 대아세아침략계획실현에서 앞장설것을 다짐하고 온갖 추악한 범죄적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간악한 군사파쑈교형리인 박정희역적놈이 바로 이와 같이 제놈들의 충실한 전쟁머슴군이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놈에게 괴뢰대통령의 감투를 다시 씌우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는것이다.

* *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장기《집권》놀음은 완전히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 매수와 기만의 방법으로 일관되여있다. 그것은 이놈들이 소위 저들의 정치적세력을 꾸리기 위한데서와 《3선개헌안》의 《통과》를 위한 책동에서 그리고 파쑈폭압기구의 확장과 탄압책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박정희역적놈의 장기《집권》음모를 꾸며온 미제는 올해에 들어와서 더욱 로골적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두둔해주고있다.

한편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박정희역적놈은 괴뢰대통령감투를 계속 눌러써보려고 제놈을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제거하고 정치적지반을 꾸리려고 혈안이되여 날뛰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는 이와 같은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괴뢰국회를 자기의 충실한 앞잡이들로 꾸리며 《민주공화당》내에서 자기의 《일인독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괴뢰행정부와 괴뢰사법계를 제놈의 손아귀에 든든히 거머쥐려 하고있다. 박정희역도놈은 이미 1967년 《선거》를 중요한 기회로 삼고 《국회》의석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례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역도는 《민주

공화당》내에서도 제놈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기 위하여 혈안이되여 날뛰면서 《당기관정비》소동을 벌려놓고 각 도, 시, 군의 《당》조직을 제놈을 추종하는 이른바 《정수당원》으로 꾸려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매국역적 박정희놈은 괴뢰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보충강화하고 권력을 제놈에게 더욱더 집중시키기 위하여 《청와대비서실》을 비롯한 《행정》, 《사법》, 《경찰》 등에 대한 《인사이동》을 빈번히 조작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일떠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려고 파쑈폭압기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늘이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박정희괴뢰도당은 수많은 《경찰서》와 《파출소》를 비롯한 폭압기구를 새로 늘이고 제놈들의 《3선개헌》놀음을 반대하여 일떠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제놈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위협과 공갈, 협박과 박해,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고있으며 학교들에 수많은 특무들을 박아넣고 애국적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거나 괴뢰군에 강제로 끌어가는 등 온갖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장기《집권》을 위한 박정희역도의 발악적책동은 《3선개헌안》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놀음에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지난날 야밤삼경에 한강다리를 건너와 《정권》을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잠든 틈을 타서 괴뢰국회건물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뒤고방에서 단 몇분동안에 《3선개헌안》의 《국회통과》를 날치기식으로 조작해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박정희도당은 《관권》과 금력을 총동원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민주공화당》내 기구를 《평시체계》로부터 《전시체계》로 전환하고 수만명의 《행정공무원》, 그리고 《향토예비군》까지 전적으로 《국민투표》놀음에 내몰았으며 인민들을 회유, 매수하기 위하여 1967년 괴뢰대통령선거당시의 《선거》자금보다도 2배나 더많은 200억원의 《선거》자금을 뿌리였다. 놈들은 《민주공화당》의 두목들을 파견하여 《지지표》획득을 위한 《유세》놀음을 벌리다못해 박정희역도놈자신이 직접 나서서 《3선개헌》을 반대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갖은 추태를 부리였다. 놈들은 수만명의 유령유권자들을 조작해냈을뿐만아니라 남조선도처에서 《3—5인조》, 《대리투표》, 《리베시투표》, 《무더기투표》들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박정희역도가 괴뢰대통령감투를 계속 눌러쓰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이미 칠성판에 오른 제놈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다. 놈들의 발악은 결국 제놈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게 할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입니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그자체가 벌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우와 같은 책, 388페지)

사실상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의 거족

적인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전면적파산의 위기에 빠졌던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5.16군사정변을 조작하고 박정희와 같은 희세의 극악무도한 파쑈괴뢰를 《정권》에 들여앉혔지만 그 이후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뿐만아니라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한층 격화시켰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군사파쑈테로통치하에서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되고 정치적혼란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경제와 문화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아사참경에 이르렀다.

매국역적 박정희의 군사파쑈테로통치로 인하여 남조선에서는《인권을 유린하는 정보정치, 여론을 무시하는 강권정치》가 살판침으로써 《공기없는 천지, 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로 전락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매국역적 박정희군사깡패의 군사파쑈테로통치가 연장되면 될수록 남조선사회의 이러한 비극과 참상은 더욱더 우심하여질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더욱 절정에 이르고 사회적불안은 계속 증대될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결국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매국역적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다른편으로 하는 심각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전반을 밑뿌리로부터 뒤집어엎게 할것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테로통치를 강화하면 할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더욱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킬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떠한 탄압책동으로써도, 어떠한 속임수로써도 결코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으며 제놈들을 종국적으로 때려엎기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난날 만고역적 리승만이 바로 미제의 부추김밑에 《4사 5입개헌》이라는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던 《개헌》놀음을 벌려놓고 《종신대통령》의 감투를 써보려고 갖은 전횡을 다하였으나 놈에게 차례진것은 파멸과 죽음뿐이였다.

매국역적 박정희의 운명도 결코 이와 달리 될수 없다. 오늘 박정희군사파쑈깡패가 지난날 리승만도 생각하여내지 못하였던 날치기수법으로 《종신대통령》에 눌어붙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으나 이놈도 마침내는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하여 타도되고야 말것이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3선개헌》놀음을 무효로 선포하고 반미반독재투쟁의 불길을 그 어느 때보다 더한층 높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끝장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종국적으로 때려엎기 위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정의로운 혁명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주되는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과정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훌륭한 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나

고있으며 그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밀접히 결합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음모를 둘러싸고 오늘 남조선반동지배층내에서도 추악한 권력쟁탈전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1971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매국역적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한편으로 하고 《정권》을 잡지 못하고있는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간의 더러운 권력쟁탈전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집권당》인 《민주공화당》내에서도 알륵과 모순이 심해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은 또한 세계의 광범한 사회여론앞에서도 신랄한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날로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인민들에게 얻어맞고 철저히 고립되고있으며 쫓겨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으나 놈들은 더욱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제놈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마침내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것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　　　*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음모를 철저히 짓부시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전체 남북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민족지상의 혁명과업이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의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다음에야 이룩될수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은 우리의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장애물이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조국의 통일독립은 실현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력량을 더 빨리 준비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계속 힘차게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은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드시 때려엎을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사회주의길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 민족적 독립과 번영의 길

현 명 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이 나라들앞에는 낡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며 혁명을 계속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대의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맑스-레닌주의적전략을 작성하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민족해방혁명에서 제기되는 이 절박한 문제들은 바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완전무결하게 전면적으로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사상리론적문제들은 오늘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무한히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민족해방혁명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할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이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사회주의길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완전한 계급적해방을 이룩하며 민족적억압을 청산하고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락후와 빈궁, 몽매를 청산하고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참다운 생활을 이룩하는것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이며 그들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민족적과업이다. 그들의 이러한 세기적숙망은 오직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있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만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적근원이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오직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흥겹게 일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각적열성을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생산에서 높은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공황을 모르며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의 물질적부가 증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치부를 위한데 있기때문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빈궁과 무권리를 면할수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테두리안에서는 자국의 자본가들과 지주들로부터 착취를 받을뿐만아니라 외래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착취를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기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에 기초하여 생존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 기초하여 생존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의 길은 빈궁과 몰락의 길이며 오직 사회주의길로 나감으로써만 완전한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고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길은 또한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에게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완전한 민족적평등을 보장하는 길이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정치적독립을 쟁취한데 머물려있을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하여야 한다.

정치적독립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며 사회주의길로 나감으로써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주적인 민족으로 될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의 테두리안에 머물려있게 되면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이미 달성한 정치적독립까지도 잃어버릴수 있다. 자본주의는 한나라의 범위에서 볼 때에는 소수 자본가가 다수 근로자들을 지배하는 관계로 되여있지만 세계적범위에서 볼 때에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관계로 되여있는것이다.

오늘 남북조선의 상반되는 두 현실은 자본주의의 길은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길은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 완전한 독립과 번영의 길임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는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수령의 품속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와는 반대로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고 인민들은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무서운 파쑈적폭압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사회주의길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에게 완전한 계급적해방과 민족적독립을 담보하는 길일뿐만아니라 모든 민족이 반드시 걷게 되는 사회발전법칙이 가리키는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회발전법칙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시대를 다 살았다. 자본주의가 인민들의 투쟁과 자체의 고유한 모순에 의하여 멸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세계인민들의 고상한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고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열렬히 념원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의 길만이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며 민족해방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력사적과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0폐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력사적과업은 오늘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근본문제들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우선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마사버리고 모든 국가기관들에서 식민지잔재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지주로운 식민지통치기구와 그 잔재세력을 그냥두고서는 민족적독립의 공고회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마사버린데 기초하여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며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필수적과업으로 된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세우는 정권은 반드시 철저하게 반제적이며 자주적이며,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으로 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만 세기적인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성과적으로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혁명을 계속 추진시키는 사업은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민족의 군대를 창설하고 그를 부단히 강화함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민족의 군대를 창설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의 준동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민족해방혁명위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진보적인 정권을 수립함과 함께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없애버리고 민족적독립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것은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9폐지)

토지문제의 해결은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농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농민의 절대다수가 봉건적착취에서 신음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토지문제의 해결은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토지개혁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농촌에 뿌리박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며 농민대중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토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토지몰수대상과 토지개혁실시기간, 몰수방법과 분배방법 등을 옳게 규정하며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 실정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토지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로력자수에 따라 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였으며 분배한 땅에 대해서는 매매 또는 저당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로동계급의 방조밑에 농촌의 기본핵심력량인 빈고농들에 확고히 의거하여 밀고나감으로써 근로농민들의 리익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장 짧은 기간내에 철저히 수행하였다.

토지개혁과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가적소유로 만드는것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한 놈들에 의한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륭성발전을 바랄수 없다. 오직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없앨수 있으며 산업분야에서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을 기본적으로 근절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며 민족해방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문제는 혁명력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해결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기본으로 하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이다.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묶어세우는가에 달려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결속함으로써만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새 생활창조를 위한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그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상응하는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수 있으며 민족해방혁명을 사회주의혁명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민족해방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될뿐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방위력도 창설할수 있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전반적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모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게 된다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끊어지고 그 멸망은 더욱

급속히 추진될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소유를 확대하여 인민경제에서 그 주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점차 나라의 공업화를 실시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믿음직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튼튼한 경공업기지와 발전된 농촌경리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압력을 용감히 물리치고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던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과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국내자원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매우 간고한 조건에서도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 파괴된 경제를 극히 짧은 기간내에 완전히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쌓아올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다.

민족해방혁명의 완성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민족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부식한 반동적문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중요한 혁명의 하나이다.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민족해방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관리에 필요한 준비된 민족간부대렬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민족해방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민족해방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위업은 끝나지 않았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살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 한 인민들은 잠시도 반제국주의투쟁을 멈출수 없다. 투쟁은 지구상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릴 때까지, 억압당하고 천대받던 모든 민족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반제투쟁이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들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원칙적인 문제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견결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민족해방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없으며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자체도 고수할수 없다.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이 심각한 반제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그것이 장기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는 투쟁이라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더우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또다시 식민지적지배를 회복하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반제투쟁은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척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원조》의 간판을 들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기여들어 그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식민지,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하려고 갖은 흉악한 음모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압력과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나라들에서는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며 반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반제투쟁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또다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의 처지에 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길로 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하는것이다.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의 혁명적개조는 결국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은 그 선진분자들의 조직된 부대인 맑스-레닌주의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자기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혁명투쟁의 선두에서 대중을 령도하여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투쟁의 선두에서 대중을 령도할 대신에 대중의 뒤꼬리를 따르며 혁명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수 없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대중과의 튼튼한 동맹을 형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은 반동들의 공세를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것이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의 력사적인 혁명과업은 그들에게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9폐지)

본래 혁명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따라 그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며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다. 때문에 누구도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을 대신하여 혁명을 하여줄수 없다. 또한 혁명사업이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을 요구하는 창조적사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움으로써만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나갈수 있다.

또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

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우와 같은 책, 537페지)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으로서 그것은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려는 모든 혁명가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러한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모든 혁명사업에서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자기의 힘을 믿고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은 불패의 힘을 발휘하며 기적을 창조한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들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결코 혁명하는 나라들간의 국제적 협조와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국제적 협조와 지원은 국제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의무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나라들은 응당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 협조와 지원은 그것을 받는 나라 인민의 주체적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새 생활창조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승리의 근본조건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 *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사상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새로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있으며 적지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민족해방혁명의 길에서 달성한 모든 귀중한 성과들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놈들의 생명선을 영영 끊어버리고야 말것이며 자기들의 력사적인 혁명위업을 완수하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것이다.

근로자 제 12 호 (루계 333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12월 1일 발 행 • 1969년 12월 5일

ㄱ—93498 값 50 전

1969년도 《근로자》차례묶음

김일성동지의 문헌

필자, 호수, 페지

편집국 론설

혁명전통

당건설

정치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관계